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말라.
남이 한 것을 보지말라.
자신이 한 것만을 보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3월 2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95호 2016년 5월 4일 수요일

화재나도 소방차 진입불가 사찰 167곳 火魔에 '무방비'

[진단] 사찰이 안전하지 않다

2012년 10월 31일 새벽 1시 45분. 단풍 명소인 전북 정읍 내장사에서 갑작스럽게 불길이 치솟았다. 사찰에는 스님 10여 명이 거주했지만 목조건물에 옮겨 붙은 거센 불길에 속수무책이었다. 화재감지시스템에 의해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40분이 지난 새벽 2시 25분 경. 이미 대웅전과 그 안의 문화재를 모두 태운 뒤였다. 당시 사찰 인근에 배치된 소방차가 노후화로 3개월 전 철수해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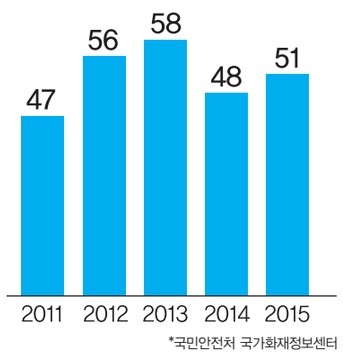
이처럼 전통사찰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통사찰 952곳 중 12%인 112곳이 일반 가정용 소화기 외 별다른 대책이 없었으며, 특히 18%에 달하는 167곳은 외부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해 대형화재에 취약했다.

국민안전처가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사찰 경내 소방차 진입 여건 및 초기소화설비 설치여부 파악해 27일 발표한 조사내용이다.

종교시설 화재 1191건 중 사찰 22%
기본 소방설비 미비 112곳 달해
소방펌프, 소화장치 등 설비 無
산림법 등 규제 장벽 철폐 과제
조계종 · 국민안전처 대책 고심



〈전국사찰 화재 연도별 발생 건수〉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국민안전처 자료에 의하면 진입로 협소 70곳, 도로없음 64곳, 가파른 경사 24곳 등이 구체적인 소방차 진입 불가의 사유로 꼽혔다.

또 사찰일주문 계단 5곳, 일주문 폭 제한 1곳, 사찰 내 진입로 협소 3곳 등도 포함됐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전통사찰들은 옥외소화전, 비상소화장치 같은 초기 소화설비를 설치해 초동진압을 해야 하지만 112곳은 이동식 소방펌프나 비상소화장치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시설 화재 23%가 사찰화재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의 최근 전국사찰 화재원인 분석을 보면 사찰의 화재 위험성은 더욱 피부에 와닿는다.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5년간 전국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191건으로 이중 전통사찰 화재가 22%(260건)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도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다쳤다. 원인은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으로 각각 34%와 29%를 차지했다.

사찰의 연도별 화재발생 빈도를 보면 2011년 47건, 2012년 56건, 2013년 58건 등으로 증가했으나 2014년 국민안전처 설립 이후 4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5년 51건으로 다시 증가세에 돌입했다. 소방설비 등에 한계가 있어 작은 발화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안전처가 사찰을 대상으로 방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다.

산림법 등 규제 장벽 넘어야

현재 시급한 과제로는 사찰 소방도로 설치가 꼽힌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있다. 산림법 등이 그것이다.

실제 지난 2014년 강화 삼랑성에서 난 산불이 전등사로 번지기 직전까지 갔다. 전등사는 소방차가 들어 올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 전등사 내 300통의 방화수로 겨우 화마를 견뎠다. 위기를 넘기고 전등사는 소방차 진입을 막는 남문계단 정비 등을 제안했지만 문화재청이 사적 훼손을 이유로 불허했다. 방화선 설치도 요구했지만 지자체가 간벌을 서로 떠밀고 산림법 등에 저촉되며 유야무야 됐다.

심주완 조계종 문화팀장은 "산림법과 도로법, 하천법 등 저촉되는 법령이 상당수 있다. 도로 개설시에 드는 예산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난 3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서 규제 완화와 예산지원을 시사했다. 당시 박 장관은 "관계부처와 논의해 사찰의 소방도로를 별도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위해가 가해진다면 과감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 방지를 위해 방재시스템에도 지원하는 한편 소방시설 설치 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실장 혜일 스님도 "국립공원과 문화재청 등과 50m 화재방지선을 두는 사업을 벌였지만 일부 사찰이 규제법령에 저촉돼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소중한 문화재를 보관한 곳이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4월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소방차 진입 여건을 비롯한 사찰 방재 개선을 시작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올해도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사찰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 사찰은 총 2317곳으로 특히 국보 ·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가 있는 사찰 83곳 중 최근 3년간 합동점검을 받지 않은 9곳을 골라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이 직접 점검한다. 또한 전국 소방관서는 부처님오신날 전후 화재특별경계 근무를 하고, 중요 사찰에 소방차량을 근접 배치시켜 화재에 대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연등으로 수놓은 '미래 100년 총본산 성역화'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가 오색 연등으로 이뤄진 '미래 100년 총본산 성역화' 문구를 선보였다. 조계사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등문구를 통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월정사에 오대산 사고 전시관 건립 예정

조선왕조실록 · 의궤 귀환 새 전기 마련할 듯
6월 착공 예정, 연면적 2800㎡에 지상 2층 규모

월정사에 평창 오대산 사고 전시관이 6월경 착공될 예정이어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 귀환이 앞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건립 타당성 용역을 이미 마친 오대산 사고 전시관은 5월초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월정사 입구에 연면적 2800㎡에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은 "내년에 오대산 사고 전시관이 월정사 입구에 세워지면 영구 및 장기 임대나 전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선왕조실록 · 의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유관 기관과 협의해 귀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평창군은 현재 실록 · 의궤 진본 일부를 대여 형식으로 전시하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중이어서 귀환 여부에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시관이 들어서면 실록과 의궤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영구임대 등 형식을 갖춰 사실상 반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차장섭 강원대 교수는 "사고 전시관이 건립되면 오대산사고에 보관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제자리로 가져올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관 건립에는 국비 47억5000만원과 도비 · 군비 각 23억7500만원 등 총 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편 일제강점기 반출됐다 2006년 반환된 실록은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있으며, 2011년 환수받은 의궤는 국립고궁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은평구 · 함양군, 백초월 스님 선양 나선다

선양사업 실무협의… 탐방 · 순례길 등 조성 추진

경남 함양군 · 고성군, 서울 은평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사용했던 제작형식 · 도안과 동일한 태극기를 그린 백초월 스님(1878~1944)의 선양사업에 나선다.

함양군과 은평구는 "'진관사 태극기'를 그린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의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고 4월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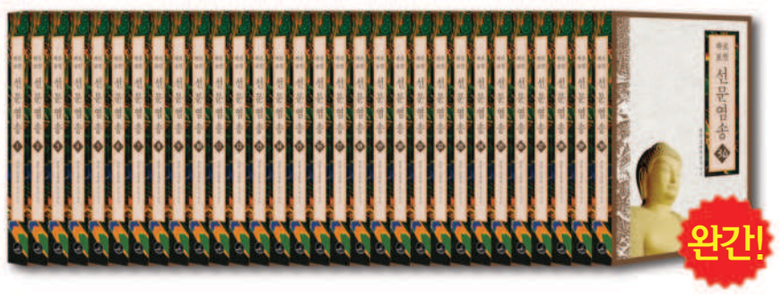
함양군은 오는 6월 고성군 · 은평구와 업무협약을 하고 판소리 개발 주요 탐방길과 순례길 등 선양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선양사업의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백초월 스님은 1878년 경남 고성서 태어나 1891년 함양 마천 영원사에서 출가했다. 스님은 이후 1916년 함양 마천 영원사 주지로 임명된 뒤 영원사 재건 불사를 추진했다. 영원사에는 스님이 사용한 신발 주머니 등 일부 유품이 있다. 스님은 1919년 중앙학림에 민단본부를 설립한 뒤 군자금 모금과 임시정부 송부, 혁신공보 제작, 승려독립선언서 배포 등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스님은 비밀결사체 일심교 창설과 진관사 주석 역임, 일심교 강령 제정 등 수없이 많은 항일운동을 펼치다 1944년 독립운동 군자금 사건으로 일제에 붙잡혀 그해 청주교도소에서 옥중 순국했다.

함양군은 "한국 근대사의 대표적인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백초월 스님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선양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은평구는 진관사 태극기를 발견한 후 순국 70주기 기념 학술세미나, 백초월 스님 순국추모제, 진관사 태극기 가로기 게양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 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 각 권과 각 품마다 토끼뿔 자문자답으로 선미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전자출판으로 1, 2, 3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보시고 과연 명안종사의 역저여서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진불, 연등처럼 밝게 웃거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4월 27일 조계사 경내에서 개최한 '제9회 불교아동미술큰잔치'에 불교계 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 800여 명이 참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날 행사장을 방문, 아이들에게 직접 합장주를 채워주었다. '감사합니다' 하며 합장 반배하는 천진불 모습에 함께한 스님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박아름 기자**

종교계 최초 '성소수자 연구보고서' 발간

불사연, 4월 27일 성소수자 18명 현상학적 연구 결과 발표

"자신의 자녀가 성소수자더라도 핍박하고 반대만 할 수 있을까요? 육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처럼, 아니 어쩌면 성소수자들은 더 큰 정신적 아픔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에 대한 이번 연구가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이하 불사연)는 4월 27일 '불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한국불교'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종교계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한 것은 최초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는 왜 '성소수자'에 주목하는가. 불사연 측은 팔리어 율장에 나타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소개하며 "성(性)과 관련해 붓다는 출가한 사람의 도덕적 생활에 대해 문제를 삼을 뿐 일반 재가자들에 대해 도덕적 평가는 거의 하지 않았다"며 "불교교단서 동성애가 비난 받았다면 동성과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계율로 금지된 성행위 일반을 범했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사연 측은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깊고, 성적 관념이 매우 협소하다"며 "따라서 중생의 심리적 고통 해결을 큰 화두로 삼는 불교가 성소수자들의 남다른 고통에 관심을 갖고, 붓다와 같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불자 성소수자 법회에 참석 중인 9명 포함 총 18명(게이12 · 레즈비언4 · 양성애자1 · 트렌스젠더1)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인식 주체가 경험하는 의식작용을 탐구하는 철학적 방법론)를 통해 이뤄졌다. 이중 8명(참여자1~8)은 포커스 그룹으로 나누어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고, 13명(참여자 A~M)에 대해선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책임연구원은 동국대 외래교수이자 불자 성소수자 법회 지도법사 효록 스님이 맡았으며, 감사는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 상담심리학 교수, 연구보조원은 박상준 서울불교대학원대 상담심리학 박사수료생 · 김광미 서울불교대학원대 상담심리학 박사과정생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과반수의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불교의 태도가 '관대하고 수용적'이라 답했다. 이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6월 '성소수자 초청법회'를 봉행하고, 성소수자 퀴어문화축제에 동참하는 등 불교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참여자1은 "불교는 종교 중 유일하게 교리 자체가 차별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존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아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동국대 외래교수 효록 스님 등
성소수자 인식 속 불교 연구
종교적 역할과 기대방향 모색도

"인권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반면 어떤 공식 입장 없이 미온적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참여자6은 "대부분의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것이 불교가 가진 전반적인 문제다. 인권의 한 부분인 동성애 문제에 대해 불교가 진정 관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1도 "사회노동위원회나 효록 스님이 성소수자를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조계종단 차원의 입장은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웃종교가 '성소수자는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배타적인 반면, 불교는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주목한단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자1은 "기독교는 동성애를 에이즈 · 항문성교 등과 연계해 비난하기 때문에 불교는 인권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란 붓다의 가르침을 근거로 성소수자를 지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참여자들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불교경전 연구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성소수자들을 위한 포교 정책 개발 등의 기대사항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불교계 내부에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단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효록 스님은 "스님들은 대중들이 처한 현실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성찰 · 공감하며 치유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변화하는 사회와 대중을 알아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경전연구와 더불어 인권적 차원으로 접근,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연등회보존회, 인사동서 '호기놀이' 재현

4월 23~24일 200여명 참가해

서울 인사동에서 한국전통 봉축놀이인 '호기놀이'가 재현됐다. 연등회보존회와 대한불교청년회 산하 참이엔씨는 4월 23~24일 서울 인사동에서 호기놀이를 선보였다.

호기놀이는 연등회 전 아이들이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연등회재료비를 모연하는 놀이다. 이번 호기놀이에는 서울, 경기 지역 비로자나국제선원 어린이법회, 은석초, 길상사, 수덕사 어린이법회, 개인 참가자, 글로벌 서포터즈, 조계사 풍물팀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통풍물팀과 함께 인사동 일대 80여개 상점을 방문해 보시금을 받고 상점 번영을 기원했다. 또 북인사동 마당에서는 외국인 30여명을 비롯한 100여 명이 영어로 민속문화를 배우는 자리도 열렸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1급 법계 품서식 봉행

비구 종덕 26명, 비구니 현덕 27명 등 총 53명

조계종 1급 승가고시에 합격자에 대한 법계 품서식이 봉행됐다. 조계종은 4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법계 품서식을 열고 비구 종덕 26명과 비구니 현덕 27명 등 총 53명에게 종덕 · 현덕 법계를 전수했다.

이날 조계종 정정 진제 스님은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의 대독을 통해 "종덕과 현덕 법계는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중생들을 불법으로 이끌도록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품서식은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의 서원시달과 품수 스님들의 발원, 가사정대와 법계증 전달 등으로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1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비구 스님 26명과 비구니 스님 27명 등 총 53명의 스님들은 종덕 · 현덕 품계를 품서했다. 사진은 품서식에서 가사를 정대하는 스님의 모습이다.

'직선제'로 뜻 모아진 대중, 기로에 선 조계종

대중공사 지역순회 성료, 5월 18일 불광사서 종단 제안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을 위한 지역 대중공사가 4월 28일 제주지역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5월 18일 열리는 중앙대중공사서 최종안이 종단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직선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중공사추진위원회는 4월 28일 제주 관음사에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에서는 직선제 선호가 69.4%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4월 23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부산경남 대중공사와 4월 26일 평창 월정사에서 열린 강원 대중공사에서도 '직선제'가 각각 77.2%와 58%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재적인원이 많은 부산경남지역 대중공사에서는 구족계 수지자 전원이 참여하는 파격적인 직선제에 대부분이 지지의사를 표했다. 지금까지 다른지역 대중공사에서는 일정 승랍 이상의 제한적 직선제 도입 목소리가 높았다.

그렇다면 대중공사에서 나온 '직선제'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총무원장 선출법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아직

現선거법 개선안 찾기 마무리
불자대중 여론 '직선제' 우세
입법은 실패사례 많아 미지수

은 미지수다. 먼저 대중공사추진위원회는 지역여론을 정리해 5월 18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공개하고, 최종입장을 모아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선출제도혁신특위(위원장 초격)'에 전달한다. 특위는 이를 검토해 총무원장 선거법을 수정하고 종헌개정안과 함께 6월 예정인 임시중앙종회에 상정한다.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개정안은 종법으로 출석인원 2/3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근간인 종헌 개정을 위해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과정으로 2009년에도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안이 나왔지만 모두 법안 통과가 실패한 바 있다. 대중공사에서 참가자들의 '결국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중공사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은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길게보고 불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공사추진위가 불교계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별 대중공사는 권역별 불자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출가하고 처음으로 종단의 중요현안에 대해 지역 사찰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 종단 출범 후 이런 방식의 대중의견 청취는 처음"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은 이때 선출법을 만들면 축제와 같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도 "불교는 역사 속에서 대중들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한국불교가 맞이한 도전 역시 대중들의 열린 논의와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계사 주지 원정스님도 "대중들이 모여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생전 처음 본다"며 "문수의 지혜가 이런 자리를 통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독자 개발 · 매체 변화… 불교 출판 과제 '산적'

월간 〈불광〉 500호 기념세미나서 논의

불교계 잡지 · 출판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가량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법륜 · 혜민 스님 등을 의존하는 저자 쏠림 현상도 심각했다. 또한 계절 · 연령을 고려한 마케팅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수 순천향대 미디어콘텐츠학과 초빙교수는 4월 27일 열린 월간〈불광〉 500호 기념 세미나서 주요 서점에서 나타난 통계들을 통해 불교출판의 현황과 과제를 짚었다.

장 교수에 따르면 불교 출판의 종교분야 점유율은 2009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타다가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2015년에는 5.8%나 줄었다.

성장률을 봐도 하락세는 두드러진다. 2012년과 2013년 20%대 성장률을 보였지만, 2014, 2015년에는 21.1%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타났다.

이런 고저가 뚜렷한 점유율과 성장세에 대해 장 교수는 불교 출판의 부족한 기초체력서 원인을 찾았다. 성장률이 높은 해에는 어김없이 법륜 스님 및 혜민 스님과 같은 스타 필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실제, 종교분야 베스트셀러 10위권 내 도서 중 불교 서적 비율은 2010년 이래 4~50%를 유지하지만, 대부분이 법륜 스님의 저서이다.

장 교수는 "종교 출판 영역을 넘어 일반 독자들도 함께 읽을 만한 에세이형 불교 서적과 같은 베스트셀러가 없는 해에는 금세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것은 교육 분야 등 스테디셀러의 축적이 부족하거나 급속한 시장변화에 불교 서적이 빠른 속도로 퇴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자 니즈를 만족하는 다종(多種) · 다양한 책들을 적시에 개발하는 능력이 오늘날 한국불교 출판에 가장 요구되는 점"이라며 "같은 종교 출판 분야에 속하는 기독교 출판이 온갖 층위를 가진 책들을 통해 종교 서적 내에서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독서 소비층인 20~30대가 부재한 것도 불교 출판의 위기 요인으로 꼽혔다. 교보문고에서 10대를 위한 선행과제로 △'붓다 북클럽 · 서점'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불교 서적의 발견성을 높일 것 △디지털 등 적극적 매체 전환 등을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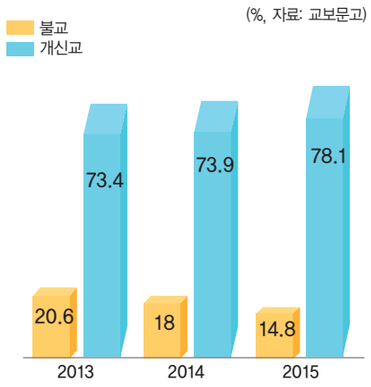
장 교수는 "독자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계층에게 적절한 도서를 선별 · 소개하는 불교 서적 전문 마이크로 사이트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웹진, 팟캐스트 등을 통해 불교 서적을 큐레이션해 소개한다면 책의 발견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읽는 콘텐츠'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여전히 출판인의 몫"이라면서 "종이책 시장의 위축에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출판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종이 콘텐츠에만 매몰되지 말고 열린 자세로 미래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경달 네오터치 포인트 대표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콘텐츠 소비 성향'을, 이중호 한국출판콘텐츠 대표가 '디지털 시대 출판 잡지 최근 동향과 모색' 등을 각각 발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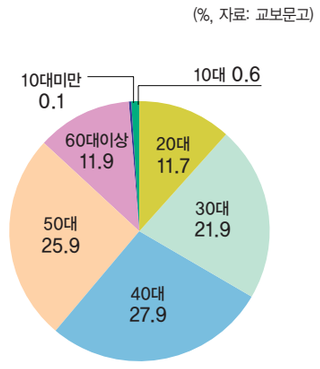
토론자로는 서재영 불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가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교 분야 내 불교·개신교 서적 점유율



2015년 불교서적 연령별 점유율



불교출판 2년간 20% 하락세
혜민 등 저자 쏠림 현상 심각
독자 확보 등 마케팅도 전무

책 · 사람 연결하는 新 모델 필요
독서모임 활성화 충성독자 확보
디지털로 매체 변화, 시작해야

진각종 종의회 의장에 덕일 정사 재선출

부의장 무외 · 원명 정사



진각종 제14대 종의회 하반기 의장에 덕일 정사〈사진〉가 재선출됐다.

진각종 종의회는 4월 20일 진각문화전승원 종의회 회의실서 제398회 정기 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선거를 통해 보원심인당 주교 덕일 정사를 임기 2년의 제 14대 종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재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무외 정사(불정심인당 주교)와 원명 정사(대명심인당 주교)가 각각 뽑혔다.

이번에 종의회 의장에 선출된 덕일 정사는 "2년전 밝혔던 명품 종의회를 통해 명품 종단을 만들자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며 "이런 각오로 하반기 종의회도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덕일 정사는 1986년 최정심인당 교화를 시작해 대원심인당 주교, 밀교신문사 논설위원, 진선여자중학교 교장, 제9 · 13대 종의회 의원, 14대 전반기 종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보원심인당 주교와 유지재단 이사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김주일 기자**



"국가와 사회 위해 지혜 등불 밝히자" 국회 정각회(회장 강창일)는 4월 25일 국회의사당 중앙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국회의사당 봉축탑은 현재 시민사회와 국회에서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이천 오층석탑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천 오층석탑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다. **노덕현 기자**

잊혀진 역사 현장, 옛 절터 기록하다

불교문화재硏 · 문화재청 〈한국의 사지〉보고서 발간
대구 · 경북 231개소 조사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함께 조사 · 발간한 〈한국의 사지–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대구 · 경북 지역 폐사지를 총망라한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일감)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015년도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의 성과를 담은 〈한국의 사지-대구광역시 · 경상북도〉를 발간했다"고 4월 28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지역은 2012년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지를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진행됐으며, 2015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나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경주 황룡사지 · 감은사지 · 사천왕사지, 군위 인각사지, 포항 법광사지 등 사지 14개소와 석탑, 불상 등 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지 180개소 등 총 231개소를 추가 조사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의 사지-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는 폐사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역(寺域), 식생(植生)과 유구 · 유물 현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 등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여 수록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원래 절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된 문화재를 조사한 내용도 포함되어 사지의 역사적 · 학술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2012년부터 제작한 '사지 분포현황지도'를 지난해에 이어 별책으로 수록해 사지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 등에 소장된 사지 출토 문화재의 사진과 일제강점기 사진을 첨부해 시각적 효과를 살린 것도 강점이다.

〈한국의 사지-대구광역시 · 경상북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대학도서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며, 국민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은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폐사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앞으로 사지와 소재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 관리 ·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올해는 강원도, 전라북도 지역 중 기존에 미조사된 207개소의 사지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노동자 희생강요 구조조정 멈춰라"

조계종 사노위, 노동자의 날 성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4월 28일 126주년 노동자의 날 기념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들이 기업별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노동위는 "IMF 당시 대량해고와 이로 인한 가정파탄,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자살을 지켜본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 곧 '생계의 공포'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자 대량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아닌, 기업의 책임감에 따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의 구조조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만, 구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아예 없다"며 "그러는 와중 조선 협력업체는 무너져 가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은 끊기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박아름 기자

템플스테이 보조금 집행 교육 사업단, 제도 강화 내용 설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4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각 사찰 템플스테이 실무자와 총무 · 재무 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2016년도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사업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강화된 제도는 △공사업체 선정 전 자부담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 △설계 · 감리 · 공사업체 분리 △지정 감리제도 운영 등이다.

교육에 앞서 단장 성효 스님은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 투명성은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사사로움이 반드시 빠져야 한다"며 "번거롭더라도 염두에 뒀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추서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추서

불기2560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이 사 불심 도문 | 이 사 무심 보광
이 사 봉안 효경 | 이 사 벽암 지홍
이 사 서해 흥교 | 이 사 월천 혜총
이 사 선효 성학 | 감 사 여천 무비
이 사 장산 도업 | 감 사 월암 덕상
이 사 서주 태원 | 용성문도회 회장 경 선
이 사 금아 혜국 | 대각회분원 회장 지 암
이 사 장산 성춘 | 사무국장 보관 김형문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월천 혜총
목동 법안정사 · 횡성 대각정사 주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Tel. (02) 765-2701, Fax. (02) 741-1385

일 주 문



충남도청 봉축 점등법회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4월 25일 충남도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제32회 부산 연꽃문화제

성행 (사)동련 이사장 스님은 5월 7일 오전 10시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제32회 부산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상담개발원 교육관 개관법회

도성 불교상담개발원장 스님은 5월 9일 오후 5시 서울 개운사에서 불교상담개발원 교육관 개관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스님은 4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에서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에 재임명됐다.



공불련 제16차 합동수계법회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6월 4~5일 보은 법주사에서 제24차 성지순례 및 제16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대중화합 위한 산사음악회

대구 자인사, 지역민에 각종 문화공연 선보여

대구 동구 자인사(주지 구룡)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봄맞이 산사음악회를 4월 9일 지묘동 벨마트 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자인사 주지 구룡 스님은 올해로 3회째 맞은 산사음악회에 대해 "지역민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며 "뜻을 같이하는 불교 공동체로, 인재불사의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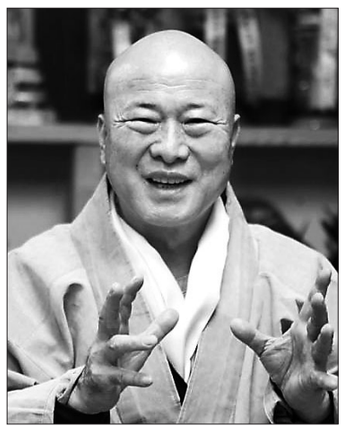
산사음악회는 비구니 스님 바라춤을 오프닝으로 사물놀이 · 의식바라춤 · 활량무 · 사다라니축원, 지전도 살풀이 민요와 주민 노래자랑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국불교 종단총연합진흥회장 연화 스님,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스님, 한국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태성 스님, 대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련 스님, 은혜사 주지 일공 스님, 백안사 주지 성오 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시대 요구하는 불교학에 헌신"

Interview

제22대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



임시총회서 만장일치로 선출

우수학술등재지 등록에 박차

"불교학 종가로 위상 높일 것"

불교학계 최초의 학회로 43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학회 회장에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한국불교학회는 4월 22일 서울 봉은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총 116명의 성원(위임 포함)을 이룬 가운데 성운 스님을 22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성운 스님은 이 자리에서 "반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학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며 "불교학회 중 한국불교학회는 종가집이다. 그 위상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성운 스님은 향후 △불교학 연구자들의 학회 참여와 논문 발표 활성화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 및 실천불교학문의 연구 역량 강화 △우수등재학술지 평가에 따른 학계 평판도 및 KCI 인용지수 증대방안 강구 △온라인 논문시스템 구축 △회원 저변 확대 모색 △신진학자 발굴 △불교학계 종가학회로서 위상 정립 △법인사무체계 확립과 학회운영 효율화 구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불교학회 학회장 임기 동안 우수학술등재지 등록을 위한 준비와 국제학술대회 정기화 추진을 중점 진행한다.

성운 스님은 "미국, 유럽, 동남아 불교와 한국불교가 교류 · 발전하는 학술대회의 정기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교학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 학자들도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다. 불교학자와 사회 각 분야 학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불교학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사무체제의 확립도 중요과제라고 진단한 스님은 "재정확보를 위한 후원조직 구축과 사무국을 통한 운영효율화에도 힘쓰겠다"며 "사무국을 두고 운영효율화를 꾀한다면 다른 학회에도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 이런 노력으로 각 지역에 분가학회 등이 구축되면 불교학 전반에 큰 바람이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번 불교학회 학회장 취임을 기해 불교 각계의 불교학 발전을 위한 관심도 호소했다. 스님은 "불교학의 문호를 열고 불교 안팎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절차탁마하는 분위기를 구축하겠다.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43년 역사와 전통에 각인된 한국불교학회의 담대한 원력과 선배학자들의 학문정신이 다시금 발현될 수 있도록 경주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후학들의 소명"이라며 "불교학이 이시대에 맞는 학문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운 스님은 속리산 법주사로 동진출가하였으며 1961년 수원 용주사서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용주사서 탄허, 운허 스님에게서 경학 기초를 익힌 스님은 1965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동국대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동 대학 일반대학원 인도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경영자최고위과정을 수료했으며 삼천사 주지, 조계종 사회부장, 풍경소리 대표이사, 한국불교학회 부회장, 한국정토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단 정체성 정립에 의지처 될 터"

Interview

조동종 6세 종정 심월 스님



"교육불사 통한 인재양성과

묵조선맥 선양에 힘쓰겠다"

대한불교조동종은 4월 14일 총무원이 위치한 서울 수락산 도선사서 6세 종정으로 취임한 심월 스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심월 스님〈사진〉은 법어를 통해 "추운 눈속에서 봄바람이 부니,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향이로다"며 "세계속의 한 송이 꽃이 피니 묵조선의 향이요, 만 리의 흰 구름은 만 리 하늘을 떠가니 조동법 향기 또한 만 리를 가는구나"라고 설했다.

이어 심월 스님은 "대한불교조동종은 중창 이래 동산양개 스님의 가풍을 이어 한국불교에서 30여 년간 수행 종단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묵조선맥을 선양하고 종단 중흥을 완수하며 조동종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종도들의 확고한 교육불사를 통해 인재양성을 하는 데 큰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심월 스님은 "요즘같이 어지럽고 혼탁한 사회에서 우리 불교가 지친 중생들에게 큰 힘이 되기 위해서는 수행자들이 본분에 충실해 모범이 되야 한다"며 "종단 스님들에게 법회와 교육을 통해 수행과 포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75년 백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심월 스님은 1983년 경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1984년 안성 용천사 주지를 거쳐, 1994년 조동종 종정 운파 스님에게 대덕법계를 품수했다. 종단의 주요 요직으로는 종정 사서실장(1996), 교육원장(1997), 포교원장(1999), 감찰원장(2000)을 거쳤으며, 제6대와 제7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동산양개선사(洞山良价禪師)를 종조(宗祖)로 모시고 있는 조동종은 양개선사의 자주성과 이엄진철선사의 법성원융한 묵조선풍(默照禪風)을 종풍으로 한다. 여기서 묵조선은 좌선하는 곳에 반드시 깨달음이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대구 관음사, 보살계 수계산림

4월 25일, 사부대중 200여 명 동참



송광사 대구분원 관음사(주지 원명)는 4월 25일 경내 무설전 금강계단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원명 스님은 "보살계를 받아 지니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남과 같으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1회 '보리수아래' 북콘서트

일지암 암주 법인 스님 초청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대표 시각)는 4월 26일 무각사 로터스북카페에서 책읽는 소모임 '보리수 아래 BOOK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에는 일지암 암주 법인 스님이 나서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풀었다. 스님은 출가의 인연과 출가자의 삶에 대한 내용을 대중과 공유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분당마사회, 한솔福 특화사업 지원

'한솔직업체험센터'에 700만원



한국마사회 분당지사는 4월 27일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에 '한솔직업체험센터' 후원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분당마사회는 2011년부터 한솔사회복지관 특화사업에 후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여성 및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해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10-5769-7071

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TEL 02)511-2026

“잘 들리나요~” 마음속 부처님, 노랫말로 가까워져요

제28회 전국 어린이 · 청소년 연꽃노래잔치

5살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10여개 사찰서 200명 참여
제주 우담바라합창단 대상



어린이 · 연꽃노래잔치 중창부문에 참가한 부산 홍법사 어린이 합창단이 ‘꿈 찾아 가리라’를 율동과 함께 부르고 있다.

“우리 절 부처님은 마음씨가 좋아요. 마음속 찌든 때 깨끗이 씻기고~”

잡티 하나 없이 맑디맑은 천진불들의 노랫말이 어른들의 가슴에 콕 박혔다. 해맑은 얼굴과 때 묻지 않은 목소리는 오탁악세마저 정화시킬 듯 곱고 또 고왔다.

4월 23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제28회 전국 어린이 · 청소년 연꽃노래잔치’가 열렸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주최하고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천진불들의 신심을 다지고, 그간 갈고 닦은 노래실력을 뽐내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여개 사찰 및 어린이집에서 200여 명이 참가했다.

명예회장 법현 스님은 경연에 앞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음악을 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도 공부를 잘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음율로 표현한 것이 ‘게송’이고, 이 게송으로 이뤄진 경전이 〈법구경〉이다. 여러분이 부를 노래도 게송처럼 부처님 가르침을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의 떨리는 마음 때문인지 적막해진 공연장에 양 갈래로 머리를 땋은 꼬마아이가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유치부 네이처힐어린이집 최서진(5) 어린이다. 대회 참가자를 통틀어 최연소인 최서진 양은 ‘부처님이 좋아요’를 부르며 관객들의 미소를 이끌어냈다. 어린 친동생 혹은 딸내미 같은 귀여운 독창에 묵직했던 공연장 분위기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유치부 독창이 끝나고 저학년 무대가 이어졌다. 유치부에 비해 발음도 제법 정확해졌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감정도 실렸다. 고학년들은 고음도 쭉쭉 뽑아내면서 각자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다. 중창과 합창 부문은 여러 명이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율동이 가미돼 보는 즐거움까지 안겨줬다. 특히 밝은 분위기의 찬불동요가 주를 이룬 대회에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선보여 감동을 선사했다. 국제선센터 바라밀 어린이합창단은 찬불가 ‘마메소리’를 불러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성인합창단과는 다른 아이들의 고운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장엄하게 표현됐다.

경연 이후에는 올해 연등회 율동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곡명은 ‘웃으면서 살아갈래요’. 사회자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자 공연장은 금세 유명 아이돌 콘서트를 방불케 했다. 소박한 선물 하나 받기 위해 소리 지르고, 레크리에이션에 자지러지는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이다.

이날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팀은 제주불교 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었다. 우담바라 합창단은 ‘공심공체 둘이 아닌 노래’와 ‘선물보따리’를 불렀다.

이종만 심사위원장은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줘 고맙다. 특히 중창과 합창은 구성원 모두 마음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잘 소화했다”며 “제주나 부산 등 각지에서 참여한 열정이 돋보였고, 예년에 비해 실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심사평 했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유치부 최서영 양(구룡유치원) · 저학년 홍채유 양(국제선센터) · 고학년 전예린 양(진관사) · 중창 봉은사 · 합창 홍법사 동림 어린이합창단이 수상했다.

우담바라 합창단 회장 유예현(13) 양은 “얼마 전 열린 제주불교연합합창제에서도 1등 했는데 오늘도 대상을 받게 돼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장 제용 스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연습하면서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좋은 무대를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큰 상은 한정돼 있기에 모두 받을 수는 없었지만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즐거운 기억도 들을 수 있었다.

‘가릉빈가’를 부른 이재원(14) 군은 “좋은 상을 받지 못한 건 아쉽지만 노래 연습을 하면서 절에 자주 나오게 되고 스님들과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고 강조했다.

국제선센터 김주남 지휘자는 “짧은 시간 안에 합창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불교적이면서도 신심이 일어날 수 있는 노래를 접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상을 수상한 제주불교 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은 ‘공심공체 둘이 아닌 노래’와 ‘선물보따리’ 등을 음성공양 했다.



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네이처힐어린이집 최서진 양.



제28회 전국 어린이 · 청소년 연꽃노래잔치에 참가한 전 참가자와 내빈들이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편저자
독각~ 진귀 (獨覺~ 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석가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敎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석가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석가를 품다
제2見 평온 초대장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4見 차 한 잔
제5見 해인 삼매
제6見 창조와 표절
제7見 야부선사 웃다
제8見 요지경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11見 동시구족
제12見 법맥?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14見 윈드서핑
제15見 발효식품
제16見 한 맛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19見 참새집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22見 직거래 ?
제23見 묘혜(妙慧)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26見 고구마 부쳐?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31見 다음생
제32見 종(鐘)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36見 종교와 현실
제37見 자식인연
제38見 형제 인연
제39見 도반인연
제40見 부부인연
제41見 대방광불 화엄경..
제42見 왕(대통령)
제43見 독각(獨覺)은?
제44見 〈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48見 보시(기부)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52見 화엄경_7행詩
제53見 평온 축제

도서출판 왕 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붓다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노래 · 댄스로 어버이날을 다채롭게”

불교계 복지관 孝잔치 ‘풍성’

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자녀들은 벌써부터 카네이션과 함께 선물 마련에 한창이다. ‘어떻게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고심하는 모습이 훈훈한 ‘가정의 달’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에 불교계 노인복지관들도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한 효 잔치 한마당을 꾸리는 데 분주하다. 올해는 어떤 다양한 축제들이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대치노인복지센터(관장 지현)는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관내에서 ‘제44회 어버이날 기념 문화공연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브라스 퀸텟 ‘SHOW’의 공연으로 꾸며진다. 브라스 퀸텟 ‘SHOW’는 2013년 시작된 금관 5중주 팀으로, 금관악기 연주자들이 모여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재즈 ·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고 있다.

관장 지현 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자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으니, 지역주민들이 함께 뜻 깊은 자리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02) 564-0108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5월 4일 오전 11시 관내 대강당에서 ‘제13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축제’를 실시한다. 복지관 회원 및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훌륭한 어버이상’ 표창, 축하공연, 부대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5월 3일 종각역 젊음의 거리에 위치한 ‘18번가 가요리믹스’에서 어르신 한마당 ‘당당한 신노인 바운스바운스 시즌2’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시즌1 행사 모습.

아울러 광진노인복지관은 ‘효사랑 나누기한마당’ 일환으로 5월 18일 오후 3시 관내 대강당서 ‘제12회 만수무강 칠팔순 잔치’를 열 예정이다. (02)466-6242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5월 6일 오전 11시 30분 조계사 경내 야외 특설무대에서 약 2,500명 어르신들을 초청해 ‘365일 당신이 최고!’를 개최한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늘푸른예술단의 전통무 시나위, 김용현 성악가의 식전공연, 김정란 경기민요 이수자의 경기민요, 박경희 무용가의 연꽃춤, 원로가수 안다성 공연, 스리랑카 전통민속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어르신들이 직접 무대에 서는 노래자랑대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노래자랑을 위해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4월 21일 예선전을 실시, 치열한 경합 끝에 15명의 본선 진출자가 무대에 오른다. 심사는 이동훈 작곡가와 이미성 대중가요교실 강사, 관장 희유 스님 등이 맡는다.

희유 스님은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자비의 마음으로 15년째 어버이날 행사를 열고 있다”며 “지역사회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부모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 6220-8541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5월 3일 종각역 젊음의 거리에 위치한 ‘18번가 가요리믹스’에서 어르신 한마당 ‘당당한 신노인 바운스바운스 시즌2’ 행사를 개최했다. 당일 행사장 입구에는 어르신들이 드레스 코드를 뽐낼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했으며, 개그맨 이원승 · 차승환 씨가 사회를 맡은 본 행사는 가요리믹스 DJ 및 트로트 리믹스에 맞춘 어르신들의 댄스타임, 초청가수 공연 등이 진행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 후원한 조계사 · 쌍용C&B · 한국야쿠르트 · 하이트 · 진로 · 국순당 등 기업들은 미용티슈, 한국야쿠르트 프로젝트 ‘윌’, 백세주, 국순당 쌀막걸리 등으로 구성된 기념품 세트를 마련했다.

종로노인복지관 측은 “지난해 이어 시즌2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어르신들의 주도적 참여가 돋보였다. ‘드레스 코드’ 아이디어도 어르신 동아리 대표단 회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결정된 것”이라 설명했으며, 관장 정관 스님은 “많은 기업들의 참여로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다. 어르신들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깨달음과나눔(이사장 이매옥)은 5월 1일 오전 10시 송파구 마천동 소재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 ‘어버이날 기념 경로효친 잔치’를 열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관내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 무료급식 및 선물 등을 제공하고 노래자랑 및 초청공연 등을 진행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고국에 대한 그리움, 절에서 달래요”

청주 명장사, 재한 베트남불자 법회 성료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불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천태종 청주 명장사가 재한 베트남불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었다.

명장사(주지 유정)는 4월 23~24일 경내 법당에서 재한 베트남불자와 베트남 현지 사찰 스님들을 초청해 ‘행복 만들기’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베트남 사찰 전수원 · 현장사 · 불람사 스님들과 이주노동자 및 여성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복만들기 법회는 명장사 주지 유정 스님과 전수원 주지 틱티엔 투언 스님의 인연에 따라 마련됐다.

24일 열린 틱티엔 스님은 법회에서 “이국땅에 살고 있는 모국의 수행자들이 밝은 표정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가호 덕분”이라며 “이번 법회를 통해 일심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동포간의 정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지 유정 스님은 “이국생활에 쓸쓸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고향의 정과 사랑을 전해주는 법회를 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불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돕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4월 24일 청주 명장사에서 열린 ‘행복만들기’ 법회

법회에 참석한 베트남불자들은 첫날 법회에 이어 아미타경 염불수행, 기본교리학습, 좌선 등을 실시했다. 이후 25일에는 경행염불 · 기념사진촬영 등을 마쳤으며, 26일 부산 삼광사 순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명장사는 유학생 힐링캠프와 다문화가정 예절 · 다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국불교를 세계에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호섭 기자

이슬땀 흘리며 난치병 환아 쾌유 발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4월 23~24일 조계사서 3000배 봉행


170여 명이 익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진 3000배 정진에 끝까지 임해 수행증을 받았다.

희귀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 생명들의 쾌유와 행복을 발원하며 사부대중이 모여 3000배 정진기도를 올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4월 23일 ‘제16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힐링 멘토’ 혜민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이중 170여 명이 익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진 3000배 정진에 끝까지 임해 수행증을 받았다.

자승 스님은 지홍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오늘 철야정진에 임한 여러분들은 단순한 물질적 보시를 넘어 난치병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고 온정을 나누는 뜻 깊은 공덕을 세우는 것”이라며 “난치병 어린이들이 지혜와 자비의 품안에서 재활되길 발원하며, 자비보살행으로 우리 사회가 불국정토로 화현되도록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모금된 치료비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모금액과 함께 난치병 어린이 지원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원 어린이는 치료의 시급성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5년 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 망막모세포종 등을 앓고 있는 난치병 환아들을 위해 철야정진 등 모연을 진행, 8억8000만 원의 모연금을 국내 및 라오스 환아들에게 전달해 왔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5-95104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박아름 기자

“국가 치안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찰전법단, 부처님오신날 기념 ‘자비의 선물’ 나눠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가 국가 치안에 힘쓰고 있는 경찰을 위해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했다.

조계종 포교원 경찰전법단(단장 지현)은 4월 2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자비의 선물-Thanks Police In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열고, 아침부터 준비한 먹거리 세트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 행사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경찰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선 현장에서 치안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준비했다. 올해 조계사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마련한 먹거리 세트는 3000개. 자비의 선물은 경찰청 산하 중앙경찰학교를 비롯해 경찰대학교, 특공대 등 교육기관 및 부대 15곳에 배부됐다. 강남 봉은사도 먹거리 세트 4600여 개를 포장해 5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전법단장 지현 스님과 조계사 신도들이 자비의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이날 경찰전법단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은 “올해 봉축표어가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이다.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를 위해 조계사 식구들이 한푼 두푼 모아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고 행사취지를 설명한 뒤 “누구나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갖지만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다함께 모여 자비를 실천한다면 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 경찰대 불교회장은 “지난해에도 조계사를 비롯한 불교계의 도움으로 자비의 선물을 받았다.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선물이 많은 경찰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환 조계사 신도회 부회장은 “매년 초파일을 앞두고 두 달 전부터 사찰확대회의를 통해 자비의 선물을 준비한다. 경찰뿐만 아니라 병원 · 소외계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한 지 40여 년 정도 됐다”면서 “이는 세계일화 정신에 따라 여러 꽃들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출범한 경찰전법단은 경찰 본청 산하 서울청과 16개 지방청, 지역 경찰서, 경찰대학, 국립경찰병원 등에서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년에는 〈경찰법요집〉 1만2000부를 제작, 무료 배포해 통일된 법회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윤호섭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5월 31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6월 1일(수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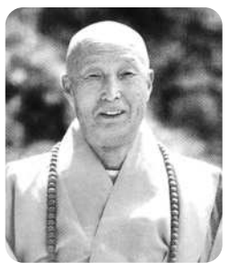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대중불교운동!!

법화 보현 관법 수행 지도사 모집

일생 여래 정직자로 함께 할 분 환영



■ 출가 수행 과정 : 총본산 및 지역 사원 수행
■ 유발 법사 과정 : 수행 후 지역 전도사 수행
■ 수행 과정 : ❶ 지관(자력) 염불(타력) 각 7일
❷ 용맹정진(중도삼매) 보현 관행법 21일
■ 자격 과정 : 전교사, 전법사, 전도사, 대법사
■ 수행 기간 : 5 ~ 6월 중순 입방 예정(수행 후 수계 건당)
■ 제출 서류 :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2장

원할시 본 사암에 상주할 승려(비구 · 비구니), 유발법사(남 · 녀), 일반신도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수행 참선 기도 중 선신들이 구름때처럼 몰려와 함께 기도
※적정열반체험 보살 인왕 대선사 직접 지도



총본산 | (재)불교여래종 총본산 금강대약사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 043-731-2261 | 010-9292-4828(명안스님)

대본산 | (재)여래종 대본산 전통사찰 약사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625번길 22
☎ 031-734-3205 | 016-363-6923(인왕큰스님)

무명용사 이름도 찾는 '뼈'… 보존근거 마련 절실

4월 화요열린강좌 '뼈가 들려준 이야기'

진주현 법의인류학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미국드라마 CSI와 BONES. 뼈 전문가들이 뼈에 담긴 정보로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모습이 그려진다. 뼈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도대체 무엇일까? 미국 국방부에서 참전 무명용사들의 유해를 조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는 진주현 법의인류학자는 4월 26일 열린 대한불교진흥원 4월 화요열린강좌에서 "가야시대인이 몇 살까지 모유수유를 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뼈가 갖고 있는 정보는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진주현 법의인류학자는…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2003년 유학을 떠나 미국 스탠퍼드대와 펜실베니아주립대에서 인류학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0년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온두라스, 중국 등에서 발굴현장에 참여해 인류의 진화와 기원, 사람과 동물 뼈대의 구조적·기능적 차이 등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 하와이에 있는 미 국방부 소속 합동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사령부(JPAC)에서 법의인류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의인류학자입니다. '뼈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전쟁포로와 전쟁실종자 유해를 찾아 가족 품으로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본부는 하와이 진주만에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기관은 미군이 참전했던 전쟁지역 유해를 발굴하는데 주로 3개 전쟁에 힘을 쏟습니다. 가장 먼저 2차 세계대전입니다. 실종자가 제일 많기 때문인데요. 해군 전통에 따라 바다에 수장된 유해가 많아서 발굴은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베트남전입니다. 여기에 기관 예산 80%가 집중돼 있습니다.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수는 3만 6000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7900명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는데 사실 '찾을 수 있느냐' '찾을 필요가 있느냐'는 논의도 있습니다. 7900명 중에 5000명 정도가 북한지역에 있고, 그만큼 관심도 덜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영화 '국제시장'에 흥남부두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사했는데요. 전사자보다 동사자가 더 많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4년에 중공군과 미군이 시신교환을 했고, 미군은 4400구의 유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800구가 하와이로 왔죠. 하와이 펀치볼 국립묘지에는 'US UNKNOWN KOREA'라고 적힌 묘가 800개 정도 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무명용사들의 묘입니다. 사망했지만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DNA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명용사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묘를 팠죠. 조사해보니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더군요. 따라서 뼈는 굉장히 잘 보존돼 있지만 유기물질이 전부 없어져 DNA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묻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희망을 준 뼈가 바로 '쇄골'입니다.

연령 추정 가능한 '쇄골'

쇄골은 엄마 뱃속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뼈입니다. 임신 5주가 되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사람 몸에 뼈가 206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성장이 끝납니다. 쇄골은 어릴 때 서로 떨어져 있다가 만 23세 정도에 붙기 시작하고, 만 30세면 성장이 완료됩니다. 다른 뼈들은 훨씬 이전에 붙죠. 즉 연령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1949년부터 참전한 미군이 결핵 위험 때문에 흉부 엑스레이를 찍고 입대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기록이 너무 오래돼서 버리려고 한다는 것도요. 쇄골은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고, 운동으로 잘 변하지도 않습니다. 또 흉부 엑스레이에 잘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사서 엑스레이를 복원하는 회사에 맡겨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사자에 대한 기록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통해 유해 추정인물을 정리하고 육군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 묘를 개장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인데 이런 노력을 통해 6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유해가 50구 정도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기혼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물도 쇄골이 있을까요? 쇄골의 중요성은 부러졌을 때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쇄골이 부러지면 팔을 돌릴 수 없습니다. 즉 팔 돌릴 일이 없는 동물은 쇄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쇄골이 가장 중요한 동물은 새입니다. 모든 힘을 날개에 두기 때문이죠.

쇄골이 가장 먼저 발견된 동물은 바로 공룡입니다. 공룡에게 왜 쇄골이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날개는 날기 위해 진화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새의 날개는 분명 날기 위해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날라고 만들어졌다는 법은 없습니다. '코가 안경을 쓰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이해하는데 주제를 날개로 바꾸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뼈로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사건해결 · 역사연구에 큰 도움
우리나라 법적 보존 근거 없어
연구 분야 발달에 걸림돌 작용

일반적으로 새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익룡은 공룡이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파충류입니다. 공룡이 새가 됐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면 새는 날개가 있으니까 새가 된 공룡도 날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익룡 뼈를 분석해보면 새와 비슷한 게 없습니다. 날아다닌다는 공통점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는 '수렴진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전혀 상관없는 동물이 비슷한 환경에 놓이면서 비슷한 형태로 진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북극에도 살고 남극에도 삽니다. 굉장히 멀죠. '이렇게 추운 물속에서 어떻게 얼지 않고 살아갈까?'라는 의문에 조사를 해보니 부동액 역할을 하는 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북극 물고기와 남극 물고기의 부동액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서로 다른 종이 유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슷한 형태로 진화한 것이죠.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볼까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뉴스를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자주 접하는 소식 중 하나는 한국인들에게 비타민D가 모자란다는 것이었는데요. 비타민D가 부족하면 뼈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흑인노예 해방 후 흑인들이 대도시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몇몇 도시에서 흑인들에게 구루병이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겨울에 금방 어두워지는 도시일수록 심했습니다. 여자는 구루병이 생기면 골반이 틀어져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20세기 초 미국의사들은 흑인이 열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인종차별이 심했던 것이죠.

그러다 한 의사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흑인이 열등해서 구루병이 생긴다면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은 전부 구루병에 걸려야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었죠. 조사해보니 아프리카에는 구루병을 앓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피부색과 뼈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적도 부근에 사는 사람은 피부가 검습니다. 검은 피부는 자외선 차단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피부암도 잘 안 걸리죠. 반면 북유럽은 겨울에 오후 2시에도 어둡습니다. 이런 곳에 피부 검은 사람이 살면 햇빛을 받지 못해 뼈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북유럽 사는 사람은 피부색이 까맣게 진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부와 뼈도 함께 엮여서 조상이 살던 환경에 맞게 진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륙 이동이 어려웠기에 피부암이나 구루병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왕래가 쉬워서 자기 피부색과 맞지 않는 지역에 살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물론 요즘은 비타민D를 약처럼 섭취할 수 있긴 합니다만 밖에 나가 햇빛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거 기록 담은 정보의 바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죠. 물론 다르긴 합니다. 두 발로 걷고 문화도 있고. 하지만 뼈 안에는 진화의 역사가 담겨 있고, 동물이 우리와 얼마나 비슷한지 보여줍니다. 우선 모든 척추동물은 같은 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큰 뼈에서 점점 작은 뼈로 세분화 되는 구조는 심지어 인간과 박쥐도 같습니다.

말의 진화가 정말 재미있는 예인데요. 가장 오래된 말의 화석을 보면 당시 말 크기는 지금의 진돗개와 비슷했습니다. 말이 지구상에 나타났을 때 숲이 우거져 지금처럼 초원을 달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나봅니다. 결국 말이 달리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변하면서 몸집이 커지고, 말발굽도 하나로 변합니다. 힘차게 뛰어야 하는 환경이 되면서 발굽도 진화한 것이죠.

지금도 말에게는 다섯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다만 말의 태아는 처음에 다섯 손가락 유전자로 출발해 임신 중기가 되면 유전자 두 개가 죽습니다. 임신 말기에 또 다른 두 개가 죽고요. 결국 발굽이 하나인 채로 태어납니다. 이처럼 유전학과 뼈 등이 주는 정보를 보면 옛 모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뼈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재미있는 게 뼈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한국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유해를 발견했을 때 임의대로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조사하고 묘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묘에서 유골과 백자가 함께 나온 상황이고요. 이때 백자를 함부로 갖다 버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마음에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버린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빨리 치우고 싶을 것이고, 여기에 화장업체가 돈을 받고 처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유골을 연구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뼈만큼 당 시대의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일례로 가야시대에 모유수유를 몇 살까지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뼈입니다. 또 살인사건 등을 해결할 때도 뼈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사건이 오래되면 남는 건 뼈밖에 없습니다. 옛 사람들이 걸렸던 병까지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료지만 중국이나 일본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인식이 아직 많이 낮습니다.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뼈에 대한 정보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한국인 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백인의 것을 가져다 맞춰보는 실정입니다. 결국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긴 어렵겠죠. 뼈는 결코 불쾌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를 알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앞으로 대중의 인식이 바뀌면 우리나라 연구분야도 발전하지 않을까요?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명예를 가진 이름 분석 강의



● 일 시 : 2016년 5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3시간)
● 장 소 : 서초구 방배동 950 ~ 1번지 401호
● 강의내용 : 국회의원 16대~19대 당선자 이름 분석 및 당선예측법 강의. 국내 최초로 집단을 통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명예를 갖는 이름들에 대해 7가지 방법을 기준하여 당선결과를 살펴보고 향후 당선예측이 가능한가에 대해 연구 분석한 자료를 공개합니다.
● 수 강 료 : 5만원 (교재비 포함)
● 대 상 : 스님, 성명학자, 철학원운영자, 입문자, 작명가, 주역, 육효, 구성학, 보살, 한학자, 성명학분야 석 · 박사과정. 어느분이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성명학은 지어준 이름을 기준하여 부와 명예 중 어디로 발달하였는지 예측해 주는 학문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 확신하며 당선자 중심으로 연구한 자료를 강의합니다.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대상. 문제의 제기. 연구의 방법 및 제한과 본론에 대해 3시간 집중 강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25명까지만 착석 가능합니다.
예약은 www.kyumyeong.com으로 오셔서 문의하기에 예약을 하시거나 다음카페 규명성격심리학회에 올리시면 됩니다. [강사 : 미래예측학 박사]

진로적성힐링 상담소 | 오시는 길 : 총신대(4.7호선) 5번 출구 → 200m 401호 미래예측학 박사 안성재
문 의 : H·P 010-5418-5972

이재성 부산대 교수 원효학술상 대상 선정

진흥원, 7회 수상자 발표… 이도흠 교수 특별상

이재성 부산대 영문과 교수가 제7회 원효학술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4월 21일 종합 심사회의를 제7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선정 · 발표했다.

교수부문 대상에는 이재성 부산대 영문과 교수의 영문 저서 〈Postmodern Ethics, Emptiness, and Literature: Encounters between East and West(포스트모던 윤리학, 공, 그리고 문학: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영예를 안았다.

이재성 교수의 영문저서는 "포스트모던 윤리학과 선불교를 중심으로 한 공(空)과 무아 · 불이 사상을 비교하는 대담하고 참신한 시도를 보인 역작"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원효의 화쟁과 마르크스 사상을 현대적으로 풀이해 많은 주목을 받은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의 저서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는 교수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도흠 교수의 저서에 대해 "현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원효와 마르크스의 두 관점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진단했다"고 평가했다.

비전임 교수 부문 대상에는 이창숙 前 동국대 강사의 〈불교의 여성성불 사상〉이 수상했다. 〈불교의 여성성불 사상〉은 현실적이면서도 첨예한 화두인 여성 성불을 매우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성 교수


이도흠 교수

학생 부문은 은상에 송남주(고려대 대학원 철학과)의 논문 '사사무애에 관한 고찰 - 징관의 사법계(四法界)설을 중심으로', 동상에 이화순(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의 논문 '내담자 친화적 명상심리 상담을 통한 파산자의 심리적 변화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3일 오후 3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다보원)에서 개최됐다. 교수부문 대상에는 1000만원, 특별상과 비전임교수 부문 대상에는 각각 500만원, 학생 부문 은상에는 250만원, 동상에는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신성민 기자

韓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진정성' 필요

등재추진위, 4월 29일 3차 국내학술회의 개최

불교계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전통산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선행과제로 '진정성(Authenticity)'을 꼽았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국제적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 주문됐다.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의 전통산사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3차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의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마련한 이날 학술회의에서 이혜은 동국대 교수(사단법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위원장)는 '연속유산으로서 한국 전통산사의 진정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전통산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부각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진정성은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해주는 요건"이라면서 "한국의 전통산사는 살아있는 유산인 만큼 진정성에 대한 기준도 전통산사가 지닌 특수성에 기초해 진실하게 기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7개 개별 사찰이 아닌 연속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이 교수는 역설했다. 이 교수는 "사찰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등재하고자는 '한국의 전통산사'라는 제목에 맞게 등재요소가 되는 7개 사찰 전체를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7개 사찰이 세계유산 등재신청유산으로 신청됐는지'를 국내 비교연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전통산사 보존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7개 개별 사찰 각각 특성 아닌 연속유산으로 등재 이유 찾아야

통합관리 등 국제 기준으로 접근

7개 사찰에만 유형유산 4만여 점

"한국 고유의 불교 가치 내포해"

이동주 백제고도문화재단 고도유산부장은 발제를 통해 통합보존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알렸다.

이 부장은 "연속유산에 있어 통합보존관리시스템은 '유산의 구성요소 및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 체계'와 '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들간의 협력 및 갈등 조정'의 역할이 부여된다"면서 "이런 조직 구성 계획은 등재신청서에도 수록돼야 하며, 각 사찰별 보존 · 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 선암사의 전경. 선암사를 비롯한 7개 사찰은 '한국의 전통산사'라는 연속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이어 이 부장은 "한국의 전통산사 보존관리는 국내적인 시각이 아닌 국제적인 시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전통산사'의 유 · 무형유산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경미 등재추진위원회 사무국 책임연구원은 전통산사의 유형 유산의 가치에 발제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추진 중인 7개 사찰의 조각, 회화, 건축 등 유형 유산은 42,773점에 달한다. 이 같이 수많은 유물들이 사찰 전각의 배치, 경관과 어우러지며 한국 불교만의 고유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안에 봉안된 부처와 불화는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러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조물이 조성됐다. 이 같은 점에서 한국의 산사가 가지는 특수성이 이해돼야 한다"면서 "불화와 불상은 건조물의 건립 및 중수시기와 시대적 특성을 공유하면서 전통 산사만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양산 통도사 등 7개 사찰은 2015년 12월 28일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됐으며, 현재 2018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아시아 대학들 불교학 논하다

동국대 등 4월 21~22일 북경서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명문 대학들이 모여 각국의 불교학 성과를 발표 · 교류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북경대 영걸교류센터에서 '제2회 동아시아 4개 대학 불교학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제학술대회에는 동국대 불교대학 및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을 중심으로 북경대 철학과, 동경대 인도철학불교학과, 대만대 불학연구센터 등이 참여했다.

'동아시아 사회의 종파불교와 지역전통'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중국 각지에서 학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명의 발표와 함께 토론이 펼쳐졌다.

동국대에서는 불교대학 교수이자 정각원장 혜원 스님이 '한국의 간화선과 운문선의 특징'을, 김천학 HK교수가 '해동화엄의 특징'을 주제로 발표했다. 북경대에서는 예샤오용(葉少勇) 교수가 '이제설의 발전'을, 마빙타오(馬炳濤) 선생이 '명말기의 천태 역사서'에 대해 발표했다. 동경대에서는 시모다 마사히로(下田正弘) 교수가 '대정신수대장경 간행으로 본 현대 불교학에의 공헌'을, 미노와 켄료 교수가 '일본 불교에서의 종(宗) 개념의 발전과 변화'를 발표했다.

대만대에서는 두바오루이(杜保瑞) 교수가 '〈육조단경〉의 고전적 영역과 이론적 창조'를, 차이야오밍(蔡耀明) 교수가 '대승불교의 공성과 구도변현'을 발표했다.

김종욱 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동아시아 인문 네트워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동아시아 불교학의 미래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단순히 학술대회에서 그치지 않고 현지 고적 답사 등을 통해 불교에 대한 안목을 확장시키는 역할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 4개 대학 불교학 국제학술대회' 3회차는 2년 후 대만대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4회차 4년 후 동경대에서 개최된다.

신성민 기자

17세기 佛母 금문 스님 생애 · 작품 조명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 불교미술사학회 세미나서

봉덕사 목조불상 조사통해 활동연대 · 작품 등 명확해져

17세기 활동한 조각승 금문 스님의 생애와 작품 활동 등을 비교 · 분석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4월 9일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열린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에서 '안성 봉덕사 목조여래좌상과 조각승 금문'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이 중요한 것은 6년 전에 안성 칠장사 명부전 불상 조사를 계기로 금문 스님에 대한 존재가 확인된 이후 추가로 조사 · 발굴 성과를 내놨기 때문이다.

최 위원은 2013년과 2014년 안성 봉덕사 목조여래좌상과 원주 구룡사 심검당 목조보살좌상을 조사하면서, 이들 불상들이 금문 스님의 작품임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금문 스님의 활동 시기와 불상 양식 등이 명확해졌다는 것이 최 위원의 주장이다.


안성 봉덕사 목조여래좌상. 17세기 조각승 금문이 조성한 것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사진제공=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

최 위원에 따르면 금문 스님은 1635년 경에 태어나 출가한 후 수련기를 거쳐 혜희와 1655년에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불상과 1662년에 순천 송광사 관음전 보살상을 조성하고, 1666년에 수화승으로 안성 봉덕사 봉안된 불상을 제작했다. 또한 금문은 1668년에 수화승 승일과 김천 직지사 비로전 불상을, 1676년에 수화승 혜희와 완주 안심사 화장암 불상(김제 금복사 봉안)을 제작했다.

금문 스님의 마지막 기년명 불상은 1706년에 안성 칠장사 명부전 불상으로 조사됐다.

최 위원은 "금문 스님은 주로 혜희와 불상 제작에 참여하고, 혜희가 1650년대 살았던 충남 공주 계룡산 근방에 거주하면서 경기와 충청도 사찰이나 암자에 불상을 제작했다"면서 "1703년 이전에 종2품(從二品) 문무관의 품계에 해당하는 '가선(嘉善)'의 공명첩을 이름 앞에 쓴 것으로 보아 국가적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에서 발급한 공명첩을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매장문화재 발굴 기간 준수 의무화된다

문화재청, 관련 규정 개정

문화재청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4월 27일 일부 개정 · 고시했다.

개정된 발굴조사 규정에 따르면 발굴기관의 발굴조사 기간 준수가 의무화되고, 매장문화재 보존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에 '공 · 사익에 미치는 침해 정도'가 신설됐다. 또 보존하도록 조처된 발굴 유적의 재평가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아울러 대형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굴조사 부분 완료의 횟수 제한이 폐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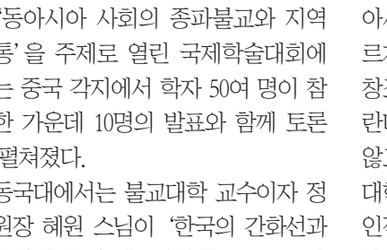
지표조사 규정에서는 지자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하거나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존을 지시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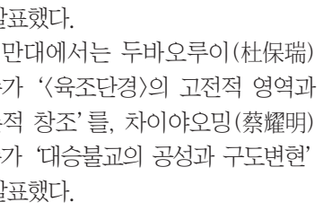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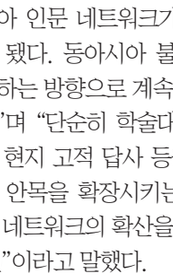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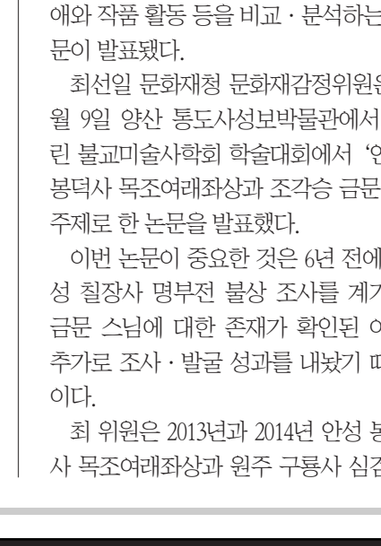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10년 지켜온 무료급식소, 앞으로도 쭉~”

민들레밥집, ‘효심밥상’으로 재탄생

지난 2007년, 부산 동래구에서 무료급식소 ‘민들레밥집’을 탁발로 운영하던 두타 스님에 대한 이중생활이 전파를 탔다. 가짜스님인데다 급식소 운영비를 유흥비로 쓰는 모습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무료급식소를 애용하던 어르신들. 두타 스님이 자취를 감추고, 급식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하자 부산불교연합회와 진구사회복지협의회, 세상을향기롭게가 뜻을 모아 10여 년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폭적인 후원을 받지 못해 최근 운영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범어사 금강암 도감인 효문 스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부산불교계는 4월 26일 무료급식소 ‘민들레밥집’을 ‘효심밥상’으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개소식에는 세상을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과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기념테이프 절단식과 점안법회, 축사 및 인사말,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효심밥상을 이끌어갈 효문 스님은 “평소 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복지학을 공부하던 중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소임자를 찾는다기에 망설임 없이 맡게 됐다”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부모님께 효심을 다하듯 어르신 공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인 스님은 효심밥상 개소를 축하하며 무료급식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스님은 “밥집의 원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낸 효문 스님의 뜻이 빛난다”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눔 회향 공덕을 이어나가고, 사부대중도 그 뜻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부모 공양 올리듯 효심으로
어르신들 주 5회 공양 대접
월 운영비만 400만원 소요
“많은 이들의 관심 절실해”

정여 스님은 법문을 통해 “효문 스님이 낸 착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고 행복을 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스님은 “그동안 부산불교계가 합심해 땅을 갈고 거름을 주며 가꾸듯 이곳을 지켜왔다. 효심 스님은 잘 갈무리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불교계는 4월 26일 동래구에 위치한 효심사에서 무료급식소 ‘효심밥상’ 개소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개소식에 참석한 내빈이 기념테이프를 절단하며 축하하는 모습.

효심밥상은 앞으로 휴일을 제외한 매주 평일 오전 11시 30분 무료급식을 시작한다. 현재 지역민을 포함해 범어사 금강암 신도까지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점심공양을 위해 찾는 어르신들은 100여 명이지만 매일 200인분을 마련한다. 저녁에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소식에 효문 스님이 공양을 넉넉하게 마련한 것. 이 모든 제반시설 운영을 위해 한 달 동안 필요한 운영비는 약 400만원이다.

효문 스님은 “개소식 두 달 전부터 운영자금은 개인 사비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밥집을 운영하는 데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후원계좌 농협 356-1109-8015-93(예금주:김석교)/(051)558-2108

하성미 기자

천불정사 “장기기증으로 기도 회향”



인재불사도량 부산 천불정사(주지 고담)가 ‘49일 기도 회향’을 맞아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했다.

천불정사는 4월 26일 경내에서 ‘유주무주 고혼 49일 기도 회향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참석한 재가자들은 (사)생명나눔부산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고 기도회향의 참된 나눔을 실천했다.

주지 고담 스님은 “방생 가운데 사람을 위한 나눔 방생인 생명운동 실천에 동참하고 고통 받고 아픔에 시달리는 이웃 중생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불교계에 나눔을 강조하고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천불정사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함께 자비의 쌀 20kg 백미 50포를 (사)생명나눔부산지역본부와 ‘장전3동 주민센터’에 기증했다. 자비의 쌀은 각각 불우이웃과 난치병 환자에게 전달된다.

하성미 기자

“불상 조성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자”

대응공사, 문수보현협시불 및 원불조성 점안법회



‘육바라밀 보시행 실천도량’인 대구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학장 도경)은 4월 23일 경내 큰법당에서 ‘문수 보현협시불 및 원불조성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동국선원 광진 · 진행 스님, 장덕사 청암 스님, 통도사 포교당 선구 스님, 해운정사 청명 스님, 등대사 청암 스님, 광명사 성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진홍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증명법사로 나선 혜봉 스님은 “세상사 인생이란 영원하고 고정된 것이 하나 없으니, 부처님전에 부지런한 정진만을 참되게 닦아가는 인생관을 세워야 한다”고 법문했다.

내빈축사에 이어 도경 스님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2곳에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후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취임식 개최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4월 26일 부산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내빈소개 △이임사(이윤희 3대 회장) △회기 전달 △감사패 전달 △자비의 쌀 1톤 전달식 △ 취임사(박대성 4대 회장) △축사 △법어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박대성 신임회장은 “삼보를 존경하는 불심을 확립하고 화합과 결속으로 불자가 하나 되는 연합신도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동참과 격려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사)부산불교복지협의회장 정여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효원 정사를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배덕광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특히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참석했으며 법문으로 부산 불자들에게 정진과 포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새 장엄등에 봉축기운 담아요!”

삼광사, 4만여 燈 밝혀 통도사, 물고기등 수놓아

부산지역 각 사찰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4월 27일 지관전에서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는 슬로건 아래 봉축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는 봉축점등법회를 시작으로 경내를 수놓은 4만여 개의 등에 불을 밝혔다. 동물등 · 사천왕등 · 범종등 · 법고등 · 나한등 · 탑등 · 봉황등 등 화려한 장엄등이 장식됐다. 특히 올해는 공중에서 움직이는 반야용선이 새롭게 선보였다. 아울러 삼광사가 백양산 자락에 조성한 힐링숲길에 등불이 밝혀져 지금까지와는 다른 매력을 더했다. 삼광사는 또한 5월 13~14일 힐링치유문화한마당을 열고, 힐링다도 · 명상 · 운동처방 · 페이스페인팅 · 투호던지기 · 들차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토크콘서트, 문화공연을 펼친다.

점등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춘광 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부산진구불교연합회 고문 혜총 스님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했다.


4월 27일 부산 삼광사 봉축점등법회에 참석한 내빈이 점등하고 있다.

한편 **통도사**(주지 영배)는 진주시(시장 이창희)와 지난 1월 유등축제 문화교류 MOU 체결 후 더욱 화려한 등으로 경내를 장엄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장엄등은 일주문 맞은 편 청류동천을 따라 50여 개가 설치된다. 연등뿐 아니라 통도사는 물고기등 2000여 개도 새롭게 설치했다.

통도사 총무국장 도문 스님은 “〈화엄경〉에는 장대교망 녹인천어(張大敎網 人天魚)라는 가르침이 나온다. 큰 가르침의 그물을 펼쳐서 사람들과 천신들의 물고기를 건져 올린다는 의미로 중생을 열반의 도리를 알게 하고 쉼을 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통도사는 4월 28일 양산운동장과 웅상출장소에서 봉축탑을 점등을 시작했다. 경내는 5월 7일 오후 7시 연등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으로 등을 밝힌다. 14일 오전 9시에는 봉축불공을 대웅전에서 진행하며 봉축법요식은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하성미 기자

선덕여왕 숭모회 문화다례제



불교를 진흥했던 선덕여왕의 호국정신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열렸다.

선덕여왕 숭모회(회장 권대자)는 4월 15일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제30회 선덕여왕 숭모 문화다례제’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류병선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도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시의회 의장,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선덕여왕 숭모 문화다례제는 각계의 축사와 격려사에 이어 헌다와 헌화, 궁중음악 등의 제례의식으로 봉행됐다. 특히 황룡사 호국의 탑 세우기 퍼포먼스를 통해 황룡사 9층 석탑과 분황사, 기림사 등 많은 사찰을 창건해 불교를 숭상하고 국태민안을 이뤘던 선덕여왕의 호국불교 정신의 뜻을 되새겼다.

권대자 선덕여왕 숭모회장은 “선덕여왕님은 불법의 힘을 빌어 왕대의 명승이신 원광법사, 자장율사, 대안대사, 원효대사 등 여러 훌륭하신 대사님을 모시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초석을 다졌다”고 말했다.

한편 선덕여왕이 창건한 팔공산 부인사도 21일 경내에서 전통 불교의식으로 숭모재를 봉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BORYEON 덕분입니다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5381-9335,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연등에 부대 발전 · 무사고 기원 담아요”

선운사 · 송광사, 육군 35사단서 ‘당산연등제’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전북지역 향토사단인 육군 35보병사단(사단장 최창규)부대 안전 및 무사고를 기원하는 당산연등제가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와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4월 22일 전북 임실 소재 35사단에서 ‘ 당산연등제’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당산연등제는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 주지 법진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최창규 사단장 및 부대 관계자, 지역불자, 장병 등 1천여 명이 동참했다.

부대 영내 곳곳에 봉축 연등이 장엄된 가운데 봉행된 행사는 봉축 법요식에 이어 축하공연, 점등식, 제등행렬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 동참한 대중은 법진 스님과 덕산 스님의 인례에 따라 부대의 무한한 안녕과 장병들의 행복한 군 생활을 기원했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항상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수처작주의 정신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광명의 등을 밝혀 항상 밝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우리의 서원을 담아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최창규 사단장은 “불교의 호국애민 사상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중요한 지표가 돼왔다”며 “군장병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선운사, 송광사 대중스님들과 지역 불교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요식에 이어 신시예술단과 35사단 댄스동아리 ‘솔져’, 군악대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최창규 사단장은 직접 북과 북채를 잡고 사철가와 사랑가를 열창해 참석 대중들과 병사들을 즐겁게 했다.

법회를 마친 대중들은 형형색색의 연등을 손에 들고 호국 충경사까지 제등행렬을 펼치며 부대 발전과 장병들의 무사고를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청소년 문화예술경연 ‘동백연’

지장천일기도 800일 회향도



전북지역 예비 예술인을 발굴하고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22일 선운사 일원에서 ‘제40회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 동백연’을 개최했다.〈사진〉 동백연은 지역 청소년들의 효행사상을 고취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마련된 행사로 고창문화원과 선운사가 공동주최했다.

동백제례를 시작으로 막을 연 동백연 개막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우정 고창군수, 송영래 고창문화원장, 고창관내 각급 초중등교장, 학생 · 학부모 등 1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동백연은 예술경연과 민속놀이 체험, 문화체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편, 선운사는 24일 지장보궁 천일지장기도 800일을 회향하고 90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강주 재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지만 각자 느끼는 시간은 모두 같지 않을 것이다”며 “기도와 수행의 시간은 자신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왜군 맞선 서산대사 호국정신 기리자”

해남 대흥사,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봉행

서산대사 탄신 496주년 기념
유 · 불교식 국가제향 재현해
사부대중 3000여 명 운집
청소년 나라사랑 사생대회도



해남 대흥사는 4월 22일 경내에서 서산대사 탄신 496주년을 기념하는 ‘호국대성사 서산대제’를 봉행했다. 행사는 유교식과 불교식이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다. 국토는 왜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고,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했다. 이에 서산대사 휴정 스님(1520~1604)은 선조의 부탁을 받고 전국 사찰에 격문을 보내 의승군의 궐기를 호소한 뒤 자신도 법흥사에서 문도 1500명의 승군을 조직, 평양탈환작전에 참가하며 전장에 나섰다.

이러한 서산대사의 구국의 마음과 호국불교의 가치를 추앙하기 위한 국가제향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는 승병을 일으켜 왜적을 몰아내는 데 크게 공헌한 서산대사의 탄신 496주년을 기념하는 ‘호국대성사 서산대제’를 4월 22일 경내에서 봉행했다. 행사에는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 전국수좌회 공동대표 정찬 스님, 조계종 법규위원장 몽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나선화 문화재청장, 우기종 전남 정무부지사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했다.

유교식과 불교식을 함께 진행한 서산대제는 조선시대 예제관 행렬로 시작해 종묘제례보존회 집전 아래 국가제향으로 재현됐다. 이어 서산대사의 가르침과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법요식이 열렸다.

법요식에서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국난에 처한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선 휴정 스님의 큰 뜻을 많은 분들이 소중히 생각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오늘날 국가제향의 의미를 살려 향후 휴정 스님의 뜻을 널리 선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기종 정무부지사는 축사에서 “서산대사의 헌신과 희생은 후손들이 한결 같이 따르고 실천해야할 삶의 나침반”이라며 “서산대제가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본받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흥사 성보박물관 앞 특설무대에서는 전국 초중고생 1천여 명이 참가한 ‘제22회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와 사생대회’가 함께 열렸다. 해남교육지원청과 (사)서산대사 호국정신선양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운문, 산문, 사생, 서예부분에 걸쳐 학생들의 경연이 펼쳐졌다.

한편, 해남 대흥사 서산대제는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지휘해 왜적에 맞서 싸운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추모 · 선양하기 위해 정조 때부터 국가행사로 이어져온 제례이나 일제강점기에 폐지됐다. 이후 대흥사에서 지난 2012년부터 옛 문헌 기록 등을 근거로 조선시대 서산대제 국가제향을 위한 예제관 행렬을 재현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 해군 3함대 · 해남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제향이 이뤄지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병마 이겨낼 희망 음악으로 나누다

(사)나누우리, 난치병 환우 돕기 음악회



(사)나누우리는 4월 24일 마이산 탑사 전주분원 실상사에서 ‘희망나눔 산사음악회’를 열고, 난치병 환우 3명에게 치료후원비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작은 음악회를 열어 중증어린이 환우들에게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는 국제구호봉사단체 자비나눔 실천도량 (사)나누우리가 마이산 탑사 전주분원 실상사에서 희망나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4월 24일 (사)나누우리가 주최하고 실상사(회주 진성)가 주관한 이번 희망나눔 산사음악회는 나누우리 부이사장 만우 스님을 비롯한 나누우리 이사스님들과 마하연승가회 스님들, 일광사 승천 스님, 대구혜인정사 진송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1부 난치병환우 치료비 전달식에서 (사)나누우리는 급성골수모세포증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서우빈(19세) 군 등 청소년 3명에게 치료후원비 각 100만원을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나누우리 부이사장 만우 스님은 “나누우리는 네팔,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운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왔다”며 “오늘 전달된 후원금이 작은 금액이지만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실상사 회주 진성 스님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웃에게 작지만 큰 희망을 주기 위해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자비나눔 산사음악회에는 실상사 법회 10주년을 맞아 실상사 밴드와 이계향 성악가가 출연해 신나는 난타공연과 클래식 음악을 선보였다. 대구혜인정사 진송 스님과 오동석 진북동파 출소장은 색소폰 연주를 선사했으며, 실상사 밴드 색소폰 동아리 회원들이 흥겨운 합주를 했다. 또 전통춤 공연과 민요한마당이 펼쳐졌으며, 가수 이영주 · 박정식 씨가 노래공연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봉축문화행사 대규모로 펼쳐져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가 대규모 봉축문화행사를 개최했다.

봉축위는 4월 23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제13회 전북어린이잔치와 행복바라미문화축전, 전북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어린이잔치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부로 나뉘어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다. 또 사경, 연등 만들기, 다도 등 불교문화 체험활동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성우 스님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정상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은 행사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행사를 펼쳤다.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불교합창제에는 금산사 바라밀 합창단, 군산 그린비 합창단,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 부처님세상 합창단, 참좋은 우리절 합창단, 김제 보리수 합창단, 만월사 합창단이 참가했다.

또 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초청가수 오은주와 현당이 출연하는 특별공연이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진리 구하는 길만이 가장 큰 인간 위업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㊻ 금각 은각요괴 잡아들이는 손오공

수미산, 아미산, 태산 밑에 깔린 손오공,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현장법사 스승으로 모시고 경 가지러 가는 길, 왜 이리도 장애가 많은가!

본디 올바른 길 가는 데는 장애가 도반이라 하지만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말 소용없다. 은밀히 수호하던 여러 신장들 놀라서 달려온다. 세 산의 신들을 다그친다. 당신들이 깔아뭉개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는가? 하늘 세계를 뒤집어 엎었던 제천대성이여. 이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데 그 양반 성깔 소문은 들었겠지?

그 성질 아직 안죽었거든? 당신들 밑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여의봉 한 대씩만 맞으면 아차하면 사망이요 최소한 중상이여. 세 산신들 벌벌 떨고 구원을 요청한다. 우선 당장은 눌려 있던 손오공 풀어주고 수호 신장들의 중재로 여의봉으로 얻어맞는 건 면하는 세 산신들.

요괴의 술법이 너무 뛰어나 자신들 꼼짝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한다니 손오공 기가 막힌다.

뭔 요괴가 이리도 권세가 세냐! 그러다 보니 요괴의 부하가 손오공 잡으러 신기한 보배 들고 오는 것을 알게 되고 손오공 잘하는 둔갑 사기술로 호리병과 정병을 갈취한다.

도사로 둔갑하고, 털 뽑아 멋진 호리병 만들고 보배 들고 손오공 잡으러 가는 졸개들 앞에 나타나 너희들 호리병이나 정병은 사람 불러서 대답하면 그 속으로 잡아넣지만 내가 가진 호리병은 하늘을 담는다는…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터무니없고 전무후무한 희세의 사기극도 벌인다. 옥황상제를 협박하여 이 사기극 성공시켜주지 않으면! (뒷말 생략)

결국 나타태자가 진무군의 큰 검은 깃발 빌어 해와 달을 몽땅 가려 천지를 암흑에 빠뜨려 하늘을 삼킨 흉내를 내곤, 적당히 꼬드겨 두 개의 보물과 맞바꾼다.

옥황상제까지 가담한 사기극이러니, 대단하다 손오공! 장하다 손오공! 희세의 공갈 사기영웅 손오공! 그 뒤로도 이 영웅의 행각은 이어진다. 요괴 부하로 변신하여 요괴 어머니 노릇하는 요괴 때려죽이고 자동포박기인 황금 포승 빼앗기, 손오공 동생 공오손, 오공손으로 가장하여 금각대왕 은각대왕 놀려먹으며 그들이 가진 보물 차례로 빼앗기~

줄줄이 이어지는 사기 대마왕의 행각이로다. 그 가운데 숫한 반전도 겪고 고생도 했다. 공오손으로 가장했을 때 가짜이름이라 괜찮을 줄 알고 대답했다. 호리병에 빨려 들어가지만(진짜 대단한 병! 가짜 이름까지도!) 태상노군의 단로(丹爐)도 견뎌낸 손오공 몸뚱이 어찌 이름 따먹기 호리병 속에서 녹을까! 모든 난관 극복하고 결국 금각 은각대왕을 그들이 자랑하던 이름의 따먹기 호리병 속에 담아 녹여 버리누나! 오, 대단하다! 사기영웅, 사기 대마왕! 어? 이게 아니구나! 정도를 걷는 우리의 영원한 스타 손오공!



그림 · 최주현

이제 자신은 이름의 집착을 벗어났는가? 오히려 이름으로 사람을 홀리던 요괴를 가두었구나! 그런데 이게 또 웬일?

이번에는 태상노군께서 나타나신다. 내 보배 돌리도, 돌리도~~~~~~~~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래유? 알고 보니 이게 다 관세음보살님 농간이란다. 현장법사 일행을 시험하기 위해 태상노군께 특별히 청하여 태상노군의 시동들을 요괴로 분장시키고 여러 보배 들려 내려 보냈다나?? 금각대왕은 금화로 지키던 동자, 은각대왕은 은화로 지키던 동자, 호리병과 정병은 선단과 물 담던 병…. 애궁! 보살님 아니라면 그냥 콱! 하고 싶지만…. 어쩌겠나,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이 하릴없이 보배들 모두 돌려드리니 호리병 속에 녹아있던 금각 은각 시동으로 원상복원되고…. 요괴잡은 손오공, 하늘로 돌아가는 태상노군 뒤통수 쳐다보기…. 그 눈길에 담긴 그 마음, 무슨 말을 하고플까?

"다음에는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억울하고도 슬픈 마음 접고 오늘도 길을 간다, 꿈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길~~~

금각대왕 은각대왕 이야기는 서유기에서도 꽤 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지요. 그 속에 담긴 의미도 많고, 반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재미있어도 길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지면의 한계…. 삼쾌선생이 열심히 압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속에 담긴 다른 이야기들을 해 볼까요?

권위에 기대던 산신일행
손오공 만나니 벌벌 떨어
힘 위에 힘이 있음을 알아야

요괴 은각대왕의 술법에 부림을 당하여 손오공을 눌러 버린 세 산의 신들, 자신들이 누르고 있는 원숭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서는 정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오공이 옛날에 천궁을 뒤집어엎은 사건은 알 만한 사람, 아니 알만한 신들은 다 아는 사건이지요. 옥황상제도 어찌하기 힘들었던 그 개차반 손오공, 지금 아무리 개과천선하여 불문에 들었다지만 옛날의 성질 쥐꼬리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보통 산신이라 하면 그래도 큰 권위를 가진 신 아닌가요? 거기다가 아미산, 수미산, 태산 같은 신이라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신일 것 같은데, 이런 신들을 요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손오공도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무슨 요괴이기에 나도 부리지 못하는 신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부린다는 것인가? 손오공이 신들을 좀 부릴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의봉 휘둘러 겁주어서 부리는 것이지요. 진정 마음으로 산을 불러 머리를 누르게 한다든가 하는 짓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요괴는 이 큰 산신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불러서 당직까지 서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비보통의 특별 요괴라 할까요? 그러니까 배운 재주의 영역이 각각 다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산신들은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은 관리라 할 수 있겠지요. 그 관리를 움직이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조폭도 폭력을 앞세워 관리를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또 남 앞에 드러내고 할 수도 없구요. 그런 직접적인 방법 말고 효과적으로 무엇이겠어요? 공문을 내려보내거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관리야 상하관계가 분명하니,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움직일 수 밖에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일을 한다는 막강한 기관힘을 내세워 움직이는 거지요. 요괴들은 바로 그런 술법을 배운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아니면 막강한 비밀스런 힘을 가진 기관의 힘을 동원한 것인지 모르지만, 관리가 꼼짝 못하고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힘을 쓴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이런 것이 바로 요괴가 닦은 술법이겠지요. 손오공이야 다른 계통의 술법을 닦았으니 이 방면에서는 요괴를 당할 수 없구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니 관리는 책임이 없다? 그런데 세상 일이 쉽겠어요? 공문서로 된 것이라도 그 공문이 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것이었더라면? 더구나 비밀스런 기관이라면 밖으로 드러내기 힘든 것이겠지요? 그렇게 되어 시행된 사항이 어떤 인물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문도 모르고 당한 그 인물이 알고 보니 엄청난 분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었더라. 성질도 정말 더러워서 남한테 조금이라도 당하고 살 사람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더라, 더라, 더라, 몇 번만 겹치면, 일을 집행한 관리로서는 정말 재수 옴 붙은 경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성질 더러운 그 인물에게 한 바탕 수모를 겪는 수 밖에요.

지금의 이 경우가 바로 그러네요. 천궁을 뒤집어엎었던 전설적인 존재인 제천대성 손오공, 그가 이제 요괴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불법을 위해 나섰으니…. 석가여래를 후견인으로 둔 셈인가요? 힘도 있고, 성질도 더러운데, 속칭 '빽'이라는 것까지도 든든한 인물을 건드렸으니, 산신들이 벌벌 떨만하지요? 그래서 은밀히 수호하던 오방의 신들인 오방아제에게 사정하여 겨우 손오공의 여의봉 매질을 면하는 구차한 모습…. 에구, 신들도 참 불쌍하여라! 힘 위에는 또 힘이 있으니, 힘으로 앞을 다투는 길은 끝이 없구나! 오직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그 길만이 앞을 다투지 않는 큰 길이로세!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 : 8.5cm×21cm


봉축연꽃리본(100개)
일 반 18,000원
고 급 27,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85,000원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25cm (50구) @65,000
• 30cm (50구) @65,000
• 35cm (50구) @70,000
• 40cm (50구) @73,000
• 50cm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 바림·공단등(6cm) @2,500원 (60개이상)
• 바림·공단등(8cm) @3,000원 (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cm) @6,000원 (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cm) @13,000원 (6개이상)
• 바림·공단등(20cm) @35,000원 (2개이상)
• 바림·공단등(30cm) @90,000원 (1개이상)
• 황 금 등(6cm) @2,700원 (60개이상)
• 황 금 등(8cm) @3,300원 (30개이상)
• 황 금 등(10.5cm) @6,500원 (16개이상)
• 황 금 등(13cm) @15,000원 (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도비단접등(12cm)(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 하단부분은 생 ·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cm×70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356-0976-5320-43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그 절집의 빛

⑩ 경주 소금강산 굴불사터 사면석불

불보살, 땅 속 바위에서 나투시다

땅 속에서 사방불 바위 나와 굴불사

삼국유사 〈탑과 불상〉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 조에 전한다.

"또 경덕왕(景德王)이 백률사(栢栗寺)에 거동해서 산 밑에 이르렀을 때, 땅속에서 염불하는 소리가 들려 그 곳을 파게 했더니, 사면에 사방불(四方佛)이 새겨져 있는 큰 돌이 나왔다. 거기에 절을 세우고 절 이름을 굴불사(掘佛寺)라고 했으나, 지금은 잘못 전해져서 굴석사(掘石寺)라 한다."

이 나라는 화강암의 나라다. 화강암이 지닌 물성은 영원성과 견고함이다. 그래서 화강암 큰 바위는 예로부터 숭배대상이 되어 치성을 올리는 바위신앙을 형성해왔다. 신라사람들은 그 바위신앙에다 불교를 습합(習合)했다. 화강암 바위로 부처님 형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위 속에 깃든 부처님 형상을 쪼아 낸 것으로 여겼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나니 바위 속 부처님이 불현전으로 나투셨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바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대승사 사방불), 부처님 바위가 땅에서 나오고(굴불사 사방불), 바위에 흔적을 남기고 부처님이 사라지신(경주 남산 불무사) 행적을 곳곳에 설화로 남겼다.

경주시내에서 북동쪽으로 포항 가는 7번국도 오른쪽에 소금강산이 있다. 경주의 북쪽 주산으로 꼽히는 산이다. 177m의 나지막한 산이다. 법흥왕 때 불교 공인 과정에서 박이차돈의 목을 베자 흰 피가 솟구쳤고 목은 날아가 북쪽 산에 떨어졌다고 전하는데, 목이 떨어진 그 산이 소금강산이다. 백률사(자추사)가 있는 순교(殉敎)의 공간이다. 백률사 오르는 계곡에 굴불사 사면석불이 있다.

바위 네 면에 8구의 불보살 조영

굴불사 사면석불 바위는 긴 폭이 4m, 높이 약 3.5m의 크기로 네 방위의 사면(四面)을 갖춘 입방체다. 하지만 탑신의 직육면체 같은 정형을 갖춘 것이 아니라, 네 면을 가진 부정형 자연 바위다. 네 면에 8구의 불보살이 대단히 밀도 높은 공간구성으로 배치해 있다. 특이하게도 조형은 자유분방하고, 또 각 면의 조형기법이 저마다 다르다. 석조조형, 혹은 마애불에서 나타나는 모든 조형기법이 망라되어 있다. 전방위의 조각기법인 환조, 곧 원각불(圓刻佛)을 비롯해서 높은 돋을새김(고부조), 낮은 돋을새김(저부조) 등의 양각기법과 회화적 선각(線刻)의 음각기법까지 두루 동원하고 있다. 조형기법 뿐만이 아니라 조형양식과 조형에 흐르는 미의식에서도 시차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투박하고 고졸한 토착화한 신라양식부터 인도 굽타양식을 수용한 성당(盛唐)양식까지 색다르다. 바위 하나에 토착의 전통과 새로운 국제문화의 미술양식이 혼재해서 독특한 진경을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불보살의 조형은 32상 80종호에서 보듯 조형규범이 엄격한 편이다. 그런데 굴불사 사면석불에서는 사면에서 조금씩 다른 조형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조형에 시차를 둔 시대적 편차인지, 동시대 조형 주체의 기술력 차이, 혹은 협업에 의한 의도된 연출인지는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든 어쩌든 한 자리에서 양식적 편년에 따른 박물관 진열장의 동선처럼 다양한 조형양식의 석조조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안복이 아닐 수 없다. 어찌보면 굴불사터 사면석불은 경주 남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경주 남산의 보편적 마애불 양식의 원형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굴불사 바위를 '사면각사방불(四面刻 四方佛)'로 묘사하고 있는데, 보편적 의미의 사방불과는 다른 양식을 띄고 있다. 일반적으로 탑신석 등에 나타나는 사방불 형식은 직육면체의 입방체의 면에 주존불 한 분씩 모신다. 남쪽에 석가모니불, 북쪽에 미륵불, 동쪽에 약사여래불, 서쪽에 아미타불을 배대하는 것이다. 이같은 규범은 우리나라 최초의 석조 사방불로 알려지는 6세기 초 백제계 석불인 예산 화전리 사방불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물론 굴불사 사면석불도 그런 법식과 규범을 따르고 있다. 단지 서쪽과 남쪽 방위에서 삼존불, 또는 이존불 형식의 협시불을 모시면서 사방불이라 하기엔 애매모호한 모양이 된 것이다.



사면석불의 서쪽에 경영한 아미타삼존불. 아미타불의 얼굴은 따로 제작해서 바위면의 몸체와 결합했다. 좌우협시불 역시 따로 제작한 원각불이다.



동쪽 면의 약사여래불. 상반신은 고부조이고, 하반신은 저부조로 새겼다.

마애불은 바위신앙과 불교 습합의 산물

환조, 고부조, 저부조, 선각 등 조각 다양

상체는 고부조, 하반신은 저부조로 새겨

남면 두 불상은 감산사 두 불상과 천연성



남쪽면의 이존불. 원래는 삼존불로 전해진다. 감산사 불상과 천연성이 깊다.

몸체는 바위에, 얼굴은 따로 조각해 결합

굴불사 사면석불 조형의 중심은 배례단이 마련되어 있는 서쪽 면이다.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아미타불은 사면석불의 조형 중에서 가장 크다. 아미타 본존상은 바위에 고부조로 새겼지만, 두 협시보살은 별석(別石)으로 환조한 원각불이다. 이러한 형식은 선도산 마애삼존불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협시보살을 따로 별석으로 만든 것은 재료바위의 화폭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협시보살은 목과 허리를 지그재그로 살짝 튼 삼곡(三曲) 자세를 취하고 있다. 조형에 부드러움과 세련미가 엿보인다. 그 같은 조형기법은 동시대의 서역, 인도, 중국에 걸친 활발한 문화교류와 국제적 조형양식을 보여준다. 좌협시불은 삼산보관(三山寶冠)을 쓰고 있다. 보관 중앙에는 아미타여래 화불을 모시고 있어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다. 우협시보살은 상체와 얼굴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오른손에 정병을 들고 계신다. 조형에 따라 불보살의 삼매야형으로 들고 계시는 지물에 차이를 보이곤 한다.

서쪽 면의 조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별석을 통한 조형의 결구방식이다. 아미타 본존불의 조형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몸체는 원바위에 높은 돋을새김으로 조형한 뒤, 그 몸에 다시 얕은 저부조로 옷주름을 베풀었다. 그런 몸체 조형에다 얼굴을 다른 돌로 조형해서 촉과 철심을 시설해서 몸체와 연결하고 있다. 몸체는 커다란 바위에 조영하고, 얼굴은 별석으로 조각해서 철심이나 촉으로 결구하는 특유의 방식인데, 굴불사 사면석불이 그 시원으로 여긴다. 이같은 기법은 산속 대형석불 조성에 계승되어 나타났다. 경주 남산 약수계 약사마애대불, 안동 제비원 석불, 파주 용미리 마애석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동쪽 면은 약사여래불 한 분을 모셨다. 결가부좌한 채로 눈을 내려 감고 있어 깊은 선정에 든 모습이다. 왼손엔 둥근 보주를 들고 계신다. 조형에서 위엄과 근엄함이 우러나와 옷 매무새를 돌아보게 한다. 바위의 경사면은 바깥으로 기울여져 있다. 그런 바위면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지 한 조형에 양각의 깊이에 상당한 차별을 뒀다. 얼굴과 상체 부위는 환조에 가까운 고부조로 새기고, 하반신으로 내려올 수록 저부조로 표현했다. 볼륨감이나 괴체의 양감은 아래로 내려올 수록 급격히 약해지는 경향이다. 경주 남산 삼릉계 마애여래좌상을 비롯한 한국 마애불의 대다수가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스듬한 바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거나 중심 대상에 대한 집중과 부각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법을 통해서 불보살이 마치 바위 속에서 세상 바깥으로 몸을 일으켜 나오는 시각적 효과도 거두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쪽면에 11면6비 관음상 선각

백제계 마애불은 서산마애삼존불상, 태안 삼존불상에서 보듯 고부조의 입체성이 강한 데 비해,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계 마애불은 울산, 포항, 고령 등에서 발견되는 암각화의 전통이 강해 선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뿌리 깊은 암각화 전통 속에서 신라계 조형미술은 바위예술에서도 회화적 선각의 토착적 특성이 곧잘 드러난다. 굴불사 사면석불의 북쪽면은 그런 전통의 맥락을 읽을 수 있다. 북쪽면은 고부조의 양각과 선각의 음각이 동시적으로 공존하는 이색적인 면구성을 하고 있다. 고부조는 미륵불이고, 선각으로 음각한 조형은 국내 유일 사례의 석조물로 알려진 11면6비 관음보살이다. 11면의 얼굴과 여섯 팔을 가진 희귀한 변화신의 관음이시다. 관음보살의 대자대비의 상징적 표현일 것인데, 그 배대에 있어서 석가모니 본존불 뒤에 십일면관음보살을 배치한 석굴암의 조형원리와 닮아서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미륵불께서 착의한 천의는 쉬폰처럼 바람에 하늘거리며 율동적인 우아한 선율로 흘러내려 눈길을 머물게 한다.

남쪽면의 조형은 통일신라시기의 우아하고 세련된 예술적 미감이 돋보인다. 휴먼 스케일로 구현한 사실주의적 경향이다. 원래는 석가여래 삼존불로 전해지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존불로 남아있다. 남쪽면에서 받는 인상은 무엇보다 감산사(甘山寺) 아미타여래와 미륵불과의 천연성이다. 풍부한 양감과 인체 굴곡의 육감적 묘사. 유려하고 세련된 여성미의 구현 등에서 서로 일맥상통하다.

조형 속에 인도 굽타양식과 국제적인 성당문화를 직접 수용하고 재해석한 통일제국으로서의 면모가 보인다. 사면석불 조형 속의 빛은 신라 천 년의 문화가 절정으로 꽃 피우는 바야흐로 오월의 봄날이다. 땅 속 바위에서 나투신 불보살, 신라 천 년의 불국토에 광명을 놓으시었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1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2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근대화 미명 아래 뒤틀린 불교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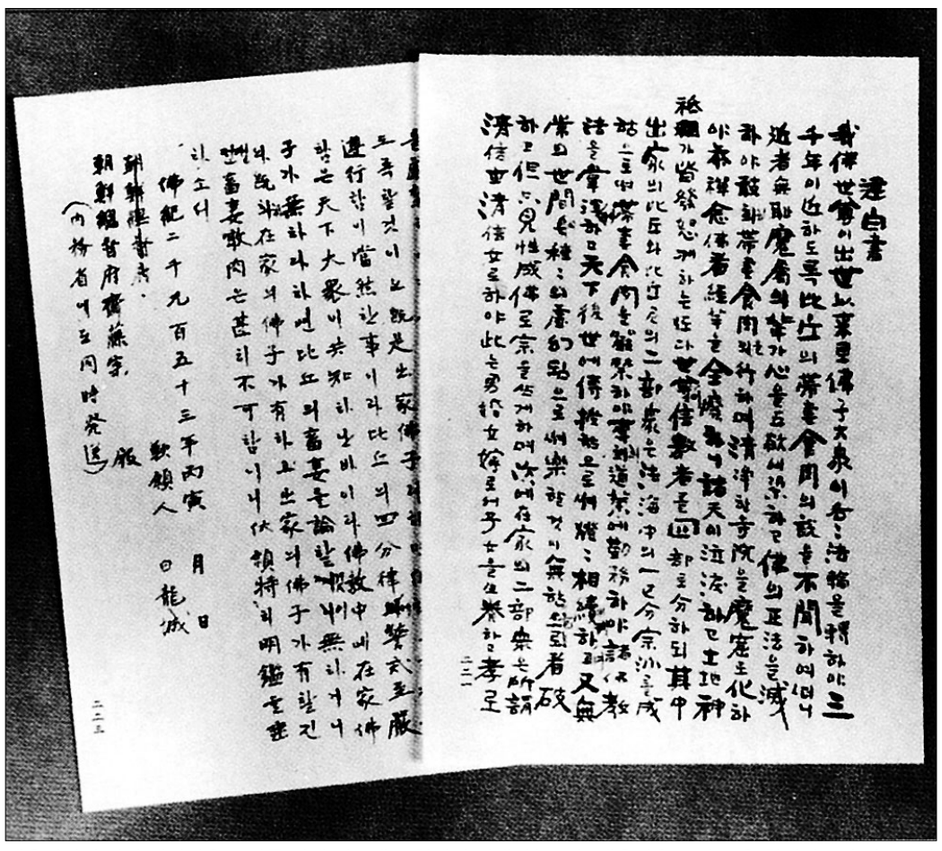
33. 불교 세속화 : 대처식육

19세기 말 이후 일본불교의 각 종파가 조선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벌이면서 한국불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불교 근대화와 교세 확장을 명분으로 내세운 승려의 결혼과 육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문명개화론, 사회진화론의 유입과 함께 승려의 결혼과 교단의 확대를 인구 증식, 생산력 제고와 연결시킨 근대화 지상주의가 풍미하였고 대처 허용론의 주요한 논거가 되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체제 강화와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위해 신도 국교화를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불교에 대한 폐불훼석 조치를 단행하고 1872년 승려의 '육식과 대처'를 각자 임의에 맡긴다는 허가령을 내려서 불교의 전통적 성역을 해체하였다. 이는 부국강병과 식산흥업을 통한 근대화와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승려는 출세간의 성직자가 아닌 속성을 가진 국민의 하나가 되었고 사회적 직업으로서 승려직이 탄생하게 되었다. 일본은 정토진종처럼 재가불교의 전통을 가진 종파도 있었고 또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여서 불교중흥을 위한 계율 부흥 운동 외에는 극심한 저항이나 반발이 없었다.

이후 일본 국가주의 불교의 주창자인 일련종의 다나카 치카쿠는 부부를 기초단위로 하여 불교의 개혁방향을 모색한 〈불교부부론〉(1887)을 저술하였다. 그는 부부는 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자 사회조직과 활동의 기초이며 불교도 그에 근저를 두고 있으므로 이제는 장례불교가 아닌 혼례불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나카는 불교의 확산을 위해서는 남녀와 부부에서 출발해야 하며 원래 불교 교리에서도 남녀가 동등하며 남녀라는 이원적 원리를 매개로 해서 근원인 일심에서 만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근대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의식하면서 부부를 매개로 한 불교의 생활화, 사회화, 세속화를 추구한 것이다. 그는 또한 승려의 육식대처를 찬동하는 내용의 〈불교승려육처론〉(1891)을 발표하여, 육식대처가 반드시 계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려 하였고 승려가 재가보살로서 지역과 밀착하여 호법과 호국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일본불교의 근대적 변혁 과정에서 강한 인상을 받은 만해 한용운은 1910년 4월 승려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당국에 올려 대처가 불교의 교세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자본주의 근대화를 위해 인구의 증대와 식산흥업을 장려하고 근대의 종교경쟁에서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승려의 대처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불교에서 결혼을 금지한 것은 근기가 낮은 승려를 위한 방편일 뿐이며 시대에 맞게 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승려도 사회적 인간이며, 인권의 차원에서 결혼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한용운은 식민지가 된 직후인 9월에도 총독부에 건백서를 올려 불교발전과 포교를 위해 승려의 결혼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백용성이 승려의 대처식육 금지를 일제 당국에 요청했던 건백서(1926). 백용성은 그와 뜻을 함께하는 승려 126명의 동의를 얻어 승려의 대처가 불교 모순의 근원임을 지적하고, 불교 발전을 위한 대안을 촉구했다.
사진=〈한국불교100년〉

일본불교 받아들인 우리나라
암암리에 대처식육 승려 늘어
전통불교 근간 뒤흔들었지만
용인하는 풍조 크게 확대돼

1911년에 시행된 사찰령과 1912년에 반포된 본말사법에는 대처와 식육에 대해 제한적인 규정을 두었다. 즉 본말사법 제60조에서 비구계의 요건에 대해 "득도 후 나이 20세 이상이 된 자는 비구계를 수지할 수 있다. 다만 대처식육하는 승려는 비구계 수지를 불허하며 비구계를 구족하지 않으면 보살계를 수지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취처와 육식 등 세속화 경향 자체를 법적으로 금한 것은 아니지만 대처승에게 비구계를 허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찰령에서는 본말사 주지가 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비구계 수지를 전제조건으로 하였기에, 결국 대처승이 주지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셈이었다. 또 징계에 대해 규정한 본말사법 제87조에서는 "사찰 안에 처자를 머물게 하거나 여인을 재우는 경우 근신의 징계에 처한다"고 하여 사찰에 처자식을 두는 것을 처벌하였다. 그럼에도 승려의 대처는 암암리에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고 대체로 묵인되는 상황이었다.

전통 계율에 위반되는 승려의 결혼과 세속화는 첨예한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였지만, 1910년대에는 대처식육이나 계율 관련 문제가 크게 주목되지는 않았다. 동서양의 여러 종교와 불교를 비교한 〈백교회통〉(1912)을 쓴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1918)에서 세계의 종교를 '다처, 일처, 무처'의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그는 다처교로는 유교와 이슬람교, 일처교는 기독교, 불교와 천주교는 무처교와 일처교를 겸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불교는 출세간의 출가자와 세간의 재가신도가 함께 모여 있기에 양자가 공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승려도 재가자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세태의 변화가 일고 있었다. 30본사의 하나인 화성 용주사의 주지 강대련은 1919년 한국의 승려도 일본처럼 결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조선불교기관 확장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법의 개정을 청원하기도 했다. 19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해로서 총독부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지식인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회유와 포섭을 시도하였다. 반면 민족의식에 눈을 뜨고 정치적으로 각성하게 된 불교계 혁신세력은 교단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기득권층인 본사 주지들과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대처식육 문제 또한 1920년대 중반에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불교는 세속화의 격류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 한국불교는 일본불교가 걸었던 '근대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정치적 통제 속에서 세속화의 길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대표 사례가 바로 전통불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승려의 대처식육 문제였다.

1925년 유학생 출신 대처승이 본사 주지에 취임하기 위해 본사의 사법개정을 추진하였지만 무산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해 1월부터 한 달 동안 총독부의 종교과장과 사무촉탁이 승려 대처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일본 현지의 사찰을 시찰하였다. 그 결과 승려 대처를 허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사찰 재산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어 3월에는 대처승에게 본말사 주지 자격을 허용하는 사법 개정요구가 본사 주지를 중심으로 한 교무원 평의원회에서 결의되었다. 그 직후 총독부는 현실적으로 많은 승려들이 결혼한 상태이며 그로 인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사법 개정작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용성은 1926년 5월에 승려 127명의 연명을 받아 대처식육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요지는 승려의 지계 수행은 당연하며 대처식육은 교설에 없는 불가의 대적인데도 일부 무리가 이를 감행하여 사원을 마귀소굴로 만들고 참선, 염불, 간경을 전폐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동아일보〉 등 신문 사설에서는 승려의 대처식육에 대해 근대성의 관점에서 찬동하면서, "불교가 인간의 본성과 종교의 목적에 부합해야 함에도 재래의 부당한 관습을 부활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불교는 사회사업, 교육사업을 통해 민중에 이익을 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인간의 생존과 본능, 현대종교의 특성과 관련된 대처식육의 문제를 구태의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하였다.

백용성은 1926년 9월에 재차 '범계생활 금지'에 관한 건백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다. 그는 출가불교의 전통을 수호해야 하는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였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승려의 대처 자체를 엄금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대처승의 비구계를 취소하고 재가대중의 신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수행승과 연로한 승려들이 사원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계승려, 청정승려들에게 몇 개 본산을 할당하여 청정사원을 유지하고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청원하였다. 이는 현실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대처승려와 청정비구의 구분만큼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총독부는 결국 1926년 10월에 본말사법의 취처 금지 조항을 삭제, 개정하여 승려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당시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논설에서는 사찰 주지의 선거자격 개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인생의 본능을 구속했던 승려의 대처 및 육식 금지가 철폐되었고 이는 시대적 요구에 순응한 종교계의 일대혁명이며 불교계의 비밀스러운 악폐를 일소한 것이라고 자평하였다. 이후 일부 본산에서 대처승도 본사주지에 취임할 수 있도록 사법 제·개정을 신청하였고 1929년에는 80%에 이르는 대다수 본산에서 대처승이 주지가 될 수 있게 사법 내용을 변경하였다. 본말사법의 취처 금지조항이 삭제된 1926년 무렵 비구승 중에 약 반 수 정도가 대처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식화 이후에는 그 수가 더욱 늘어났다. 당시 권력 주도층인 본사주지 상당수가 대처를 한 상황이었고, 일본유학승 출신이 주축이 된 불교계 혁신세력 또한 결혼을 선진적, 근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많은 이들이 실행하였다. 즉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불교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승려의 결혼이 용인되어야 한다는 풍조가 교계에 확산되고 있었다.

반면 대처 유행의 풍조를 '대처독'이라 지칭하면서 대처의 일반화로 비승비속의 기형적 생활, 주지직을 둘러싼 권력 갈등, 사원경제의 파멸, 신도수의 감소와 민중신앙의 소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즉 그로인해 교단이 근저부터 뒤흔들리고 있고 불교에 큰 해악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찍부터 전통선종과 계율의 회복을 주창한 백용성도 선농불교, 역경불교의 독자적 행보를 걸었다. 그는 1925년 활구참선만일결사회를 조직하면서 계율을 강조하고 음주, 식육하는 이의 입회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어 대처식육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당시 언론이나 불교계 주류의 인식을 보면, 대처식육은 승려 개인의 문제이고 불교의 쇠퇴와는 무관한 일이며 보편종교로서의 사회화, 대중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찬성의견이 다수였다. 승려도 인간이므로 인간의 본능을 살리고 인간을 위한 종교를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대처식육 찬성론은 불교의 근대화, 사회화, 대중화를 위해 전통불교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근본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전통불교는 간경, 참선, 염불만 해왔고 중생을 위한 이타행이 부족하며 사회와 동떨어져 있으므로 계율을 철저히 준수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현실에 맞게 계율을 적용하고 현대인의 신앙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승려만의 불교가 아닌 대중불교를 지향했던 한용운의 불교 유신론도 대처식육 문제에서만큼은 찬성 쪽이었다. 그는 염세주의와 독선주의를 불교계의 폐단으로 본 바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구세주의를 불교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본 것이다.

식민지기 불교 세속화의 상징인 대처식육은 계율과 전통의 수호 및 계승, 시대조류에 따른 혁신적 변화라는 입장의 차이로 갈라졌고, 출세간의 종교와 세속종교 어느 쪽의 길로 불교가 가야 할지를 둘러싼 문제였다.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는 전통의 묵수보다 근대적 변신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다. 이처럼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는 시대적인 요청이자 과제였지만 불교가 정치적으로 종속된 식민지 체제에서 전통은 부정되었고 결국 상식적 차원의 호교마저 달성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대처식육이라고 하는 세속화로의 귀결은 이후 청산되어야 할 식민지 유산으로 크나큰 부채를 남기고 말았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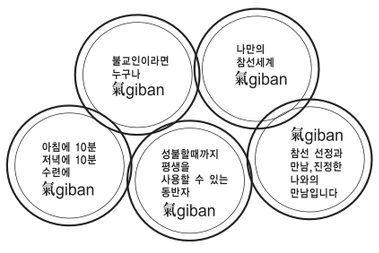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니까야서 길을 묻다 11. 팔정도(八正道) ①

‘바르고 온전한’ 그리고 ‘적절한’

“지혜가 없는 자에게 선정(禪定)은 없고, 선정이 없는 자에게 지혜는 없다. 선정과 지혜를 갖춘 그는 참으로 열반에 가까우리라.”

이 경문은 〈법구경(法句經)〉의 게송 제372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그야말로 불교의 수행 길에서 명상과 지혜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 둘은 서로 협력관계 또는 보완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디가 니까야〉 제16 〈대반열반경〉에서도 ‘계(戒)’와 더불어 온전하게 닦아진 ‘명상’이 큰 결실을 이루고 커다란 유익함을 가져오며, 명상과 함께 온전하게 계발된 지혜 역시 마찬가지로 유익한 결과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계율과 명상과 지혜는 불교의 수행 길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계 · 정 · 혜’라는 이 세 가지 공부가 서로 맞물리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수행의 길로 제시한 모범은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길’(八正道)에서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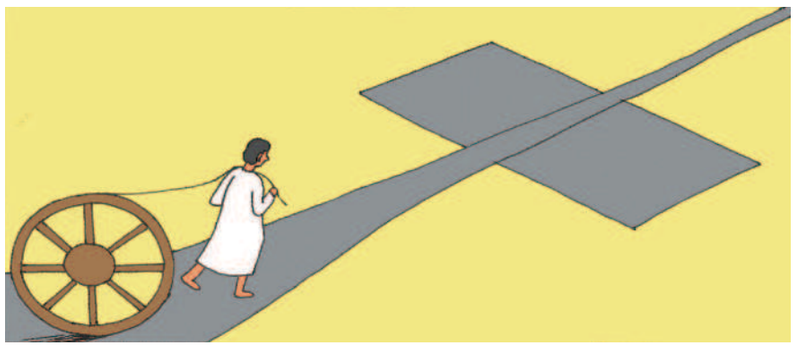


그림 · 양경수

팔정도의 체계 안에 내장되어 있는 수행 길의 면모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자어 ‘정(正)’자의 의미를 먼저 바로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정(正)’에 ‘올바르다’는 뜻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여덟 가지 항목에서 모두 ‘바른, 올바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된다.

‘정견’의 팔리어는 ‘삼마(sammā) 디티(diṭṭhi)’로, 여기서 ‘삼마’가 바로 ‘정’에 대응하는 말이다. 그런데 ‘삼마’에는 한자와 마찬가지로 ‘올바르다’의 뜻이 있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뜻이 있다. 바로 ‘완전함’이다. 그러므로 이를 반영하여 ‘삼마’의 의미를 옮기면 ‘바르고 온전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므로 정견은 ‘바르고 온전한 견해’가 된다.

‘온전하다’는 의미를 더하면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의 어느 것도 한 번의 수행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이다.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가 왜 중요하며, 그것을 지향하는 길을 성스럽다고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을 충실하게 찾는 것이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의 의미와 그 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하나의 길이리라.

여기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창으로 건널목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보행자로서 건널목을 지나려는 사람도 있다고 하자. 이때 건널목의 녹색 신호등이 점멸을 시작하는 순간이 되면, 대강 무시하고 앞으로 내달리려는 차와 서둘러 건너가려는 보행자의 의지가 서로 맞물리고 있는 지점이 생겨날 것이다. ‘건널목 녹색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는 순간’은 그저 하나의 사실이지만,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다음 행위를 결정하는 순간에는 늘 자신의 ‘감정, 의도, 가치, 관점, 견해, 앎’이 개입되어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재빨리 도로를 내달리려는 승용차의 질주본능과 서둘러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보행자의 의지 중에서 누가 옳은 것일까?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봉사하는 삶 평생의 課業”…

그대는 자비보살

현성 스님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1938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현성(玄惺)스님은 서울 선학원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5년 부산 선암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및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5년 부산 선암사에서 수선안거에 들었다. 도선사 실달승가학원과 국민대를 졸업 후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과정, 동 대학 불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총무부장, 교무부장, 중앙종회의원(4, 5, 6, 8대), 도선사 주지, 청담학원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장, 동국대 이사, 중앙승가대 총장,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등 종단 내외의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서울 홍은동 현성정사에 주석하며 현재도 안양교도소 불교 종교위원회 회장,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로 재소자교화와 청소년포교 활동을 현장에서 이끌고 있다. 스님은 종정 표창을 4차례 받은 것을 비롯해 복지부문 목련장, 교정교화부문 동백장, 통일안보부문 모란장 등 국민훈장을 받았다.

서울 홍은동에는 ‘백미(白米)선사’로 불리는 한 스님이 있다.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78)이다. ‘백미선사’는 청소년, 군, 재소자포교와 노인복지에 오랜 공을 기울여 온 현성 스님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을 많이 보시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이제는 하얀 눈썹의 백미(白眉)선사로도 불리는 현성 스님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26일 홍은동 현성정사에서 만났다.

현성 스님은 1964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1980년대부터 독거노인 · 청소년 · 재소자 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람들은 스님들이 포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현성 스님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년간 포교활동에 매진하기란 쉽지 않다. 스님은 포교 각 분야에서 30년 넘게 정성을 들여왔다.

“조금이라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전보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러한 풍족함도 궁핍함으로 바뀝니다. 다들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수에 맞는 삶을 살며 남을 위하는 작은 선행, 보시행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 보시행이 일상생활로 젖어드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사실 스님이 주석하는 현성정사는 크지 않은 절이다. 수십년간 포교를 진행한 데에는 스님의 남다른 원력이 있었다.

스님은 포교와 봉사의 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게 된다고 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기에, 결국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어르신들을 도우려고 가보면 정말 허름한 집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듯한 밥 한그릇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 추위만 피할 수 있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아요. 어디 수행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들을 보살피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수행이지요.”

은사 청담 스님의 큰 가르침 ‘인욕’

스님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큰 획을 그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1964년 출가했다. 비구 · 대처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당시, 스님은 은사 스님으로부터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인욕보살’로 유명한 청담 스님은 어느날 현성 스님에게 물었다고 한다. 당시 현성 스님은 도봉산 자락의 도선사까지 청담 스님을 업고 다니곤 했다.

“몸이 좋지 않았던 큰스님이 하루는 산 중턱에 쉬자고 하시며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불교정화하면서 앙금이 많은데 태고종 쪽에서 내게 폭력을 가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고?’라고 말이요. 내가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고 답하니 스님은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합장을 하고 서서 염불을 하라’는 겁니다.”

1964년 청담 스님 은사로 출가
‘큰중은 지고 살아야’ 가르침 수지
부산 선암사서 수좌로 수행 정진

현성 스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은사 스님은 평소 큰 중이 되려면 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며 “시간이 지나며 스님이 말씀하신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젊어서 기골이 장대했던 스님은 도선사서 땔감을 만들고 공양간 일도 하는 등 궂은일을 도맡아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배곯아가며 힘든 울력을 나서서 했다. 스님은 은사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인내했다. 그러던 와중 한 도반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겼다. 은사 스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스님은 단호했다.

도선사에서 나온 현성 스님은 부산 선암사로 향했다. 당시 선암사에는 석암 스님이 주석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존칭을 썼던 석암 스님은 삼배를 올리며 이곳에 머물겠노라는 현성 스님의 청을 듣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청담 스님 제자면 거기서 살아야지 여기는 안됩니다.”

현성 스님은 “스님, 한철만 지내보시고 싹이 없다 싶으면 가라고 하십시오. 그럼 가차없이 떠나겠다”고 말했다.

석암 스님은 이런 현성 스님에게 몇 가지 청규를 제시했다. 첫째는 농사를 짓는 사찰이니 농사일을 도울 것, 둘째는 참선을 하더라도 가끔 제사가 있으니 금강경을 읽어줄 것, 셋째는 제사음식을 귀신이 먹다 남은 것이라 해서 가리지 말 것, 넷째는 아침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괘불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龍, 그 생명력과 진실성….

■ 용왕단(소원 성취단) 기획 불사 지원.
■ 구룡의 소원으로 사찰의 새로운 수익 창출
(소원지, 소원등, 소원의 나무, 소원종, 소원의 풍경 등 수십가지 아이템기획, 보유)
■ 기획부터 수익까지 책임 불사를 해드립니다.
■ 25년, 불교조각연구원의 야심찬 기획.

■ 제 목 : 구룡의 기원
■ 크 기 : 49.586㎡(15평)
■ 작품소장사찰 : 강화(석모도) 보문사

■ 기획불사상담문의 : 불교조각연구원
031-429-1077 / 010-9468-1088



노인·소년가장·재소자 '대부'



2015년 9월 추석을 맞아 현성 스님이 서대문구 저소득 가정에 쌀 100포대를 전달하는 모습. 스님은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전달해 '백미' 선사라 불린다.



현성 스님이 2015년 10월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 수계법회에서 훈련병에게 단주를 전달하고 있다.



2016년 6월 제5군단 호국 금강사 위령재. 스님이 군법당 불사 후 위령재까지 후원하고 있다.

1980년 도선사 주지 맡아 사격 일신
군법당 14곳·혜명양로원 건립도
교정교화 현재도 발벗고 나서
"타인 배려할 때 함께 행복해"



스님이 총재로 있는 청소년교화 연합회의 2013년 5월 열린 전통예술제 모습.

울력에 빠짐없이 참여할 것이었다.

현성 스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먹겠다' 고 다짐하고 선방에서 참선과 계율 등을 배울 수 있었다. 겨울철 선암사에서는 17명의 수좌들이 용맹정진에 들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참선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스님은 일주일 만에 몸이 축이 났다. 용맹정진의 의지로 이겨낸 현성 스님은 당시 결제를 마친 7명 중 한명이 됐다. 그날 이후 현성 스님은 12년을 선암사서 살았다.

이 기간 스님은 온갖 어려움에도 수행의 끈을 놓치 않고, 어디든 법문하러 다니는 석암 스님도 잘모셨다. 이런 용맹정진하는 모습 때문이었을까. 1200일 기도 중 석암 스님이 보살계를 설하는 법석을 항상 수행했고 후에 인환 스님, 고산 스님 등과 함께 '법제자' 가 됐다.

포교 일선의 크고 작은 불사 도맡아

세월이 흘러 1970년 청담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할 때 현성 스님은 은사 스님을 찾아갔다. 수행납자로 거듭난 스님의 모습에 은사 스님은 반갑게 맞이했다. 이후 현성 스님은 1980년 12월 도선사 주지를 맡게 된다. 본격적으로 청담 스님과 석암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스님은 12년간 도량을 정비하고 가람을 중창했다. 대웅전과 석불전, 명부전, 적묵당, 독성각, 요사, 종각, 일주문, 사적비, 청담 스님 탑전 108계단 조성불사 등 크고작은 불사가 스님의 손을 거쳐 이뤄졌다. 포교당으로 봉천동 혜명정사(顯 미타정사)와 홍은동 현성정사를 창건하기도 했다.

또 은사 스님이 큰 관심을 보였던 군포교에 진력해 14곳의 군법당 건립을 주도하고 수계사로 전방부대를 누볐다. 스님은 특히 1985년 불사한 5군단 호국금강사에서 위령재를 30여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5군단 위령재는 2000년대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호국영령천도법회 전 종단 차원의 위령재로 진행됐다. 이밖에 스님은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불사 등에도 큰 역할을 했다.

"아무래도 군포교에 적극적이셨던 청담 스님의 영향이 크지요. 하루는 스님을 모시고 전방부대에서 통일염원 기도를 올린 뒤 스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 고. 스님께서는 장병들이 마음을 놓일 수 있는 군법당을 많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내면을 가득채우는 부처님오신날 되길"

불교노인복지의 한축이 된 혜명양로원은 스님이 도선사 주지 시절 처음으로 진행한 불사이기도 했다. 1982년 4월 개원한 혜명양로원은 시주금만으로 지어졌다.

"출가해서 살지만 부모에겐 불효자니 어르신들에게나마 갚아야지요. 늙고 병든 것 만큼 인생에 고달픈게 없습니다. 힘들 때는 작은 배려 하나로 서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현성 스님은 청소년 포교에도 힘썼다. 석주 스님과 운문 스님에 이어 당시 어려운 살림에 처했던 청소년교화연합회를 맡았다. 앞서 건립한 양로원에서 아이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요즘처럼 캠핑하며 노는 포교보다는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범절을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려했지요. 혜명양로원에서 아이들이 어르신들 말벗도 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지요. 그것이 제대로된 포교 아닙니까."

스님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행복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재소자 교화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어느 사람들보다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스스럼없이 찾아가고 있다.

스님은 교화위원 제도가 생기기 전인 1978년부터 교도소에서 교화활동을 시작했다. "안양교도소에 매달 한 번씩 나가지요. 1981년부터 음력설날 80kg 쌀 13가마로 떡국공양,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수계식 때는 전 재소자에게 빵과 두유공양을 합니다."

스님은 5월 11일에도 안양교도소를 찾아 전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할 예정이다.

스님은 끝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교 발전을 외치기보다 한명의 불자로서 얼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는지 반추해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하는 삶을 통해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스님은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는 많은 경제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정신적으로는 가난하다"며 "서로 돕고 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이, 나눌 수 있는 이가 진정한 부자다. 여러분들도 어렵더라도 힘을 내시고 다독이며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오리라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찻잔의 차가 식는 줄도 모르고 현성 스님의 자비나눔에 대한 담소는 이어졌다. 스님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원력 때문일까. 스님의 흰 눈썹이 더욱 빛나 보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연꽃둥이들과의 다도시간

내가 있는 구미 연꽃어린이집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아이들과 차를 마신다. 이날도 우리 연꽃둥이들의 재기발랄한 수다는 끊일 줄 모르고 계속된다.

"원장 시님, 성불하십시오. 근데요. 원장 시님, 오늘 우리 무슨 차 마셔요? 구름맛 차 마셔요? 아니면 기차맛 차 마셔요? 알겠다. 개나리맛 차를 마시는구나~"

저런 맛이 나는 차가 있을까? 있다. 우리 연꽃어린이집에는. 차를 마시는 화요일은 다도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들과 숨소리를 고르고 숨소리를 나누며 교감하는 날이기도 하다.

앞마당 벚꽃이 가장 예쁘게 핀 4월 어느 날 우리 아이들과 앞마당에 차를 마실 때였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차를 마시기 전 두 다리를 '생각다리(반가부좌)' 로 만들고 두 눈을 꼭 감은 채로 앉아 명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우리 연꽃어린이집 파란연꽃반 친구들도 원장 스님처럼 명상다리 해볼까?"

"원장 시님, 아빠 다리하면 아빠 생각나지요? 엄마 다리 하면 엄마 생각나지요?"

연꽃둥이들의 이런 독특한 발상이 너무 재미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멋진 부처님처럼 생각다리를 하고 이제부터 '생각주머니 커져라' 를 할거야. 자~ 숨 한번 크게 쉬고~ 노란색 풍선과 함께 숨을 내쉬고~ 생각주머니가 커졌나요?"

아이들은 일제히 '네' 라고 대답한다. 아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본격으로 명상을 유도한다.

"자, 그럼 커진 생각 주머니 속으로 예쁜 물고기들이 들어갑니다. 몇 마리 들어가나 원장 스님이 세어볼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렇게 생각주머니를 키워가고 있는 순간, 두 눈을 꼭 감고 생각다리로 명상을 하던 연꽃둥이가 기상천외한 한 마디를 한다.

"원장 시님, 근데요 개미가 아까부터 명상 안하고 자꾸 움직여요."

"그래? 두 눈을 꼭 감았는데 개미 보여?"

"조금 보여요."

"그럼 네가 개미한테 명상하라고 해."

"개미! 명상해."

"응! 형아 말 좀 들어."

"원장 시님, 그래도 개미가 생각다리 안 해요."

어떻게 해야 개미다리를 생각다리로 만들어 명상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자 옆에 앉아 있는 친구까지 덩달아 또 한마디 거든다.

"원장 시님, 근데요. 이 개미는요 아직 차도 안 마셨는데요. 자꾸 다식만 먹어요. 그리고요, 개미는 입도 안 가리고 다식 먹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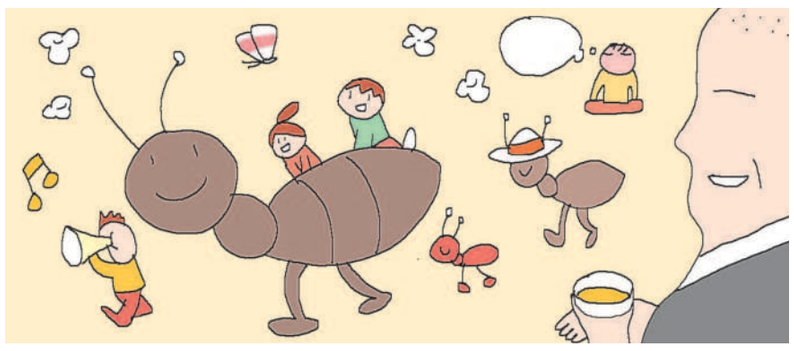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관념과 생각의 틀에 묶여 사는 우리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상상력들의 향연이다. 그나저나 어떻게 해야 개미가 입을 가리고 다식을 먹을 수 있을까. 아이들과 오늘은 개나리맛차를 마시고 큰 소리로 마무리 한다.

"차를 많이 마시면 얼굴이?"

"예뻐져요~"

"차를 많이 마시면 마음도?"

"예뻐져요~"

"오늘도 차를 많이 마셨으니 우리 연꽃 친구들 예쁜 얼굴, 예쁜 마음만 가져야 해요."

이렇게 연꽃 친구들과 차를 모두 마시고 벚꽃 나무 그늘에 앉아 이런 저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이내 한 아이가 와서 질문을 던진다.

우리 연꽃둥이들의 이 엉뚱한 생각 주머니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일이 새로운 발상의 연속이다.



기분 좋은 소리로 오늘 다도 시간도 마무리 한다.

경륜 스님(구미 연꽃어린이집 원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여래장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그릇된 사견에는 여래장(如來藏)에 대한 오해도 있다. "일체 세간의 생사로 얼룩지는 오염된 법이 모두 여래장을 의지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체 모든 법이 진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경전의 말을 듣고 바로 알지 못하여 여래장 자체에 세간의 생사 등 법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래장 자체에 세속적인 번뇌와 고통이 있다는 뜻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실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여래장은 본래부터 갠지스 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무수한 공덕을 가지고 있으며, 진여의 마음 그 자체이며, 그것과 관계가 없거나 끊겼거나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수한 번뇌와 고통이 야기되는 생사의 법은 다만 의식되어지는 존재로서 본래 진정한 의미에서의 존재가 아니다. 일찍이 여래장과 더불어 서로 일치되어 본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래장 자체에 번뇌나 고통이 본래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여래장 자체에 생사 등 법이 본래 있었다면 여래장을 증득했을 때도 생사 등 망법(妄法)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여래장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여래장에 의해 생사가 있으며, 여래장에 의한 까닭에 열반을 얻는다"는 말을 듣고 바르게 알지 못해 중생이 비롯함

여래장은 진여의 마음 자체
시작도 끝도 없음을 알아야

이 있다고 보아 여래가 열반을 이루었다가 다시 중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생긴다. 다시 말해 '중생이 시작이 있고 열반도 끝이 있다'는 그릇된 견해를 여래장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이 사견을 없애주는 것이다.

중생의 모든 세계가 마음에 의하여 전개된 것이므로 마음을 떠나서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능가경〉에서는 적멸(寂滅)이라 하였다. "적멸을 일심(一心)이라 하고 일심을 여래장이라 한다"는 경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생을 여래장이라 할 때는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중생 속에 부처가 내재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중생 모두가 여래의 씨앗이라는 말이다.

원효 스님은 〈금강삼매경론〉에서 〈부증불감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래장을 세 가지 뜻으로 설명하였다.

• 능섭여래장(能攝如來藏): 여래의 모든 공덕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불가사의한 지혜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

• 소섭여래장(所攝如來藏): 번뇌망상에 얽혀 온갖 망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속에 여래장이 그대로 있는 것.

• 은부여래장(隱覆如來藏): 법신여래가 번뇌에 뒤덮여 스스로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

이렇게 여래장의 뜻을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지만 기신론에서의 여래장은 진여를 말하는 것으로 생멸을 떠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멸 속에 그대로 내재된 것이기도 하다.

여래장을 설명하는 본문에서는 여래장이 전제(前際)가 없고 후제(後際)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여래장은 시간적인 위치 곧 과거나 미래의 어느 시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나간 과거의 어느 즈음도 없고 다가올 미래의 어느 즈음도 없다는 말이다. 초시간적인 것이라 과거 어느 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미래 어느 때 끝나는 것도 아니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불생불멸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불성 혹은 법성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인아견(人我見)을 가지면 진여에 수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어 법아견(法我見)에 대하여 설명한다. 법아견이란 기성 수도인이 빠지기 쉬운 고집을 말한다. 사물 그 자체의 존재를 믿는 고집 가운데 오음법(五陰法)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때문에 생사를 버리고 열반을 취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오음이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없애야할 대상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오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버리려는 하는 것이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아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승들이 곧잘 빠지는 그릇된 견해로, 인연에 따라 생긴 오음에는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래 열반이란 오음 자체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마구니는 자비심·보시로 인해 근심한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⑱ 왜 보시를 하는가

悲心為體能行大施滅眾生苦。如盛熱時興大雲雨。起大悲雲雨於施雹。 F破貧窮如壞山石。拯貧窮者無限齊施。令彼窮者永離貧苦。以大施雨普益一切。眾生貧窮永無住處。菩薩為救眾生修行施時。魔及眷屬皆生嫉妬愁憂苦惱。菩薩修行無量財施法施之時。 ㉠貪嫉妬悉皆驚號莫不愁怖。

(비심위체능행대시멸중생고。여성열시흥대운우。기대비운우어시박。최파빈궁여괴산석。증빈궁자무한제시。영피궁자영리빈고。이대시우보익일체° 중생빈궁영무주처。보살위구중생수행시시。마급권속개생질투수우고뇌。보살수행무량재시법시지시。간탐질투실개경호막불수포。)

번역

자비심을 근본바탕으로 삼아 능히 보시를 크게 행한다면, 중생의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할 때 큰 구름이 일어나 비를 내리는 것과 같이 큰 대비심의 구름이 일어나 우박을 뿌리고 비를 내리면, 가난과 빈궁함이 부서지되 산에서 돌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하고 빈궁한 이를 건지되 한량없이 골고루 베푼다면, 저 빈궁한 이로 하여금 빈궁의 고통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큰 보시의 구름은 일체를 두루 이익 되게 하며, 중생은 가난과 궁핍함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수행하고 보시할 때, 마구니의 권속들은 모두 질투를 일으켜 근심하고 고통으로 괴로워합니다. 인색함과 탐욕과 질투로 모두 다 놀라고 부르짖게 되나니,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해설

보살이 보살도를 배우고 수행하며, 보시를 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중생을 모든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다. 이를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 한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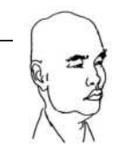
그러나 보살이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는 일은 어쩌면 스스로를 건지는 일이기도 하다. 바로 인색함과 탐욕에서 스스로를 건지는 일이다. 이는 일체 중생이 바로 자신이면서, 자신이 곧 일체 중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먼저 자신을 건지는 수행에서 그 깨달음이 가능하리라. 스스로 인색함과 탐욕에 빠져 있다면, 중생을 구제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생사의 고통에서 건지질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도 건지고 중생도 건지는 방법에 대해 제바라보살(提婆羅菩薩)은 말한다. 바로 큰 자비심을 근본바탕으로 삼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 자비심을 근본바탕으로 삼아 베푸는 마음은 바로, 만물이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타들어갈 때 먹구름이 일어나 비를 뿌리며 대지를 식혀주는 것과 같다. 가난과 빈궁한 중생의 삶을 산이 무너지듯 부서뜨린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중생은 영원히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게 된다.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는 중생은 과연 남일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이 중생은 곧 자기 자신일 것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서 일러주는 '자성중생서원도(自性衆生誓願度)'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자기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는 일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마구니는 울부짖는다. 마구니가 마구니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색함과 탐욕이 있기 때문인데, 스스로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니 어찌 울부짖지 않겠는가. 어찌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스스로 만들고 받들어 섬기던 인색함과 탐욕에서 돌이켜 마구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가 진정 보살(菩薩)이 아니겠는가.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생활의 지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한 말뚝에 두 번 넘어진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잘못 사귄 뒤의 후유증이다.

잠 못 이룬 자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자에게 길은 멀다.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린다.

이 모든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한 말뚝에 두 번 넘어진다면 그는 조심성이 결여된 어리석은 사람이다. 체험과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삶의 살아있는 지혜이다. 또한 커다란 교과서이자 더할 수 없이 훌륭한 스승이다.

누구에게나 버릇은 있다. 그 버릇이 길게 이어지면 습관이 되고 업(業)이 된다. 습관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업의 무게에 짓눌린 이용당하는 자, 생각과 행동에 휘둘리는 노예가 된다. 그러나 살피고 열어 느슨함을 줄여나가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찾아든다. 한 말뚝에 두 번 넘어지지 않는 삶의 지혜로 후회의 그림자를 줄이게 된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구호는 차량 정비소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에게도 말과 행동을 살피며 털어내고 덜어내며 다지고 게으름 없이 끊임없이 정진해야 이용자가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생활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는 '친구는 세 곱 위를 사귀고,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어도 두 눈은 북두성에 머물게 하라'는 말씀이 담겨있다. 백범 김구선생의 어록에는 '손으로 태산을 움켜쥐어 손바닥에서 호랑이가 울게 하고 입으로 바다를 들여 마셔 고래가 뱃속에서 놀게 하라'는 말씀이 담겨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선 먹는 곶감 쪽을 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배가 고파도 물고기가 미끼를 탐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도서관에서 원서로 된 책만을 골라 사는 깔끔한 외모에 청순함까지 갖춘 어느 남자에 마음을 뺏긴 어느 여자가 결혼하고 보니 산덩이처럼 무식한 깡패출신 건달이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전설이 아니다. 딸아이를 낳고 모진 노력 끝에 이혼하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생활하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능력 있는 신사를 만나 재혼하고 보니 교도소 출입 경력이 화려한 깡패출신에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사람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도 사람이지만 절망과 배신, 분노와 공포의 대상도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그렇다고 외로움을 나누는 상대나 대화 상대를 잘못 선택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미운 자 한사람 정도는 어느 곳에나 있다. 내가 바뀌면 미움의 대상도 사라진다. 사냥꾼과 사냥감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생각과 행동의 변화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용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살 버릇은 세 살 때 고쳐 나가도록 해야 한다.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친구를 사귀되 서너 곱 앞서가는 친구는 또 하나의 교과서이자 스승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인과설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잠자는 토끼는 움직이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밤이 길게 느껴지는 것은 잠 못 이루는 자의 느낌일 뿐이다. 길이 길고 멀게 느껴지는 것도 피곤한 자의 넋두리일 뿐이다.

고정관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
생각 변화하고 행동하면 운명 바뀐다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게으른 자는 운명론으로 기울고 부지런하게 땀 흘리며 노력하는 자는 타작해 거둬들이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불교요, 사람이 부처임을 웅변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불교신앙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먼저 바뀌고 행동이 따라주면 운명도 저절로 밝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마음의 닫힌 문도 활짝 열고 보면, 빛으로 충만한 세상이 열려오는 것이다.

'두드리지 마라. 문은 항상 열린 채로 있느니라. 두드리는 마음이 곧 또 하나의 문을 만든다. 구하지 말라.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할 것이요 구함이 많을수록 마음은 번민에 찬다.' 부처님이 가르침이다.





혜희·금문의 맥 계승한 18세기 佛母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⑧ 여찬(呂贊) 스님

18세기 전반에 중부지방인 경기(京畿)와 영서(嶺西)에서 활동한 여찬(呂燦, 呂贊, 麗贊) 스님은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혜희(惠熙) 스님과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금문(金文)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彫刻僧)이다. 여찬 스님은 스승 금문 스님과 마찬가지로 주로 나무로 불상 등을 제작하면서 중수·개금하였다. 현재 여찬 스님이 수화승(首畵僧, 화승의 우두머리)이 되어 만든 목조불상은 전국에 걸쳐 3건 10여 점이 조사되었다.

아직까지 여찬 스님의 생애와 조각승이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불화 화기(畵記) 등을 통하여 스님의 활동 시기와 지역, 조각승 계보, 불상 양식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여찬 스님은 금문 스님을 도와 1706년 2월 2일부터 5월 27일 이전까지 경기 안성 칠장사 지장전에 봉안한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을 제작할 때 12명 가운데 8번째 언급되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스님은 1708년 3월에 경북 포항 보경사 괘불도 중수 때 사찰 내 거주한 것으로 적혀 있다.

그리고 5월에 불화승(佛畵僧) 인문 스님이 충남 청양 장곡사 아미타후불도(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를 조성 할 때, 조상화원(造像ø№員)으로 언급되어 별도의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여찬 스님은 수화승으로 1711년에 충북 영동 영국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현재 목조보살좌상 1구만 봉안)을 제작한 후, 1713년 2월에 충북 괴산 봉학산 소마사 목조여래좌상(아산 오봉사 소장)을 중수·개금하면서 니금(泥金)을 시주하였다. 또한 스님은 1722년에 개인이 소장한 목패를 만든 것으로 보아 나무를 직접 조각한 소목장(小木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726년 4월에 수화승으로 강원 삼척 태백산 지장암 목조지장보살좌상(삼척 삼화사에 봉안되었다가 없어짐)을 제작하고, 1729년에 강원 고성 유점사 대종을 고쳐 만들 때(改鑄) 화원(ø№員)으로 참여하였으며, 1741년 7월에 경북 성주 선석사 명부전 불상(오도전륜대왕상만 남아 있음)을 조성하고, 경남 창녕 관룡사 시왕도 중 오도전륜대왕도 조성에 송주(誦呪)로 참여하였다.

그후 여찬 스님은 1744년 4월에 경남 고성 옥천사 시왕도(오도전륜대왕) 조성에 시주를 하고, 1746년에 서울 봉은사 목조사천왕상을 제작하면서 복장물도 시주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밝혀진 여찬 스님의 활동 시기는 1706년부터 1746년까지이다.

이런 문헌을 통하여 여찬 스님은 1670년대에 태어나 1690년대부터 금문 스님 밑에서 보조화승(補助畵僧)으로 활약하다가 171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수화승으로 불상과 불교공예품 등을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1708년에 포항 보경사 괘불도 중수에 사내질(寺內秩)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 보경사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1713년에 충북 괴산 소마사 불상 중수·개금에 조각승과 시주자로 참여한 것을 보면 괴산이 고향이나 출가 등 밀접한 관련성이 있던 지역으로 추정된다. 스님은 1741년 이전에 종2품(從二品) 문무관의 품계에 해당하는 가선(嘉善)의 공명첩을 이름 앞에 쓴 것으로 보아 국가적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에서 발급한 공명첩을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다.

혜희·금문을 계승한 직계 제자
문헌 통해 활동 시기·지역 가늠
경기·영서 중심으로 작품 분포
포항 보경사 거주하며 활동해와
주로 목조불상 조성 불사 참여

여찬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법령(-1615-1641-)→ 혜희(-1640-1677-)→ 금문(-1655-1706-)→ 여찬(-1706-1746-), 취습(-1706-1711-), 삼인(-1693-1713-)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찬 스님은 그가 불상을 제작한 지역이 충북 영동, 충남 청양, 강원 삼척, 경기 안성, 서울 강남 등의 사찰이나 암자에 불상을 제작하거나 중수한 것으로 미루어 그의 활동 지역이 중부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천 스님이 만든 불상 가운데 현존하는 대표적인 작품은 영동 영국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다. 대웅전 내 수미단 위에는 목조삼존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본존과 지장보살좌상은 근래 제작된 작품이지만, 좌측 목조보살좌상은 전형적인 조선후기 보살상이다. 이 보살상의 대좌에 1711년에 '조각승 여찬이 만들었다' 고 적혀 있다.

목조보살좌상은 전체 높이 80㎝, 무릎 너비가 52.5㎝로, 조선후기 제작된 중형 크기이다. 보살상은 화염문(火焰文)과 화문(花文)으로 장식된 높고 커다란 보관(寶冠)을 착용하고 있다. 보살은 얼굴을 앞으로 약간 내민 자세를 취하고, 신체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 정도이다. 이러한 신체비례는 17세기 전·중반에 제작된 보살상과 비교해 보면, 신체에 비하여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이 특징이다.

타원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콧등이 평평한 삼각형을 이루며, 입은 살짝 미소(微笑)를 머금고 있다. 이 보살상은 17세기 후반에 색난이나 단응 등이 제작한 보살상보다 어깨와 무릎 폭이 좁은 편이다. 양손은 따로 만들어 손목에 끼우는 구조로, 오른손은 가느다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어 손바닥이 밖으로 보이고,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다.

바깥에 걸친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 반원형으로 걸친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오른쪽 어깨를 덮은 편삼과 겹쳐져 있다.

특히, 왼쪽 어깨에서 수직으로 늘어진 대의 자락 상단에 사선으로 대의자락이 접힌 표현은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조각승 혜희 스님의 계보를 이어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마일(摩一) 스님이나 금문(金文) 스님이 제작한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하반신의 대의처리는 네 겹으로 접힌 주름이 밑으로 완만하게 접혀 물결이 일렁이듯 펼쳐져 있다. 이와 같은 보살상의 대의 처리는 17세기 후반에 충북과 경북 북부에서 주로 활동한 조각승 금문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에서 볼 수 있지만, 금문의 기년명 불상과는 하반신을 덮은 대의 자락의 끝단 처리가 다르다.

보살상 뒷면의 처리는 목 주위에 대의(大衣)를 두르고, 대의 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보살상이 앉은 대좌는 중대에 모란문 등을 투각한 팔각대좌 위에 연화좌를 놓는 구조로, 연화좌의 바닥 면에 조성시기와 조각승을 알 수 있는 묵서가 적혀 있다.

그밖에도 여찬 스님이 만든 불상 중에서 현재 없어진 강원 삼척 태백산 지장암 목조지장보살좌상이나 서울 봉은사 목조사천왕상이 있다. 그 가운데 봉은사 목조사천왕상은 크기, 자세, 지물, 착의법 등에서 기존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사천왕상과 다른 조형성을 가진 특이한 불상이다.

여찬 스님과 그 계보 조각승이 제작했다고 추정되는 불상은 충북 제천 무암사 목조여래좌상, 충북 청양 봉안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등으로, 이들 불상은 양식적으로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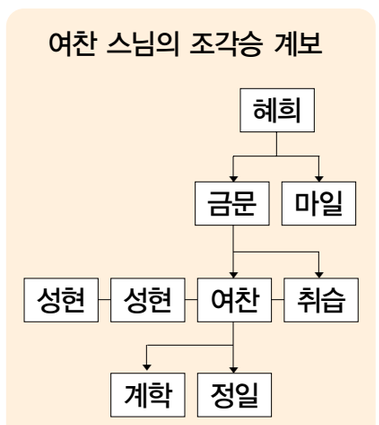
18세기 전반 여찬 스님의 만든 대표작 1711년 영동 영국사 목조보살좌상. 나무로 만든 보살상으로 오른쪽 어깨에 완만하게 사선을 그린 대의 자락이나 단순화 된 옷주름이 특징이다. 사진제공=김춘실 충북대 교수 제공



여찬 스님이 1726년 4월에 만든 강원 삼척 태백산 지장암 목조지장보살좌상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삼화사에 봉안되었지만 현재는 없어졌다. 사진제공= 진홍섭 교수 논문서 사진 인용.



영동 영국사 불상의 대좌 바닥에 적힌 제작 관련 묵서. 화원으로 여찬 스님과 벽한 스님 등이 적혀 있다. 사진제공=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제공.







불교 행사, 사진으로 만나다

한국불교사진協, 봉축기념 회원전 개최

5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 · 대구서 연달아 전시

불교계에서는 1년 동안 많은 행사들이 열린다. 이런 행사들의 일면을 렌즈에 담아낸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불교사진협회(회장 전제우)는 오는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불교행사'를 주제로 제 21회 회원전을 연다.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5전시실로 옮겨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불교행사를 주제로 한 협회 회원 사진작품 56점이 전시된다. 이들 사진들은 전국 사찰에서 열린 불상 점안, 법성도 요잠, 다비식 등 법회와 행사들을 담아냈다.

전제우 한국불교사진협회장은 "주제가 생각보다 어려웠고, 단체 출사만으로는 행사에 맞출 수가 없어 회원 개인 시간을 쪼개서 전시회에 참여해야 했다"면서 "우리 회원들의 작은 노력이 한국불교 포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시회에서는 제10회 청소년 불교사진 공모전 수상작들을 만날 수 있다. 한국불교사진협회는 청소년 포교 일환으로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010)6365-5065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사진협회 방종열 대구지회 회원의 작품 '풍등'

한국 찬불동요를 '한 권에'

찬불가제정위, 표준곡집 1권 발행

5개 분야 295곡 총망라

어린이 찬불동요를 망라한 악보집이 발간됐다.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원산하 대한불교찬불가제정위원회(위원장 박이제, 이하 찬불가제정위)는 "'표준어린이찬불동요곡집 제1권을 발행했으며 무상으로 전국 사찰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연차적으로 총 4권이 발행될 찬불동요집 가운데 첫 번째인 '표준어린이찬불동요곡집'에는 295곡이 수록됐다. 의식동요곡과 창작동요, 인성동요, 유아동요, 생활동요 등 5개 분야에서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활용할 수 있는 곡들을 선별했다.

1982년 5월 진영출판사를 통해 결집된 '어린이찬불가' 222편 중 23곡을 다시 담았으며, 의식용 찬불가는 새로 창작했다. 같은 소재의 경우 원로 작가 작품을 우선 수록했다. 불교방송 창작찬불동요제와 국악동요제, MBC, KBS 창작동요제, 초록동요제 등 각종 동요제 입상곡을 비롯해 교과서 수록곡 등



작사가나 작곡가가 보내준 원고를 중심으로 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해 실었다. 특히 유치원 누리과정 교과내용 개편에 따라 단원별로 유아동요 16편을 개발해 수록했다. 대한민국찬불가요 대상 수상곡 중 동요도 악보와 가사가 함께 게재했다.

'표준어린이찬불동요곡집'은 4월15일부터 일선 포교단체와 사찰에 배부중이며 이메일(kbm0747@hanmail.net)로 신청인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02)425-3002 **신성민 기자**

절집 천정엔 화엄세계가 담겼다

노재학 작가, '사찰천정, 화엄의 빛' 개인전

사찰 건축물에는 많은 문양들이 등장한다. 문양들은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는 진리로 가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이는 사찰 천정도 예외는 아니다. 고개를 현기증이 날 정도로 한껏 들어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양들에서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만난다.

본지 연재를 통해 사찰의 다양한 문양과 성보들의 의미를 조명해 온 노재학 불교사진작가는 오랫동안 '사찰 천정'에 주목해왔다.

그는 2003년부터 10여 년간 전국의 절집을 다니며 사찰천정에 보장한 문양세계를 카메라 렌즈에 담아 왔다. 이를 통해 작가는 확고한 신념이 생겼다. 실제로 노재학 작가는 사찰 '천장(天障)'이 아니라, '천정(天井)'이라고 개념 짓는다. 하늘을 차단하고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하늘세계를 바라보는 통로인 우물(천정:天井)로 여긴 까닭이다.

수많은 문양을 만나고 천착한 결과물은 본지의 연재를 통해 소개됐고, 이를 다시 정리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통도사 대웅전, 범어사 대웅전, 봉정사 대웅전, 천은사 극락보전, 내소사 대웅보전 등 20여 전통사찰의 불전건물 천정의 문양세계를 담은 작품 30여 점이 전시된다.

노재학 작가가 작품을 촬영하고 의미를 천착하는 과정은 곧 '인내'였다. 발품을 팔아 수 백 차례 사찰을 찾았고, 모든 문양들을 속속들이 파악했다. 이를 통해 사진작업 순서와 구도, 조리개 값, 셔터속도, 호흡 등을 시뮬레이션 수준으로 몸에 익혀 두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재빨리 포착했다. 천정의 문양세계를 해독하기 위해 부산시립도서관을 드나들며 불교경전과 미술사학, 건축, 미학론의 책들을 탐독했다.

'사찰천정, 화엄의 빛'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예경과 공양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화엄의 세계 △생명력, 근원의 빛 등 4부로 구성된다.

본지 연재작품 30여 점 전시
5월 4~8일간 불일미술관서

10년동안 사찰 천정만 촬영
수많은 문양들의 의미 천착
"천정, 광명편조의 화엄 세계"

모두 사찰 천정의 문양 특징들을 분류한 것이다. 천정의 비천들은 법열(法悅)의 세계를 보여주며, 한자와 범어의 상징문자를 새겨넣은 것은 부처와 보살, 진리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대칭과 자기유사성을 반복하는 부분은 만유가 인드라망으로 이어지는 화엄세계가 머리 위로 펼쳐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사찰 천정은 '화엄'으로 장엄된 곳이다.

노재학 작가는 "사찰 천정은 조형 예술가들에 의해 영산회상의 공간으로, 극락정토로, 갠지즈 강 모래알만큼 많은 중중무진의 삼천대천세계의 불국토로 장엄됐다"면서 "본질적으로 절집천정은 진리법이 구현된 광명편조의 화엄의 세계다. 단지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조형언어를 취했을 따름이다. 천정에 또 하나의 팔만대장경이 갈무리 돼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도사 대웅전 천정<사진 위>과 사찰 천정의 다양한 세부 문양들.<사진 아래> 무심코 지나칠 법한 이들 문양들은 불보살에 대한 예경과 진리의 가르침, 이를 모두 아우르는 화엄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불일미술관은 "작가는 10년 간의 작업을 통해 천정 세계를 대중들이 낱낱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상으로 내렸다"면서 "절집천정의 문양세계에 대한 최초의 작업이며, 전시회로 의미가 각별하다"고 밝혔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렌즈로 잡아낸 수행자들의 면면

하지권 작가, '절집- 수행자' 사진전

깨우침을 향한 수행자의 치열한 삶을 스토리로 담은 특별한 사진전이 열린다.

16년동안 카메라에 사찰을 담아온 하지권 불자 사진작가는 오는 5월 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3번째 개인전 '절집, 두 번째 이야기-수행자'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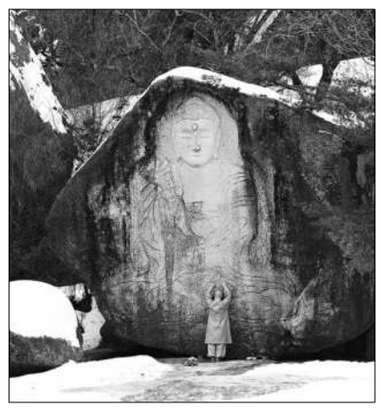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하지권 작가가 그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진 작품 34점을 선별해 대중에게 선뵌다.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절집1' 전시가 풍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전시는 수행자에 초점을 맞춰져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스토리가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34점의 작품들은 △울림 △꽃을 피우다 △수행 △열반이라는 네 개의 큰 흐름으로 구성 · 전시된다. 수행의 결의를 보이는 법고의 울림으로 시작해, 수행자가 마침내 마주한 불법의 광대무변함, 즉 화엄을 아름다운 꽃으로 표현했다. 이어 수행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열반으로 끝을 맺는 수행자의 삶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큰 울림을 전한다.

탑골미술관의 기획초대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한 봉축행사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전시장을 '법고가 울리고 꽃이 피고 수행자의 삶이 이어지는 법당이자 절집'으로 구성했다.

하지권 작가는 "'눈에 보이는 것'이면에 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면서 "카메라는 무거운 죽비와도 같다. 앞으로도 우리 땅, 우리 산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권 작가의 작품 '봉암사'. 하지권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수행자들의 면면을 렌즈에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5월 4~27일 탑골미술관서 개최
수행자 일상 담은 30여 점 전시

이번 전시에 대해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비와 보살행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면서 "고즈넉한 산사의 모습과 스님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탑골미술관은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세대가 미술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전시문화공간'을 지향하는 미술관으로, 2013년 5월 서울노인복지센터 내에 개관한 이래 지역사회 및 다양한 세대에 열려있는 미술 공간으로 기능해오고 있다. (02)6220-8553

신성민 기자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 인가!
『대리점 및 소액 점포/사찰답례품 창업주 모집』
불황을 타개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불 도량에 알맞는 품격있는 제품입니다.
울금365 는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었으며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는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품일체(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 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함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특허등록)
당찬하루, 팔자보(남자의 팔자),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아토피, 피부미용,새집증후군,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등의
향균, 탈취
70ml(휴대용)×1병 = 3,900원 /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n Herb NAVER 산촌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H. 010-3215-3998 www.sanchonherb.co.kr
농협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4.13~2015.4.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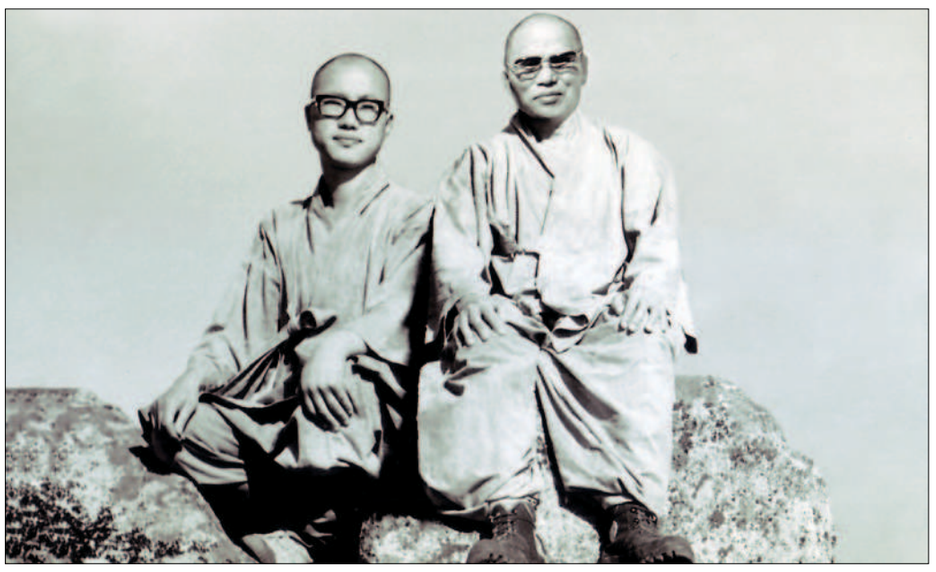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3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법공양
4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5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운/정원규	불광출판사
6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7	능엄경 대의풀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8	괜찮아나는나니까(성전스님이전하는희망의 토닥임)	성전스님	담앤북스
9	붓다프로젝트	원담	민족사
10	호흡이주는선물	래리로젠버그외	나무를심는사람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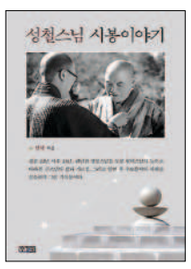
"시봉은 계속 중… 사리탑 건립, 추모사업, 책 출간 등"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택 지음 | 장경각 펴냄 | 1만 6천원



해인사 인근 남산 매화봉에서 찍은 성철 스님(사진 오른쪽)과 원택 스님 모습.



1971년, 원택 스님은 친구 따라 가야산 백련암을 찾았다가 '가야산 호랑이' 성철 큰스님(1912~1993)을 처음 만났다. 1만 배를 한 뒤 얻은 화두가 바로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不欺自心)' 였다.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고 정직해야 하며 자신과의 약속만큼은 꼭 지키며 충실하라는 일침이었다.

맏상좌로서 성철 스님을 20여년 간 시봉한 원택 스님(백련불교재단이사장)이 은사스님의 가르침과 일화를 정리한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를 펴냈다. 기존 내용에 '시봉이야기 그 후'가 첨가된 개정증보판이다.

첫 출간은 2001년, 당시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성철 스님 탄생 1백주년을 맞아 재출간 된바 있다. 책의 역사가 15년 이상 된 셈이다. 원택 스님은 책출간을 통해 은사인 성철 스님 시봉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장좌불와 8년, 동구불출 10년으로 수행정진한 성철 스님은 평생 누더기 한 벌과 서책만을 남기며 무소유로 일관했다. 원택 스님은 그 밑에서 혹독한 행자생활을 거쳐 생전 22년, 사후 23년 등 총 45년간 성철 스님을 극진히 모셨다.

책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마치 현장을 들여다보듯 실감나게 풀어나간다. 원택 스님은 "마음을 다해 시봉한다 했건만 큰스님을 보아도 보지 못한 것 같고, 만나도 만나지 못한 것 같다"며 스승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그리움을 나타낸다.

첫 출간은 물론이고 재출간될때도 세월은 흘렀지만 호응은 여전히 뜨거웠다.

원택 스님의 기억에 다르면 "조계사 앞길서 만난 동국대 불교대학 오형근 교수는 이 책은 21세기판 사원 세시풍속기록이며 어떻게 출가하는지, 행자 시절 고생하는 모습, 어른스님의 지도 등이 잘 묘사돼 좋았다고 정말 큰일 하셨다"라며 격려했다고 한다.

또 어느 보살은 일부러 찾아와 "원택 스님! 우리집 양반이 그렇게 절을 못 가게 하더니 〈성철 스님 시봉 이야기〉를 읽고서는 '이런 스님들이 절에 살면 당신 절에 가도 좋다' 고 허락했습니다. 세상에서 스님들에 대한 생각들이 보살들의 마음과는 다른 모양인데, 이번에 스님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스님들의 격을 한층 높여주셨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 개정증보판 발간
200쪽 분량 '시봉이야기 그 후' 더해져
시봉하면서 느낀 생생한 경험담 소개
백련암 생활 등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도

책 속에 등장하는 성철 스님은 투박한 듯하면서도 촌철살인과 명쾌함의 소유자였다. '가야산 호랑'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다. 단도직입적 언행은 속세를 초월해 수행자의 길을 오롯이 걷던 성철 스님이었기에 쾌도난마처럼 후련하게 느껴진다.

원택 스님이 출가를 결심할 때의 일화도 그중 하나이다. 두 번째로 자신을 찾아온 원택 스님에게 성철 스님은 직설법으로 묻는다. "니 중 안 될래? 고만 중 되라." 그리고 몇날 며칠 고민 끝에 출가를 결심한 원택 스님에게 엄명을 내린다. "내일부터 1주일 동안 매일 삼천 배 기도 하거래이."

책 속에는 성철 스님과 원택 스님의 첫 만남과 출가, 돈오돈수 논쟁, 치열한 구도정신 등 진면목을 볼 수 있다. 특히 스승과 제자 사이의 치열한 구도열정에는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항상 언제 읽어도 생생한 감동으로 전해지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최종판에는 어떤 것들이 새롭게 들어 있을까? 200쪽 분량의 '시봉이야기 그 후'가 더해졌다. 성철 스님 일상사와 해인사 백련암 생활,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을 시봉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이야기들이 실감 나게 담겨 있다.

그림자 시봉을 하며 불교계의 '효자 스님'으로 알려진 원택 스님은 1972년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행자 시절 꾸중도 많이 듣고 뺨까지 맞는 등 혹독한 생활을 했지만 은사 스님의 향훈과 가르침을 한번도 거스르지 않고 수십년간 성철 스님 곁을 지켰다. 그런 원택 스님의 눈으로 바라본 성철 큰스님의 삶과 가르침이 듬뿍 담긴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원택 스님은 "큰스님께 잘한 일-생전 하나, 열반 후 셋'으로 선양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잘한 일로는 〈성철 스님 법어집〉과 〈선림고경총서〉 출간을 꼽고 있습니다. 법어집은 성철 스님이 출간 후 부처님께 밥값을 했다고 자평한 〈선문정로〉와 〈본지풍광〉을 비롯해 〈백일법문〉 등 모두 11권의 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총서는 선(禪)의 핵심을 담은 경전과 어록을 번역 출판한 37권의 책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열반 후 잘한 일로는 '칠일칠야 8만4천 배 추모 참회법회'와 '사리탑 건립', 〈성철 스님 시봉이야기〉 〈영원에서 영원으로〉 〈설전〉 등의 출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과 열반 20주기 추모사업, 겁외사에 들어선 '성철스님기념관 건립', '성철 스님 이야기' 음반 출시, 〈명추회요〉 발간 등이라고 생각합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통찰의 깊은 울림… 앵글 속 너머 풍경 글로

산사로 가는길

박재완 글 사진 | 연암서가 펴냄 | 1만 5천원



동료로 10여년을 함께 신문사서 일했다. 사진이 본업인 저자가 어느날인가 불쑥 수필가로 등단했다고 자신의 기고가 실린 잡지를 건넸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글을 읽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앵글속 너머로 본 풍경이 그에게 글을 쓰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머리말서 "산사서 아침을 맞을 때 산새 한 마리가 우주를 깨우고 있었고, 거대한 우주는 나비 한 마리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송이가 거대한 문명의 모든 결행을 멈추게 했고, 빛의 속도로 흐르던 시간은 눈부신 설경의 시간을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는 우리가 있었다. 때론 뒤늦은 생각과 빗나간 마음을 안고, 기어이 겨울을 따라나선 갈대 앞에 서 있었다. 그렇게 나의 글은 풍경에서 왔다."고 고백한다.

책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과 잘 버무려진 글들이 사유의 여운을 주는 '사찰 풍경 속 이야기' (제 1부), 붓가는 대로 자신의 신변 속 감상을 산문으로 써내려간 '산사로 가는길' (제 2부), 사진기자로 그동안 전국 산사를 누비며 기행을 적은 '절로 향하는 마음' (제 3부), 마지막인 문학과 영화의 무대가 된 사찰들을 소개한 '절 속의 문화읽기' (제 4부) 순이다.

특히 '절 속의 문화읽기' 편에서는 기지 넘치는 제목들이 간간히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가령 2001년 개봉해 히트한 영화 〈달마야 놀자〉의 촬영지인 김해 은하사 편에서는 '건달들의 템플스테이, 형님 여기는 절입니다'로 소개했다. 신경숙의 단편소설 〈부석사〉에 등장하는 영주 부석사 편에서는 '아무나 그곳에 가게 하고 싶지 않았다' 고 할만큼 신경숙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애정을 표현했다.

저자는 사찰을 다니며 맛 본 다양한 경험과 그곳서 줌인 한 선적인 사진에 특유의 맑고 명징한 언어를 가미해 이 책을 완성했다.

김종완 문학평론가는 "자기 내면의 흐름을 용서치 않고 낱낱이 따지는 시선은 가장 박재완적인 시선이다. 자기 엄격성은 작가에게, 특히나 수필작가에겐 필수적인 덕목이다. 그는 이 산행의 경험을 역경을 뚫고 어떤 목표물을 쟁취한 승리의 기록보다는 자기의 비굴을 어쩔 수 없이 목격하고만 자기 격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며 "이 작가에게 이런 오기는 왜 생기는 걸까? 극한의 상황에서 나의 허약함을 발견했다면—어디 이게 나만이 갖는 허약함이겠는가. 인

맑은 언어로 기록된 구도의 여정기
다양한 풍광 줌인한 禪 사진 돋보여

간이란 종이 갖는 허약함일 것이다—어떤 경우에도 인간에 대한 재발견이고 그렇다면 진전된 시선 아닌가. 그날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며 감격해서 셔터를 눌렀던 것은 그날의 태양 자체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 태양이 특별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수필가인 맹난자 선생도 "박재완의 수필은 맑은 언어로 기록된 구도의 여정기(旅程記)라 할 수 있다. 사는 게 힘들어도 나의 '자리'는 변함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동심(眞如)의 점검과 어쩌다 찾아온 근심으로 공부하면서 쏜살같은 시간 살다 갔으면 한다는 압축된 그의 언어는 독자로 하여금 많은 부문을 보완하면서 읽게 한다. 그것들은 곧 나의 문제로 환원(還元)되고… 그의 글에는 이런 힘이 있다. 통찰의 깊은 울림이 있다."고 칭찬했다.

김주일 기자



박재완 作, '아름다운 날'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법민스님의 산사음악회 CD발매



법민스님은 2004년 범어사 계명암오솔길을 직접작사하여 찬불가음반을 발표하고 2006년 목탁새 노래로 방송 활동 중이며 2016년 3월에는 일본 고베 켄벤션센타에서도 콘서트공연을 가졌다.

현재 전국가요대행진 등 복지TV, 실버TV, 아이넷TV, MBC넷 등 방송 활동과 산사음악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음반 수록곡으로 소원 · 업보 · 님이오는 소리 · 상념 등이 있다.

산사음악회 CD 목차
① 목탁새
② 계명암 오솔길
③ 백일기도
④ 소원
⑤ 업보
⑥ 상념
⑦ 사랑은 주는거야
⑧ 님이 오는 소리
⑨ 목탁새(slow)
⑩ 목탁새 경음악

각종 사찰행사에 음성 공양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구입문의 다 산 불 원
051-231-6455 / 010-9049-0016

中 인공지능 갖춘 동자승 로봇 등장

베이징 용천사 개발…
음성명령 수행 · 교리 설명 등

20여 개 질문 답변, 보행도 가능
지난 10월 개발 후 '개인 수행'
SNS통해 전 세계적 관심 폭발
"과학과 불교, 반대적인 것 아냐"
기능 업그레이드 버전 개발 계획



중국 베이징의 용천사가 음성명령을 통해 신도들에게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로봇 승려 '샨얼(Xian' er)'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출처=foxnews

'스마트 문화'에 익숙한 요즘 세대들을 위해 중국 베이징의 한 사찰에서 불경 읽어주는 '로봇 스님'을 개발해 화제다. 이 로봇 스님은 불교 교리와 진언 등을 신도들에게 설명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공지능과 종교의 접목'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영국 언론 'The guardian' 4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유명 사찰인 용천사(Longquan temple, 龍泉寺)는 음성명령으로 움직이고 간단한 대화까지 가능한 로봇 승려를 개발, 신도들을 위해 공개 배치키로 결정했다.

'샨얼(Xian' er)'이란 이름을 가진 2피트(약 60cm) 높이의 로봇 승려는 노란 가사를 입고, 일반 스님들과 같이 삭발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슴에 터치스크린이 부착돼 불교 또는 용천사 관련 20여 가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또한 2족 보행이 가능하며, 바퀴는 7가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용천사가 제작한 불교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샨얼'에서 착안된 것이다. 용천사는 2013년 같은 이름의 '샨얼'이란 승려 만화 캐릭터를 개발, 동자승의 사찰 생활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함으로써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디지털 문화 애호가로 널리 알려진 용천사 주지 셰청(Xuecheng) 스님은 "불교는 명상과 자기 수양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뿐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며 "뉴 미디어 · 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불교 교리와 지혜, 자비를 더욱 쉽게 전하는 것 또한 그 역할"이라 강조했다.

샨얼 로봇 승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등 기계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은 요즘 세대들을 위해 개발됐다. 개발자인 샨피안(Xianfian) 스님은 "인공지능이 불교 지혜를 중국 내에 전파하는데 긴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과학과 불교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호보완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샨피안 스님은 "불교는 내면에 대한 의식을 중요시한다. 즉 개인의 영적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나는 불교가 스마트폰 등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 심리의 간극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과 접목할 때 더욱 친근히 다가갈 것"이라 덧붙였다.

샨얼 로봇 승려는 중국 기술 전문회사와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개발돼 지난 10월 대중에 공개된 바 있다. 이후 중국 내 로봇 박람회에서도 소개된 바 있으나, 주로 용천사에서 명상을 실시하며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샨피안 스님의 SNS를 통해 샨얼 로봇 승려의 존재가 빠르게 퍼져나가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SNS에서 샨얼 로봇 승려를 처음 접한 미셸 유(Michelle Yu) 씨는 "보기에 매우 귀엽고 사랑스럽다. 샨얼 승려가 사람들에게 더 전파된다면 불교가 대중화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기술개발 전문지 'digitaltrends'에 따르면 용천사는 이미 샨얼 로봇 승려 기능을 개선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digitaltrends'는 "용천사가 훨씬 더 많은 기능을 보유한 새로운 로봇 승려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만약 개발이 성공한다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일상에서 영적인 것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로봇 승려와 함께 쉽게 명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경찰 스트레스, 명상으로 '극복'

캐나다 토론토서 신입 경찰 35명 명상 수업 참여



35명의 신입 경찰들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남부 미시소가에 있는 불교명상센터에서 신입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명상수행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크리스천 뉴스

캐나다 신입 경찰들이 사찰에서 명상 수업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미국 기독교 인터넷 언론 '크리스천 뉴스(Christian News)'는 4월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지역 신입 경찰들이 사찰에서 명상을 통해 직업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5명의 신입 경찰들은 4월 7일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남부 미시소가 (Mississauga)에 있는 웨스트 엔드 불교 명상센터를 방문했다. 이들은 토론토 지역을 관할하는 필(Peel) 지역 경찰서에서 신입연수 교육을 받고 있다.

신입 경찰들은 사찰에서 스님이 지도하는 마음챙김 명상과 불교 철학 강좌에 참여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은 불상이 모셔진 법당에서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들었다.

필 지역 경찰서 소속 로리 블라슉(Lori Blashuk)경관은 "신입 경찰들을 위해 사찰 프로그램이 도움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특히 직업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찰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웰빙(well-being)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또한 마그디 유난(Magdi Younan) 필 지역 경찰서 경위는 사찰 명상체험에 대해 '현장 학습'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찰 체험을 신입 경찰들의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 경찰서의 요청으로 이번 명상과 법문을 교육한 반트 사라나팔라 스님은 "내가 경험한 통찰과 영적인 생각을 신입 경찰들과 공유하고 그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치안 유지에 힘을 쓰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 지역 경찰서는 신입 연수 교육 후에도 경찰들이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명상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 온타리오 관할 경찰서도 필 지역 경찰서의 교육 효과에 주목하고, 오는 5월에 비슷한 테마의 명상 세션을 지역 사찰에서 열 계획이다.

한편 크리스천뉴스는 구글 · 페이스북 · 애플 · 타겟 ·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북미지역 기업들이 명상과 마음챙김 프로그램, 요가 등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을 언급했다.

크리스천뉴스는 "힌두교와 불교 등 동양권에서 전파된 종교와 뉴에이지(New age)가 미국에서 점점 각광 받고 있는 상황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동양권 국가에서 전파된 다양한 종류의 명상수행법들은 의식 수준의 '전환과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2000년 전 희귀 불교경전 필사본 공개

파키스탄 · 아프가니스탄서 발견… 동남아서 전시 예정

2000년 전 만들어진 불교 경전 필사본이 베트남의 유적 도시로 알려진 후에(Hue)시에서 공개된다.

베트남 인터넷 언론 '베트남넷(Vietnam.net)'에 따르면 4월 25일(현지시간) "희귀 불교 경전 필사본이 테라와다 불교 사원인 후엔 콩(Huyen Khong) 사원에서 대중에게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후에시 페스티발의 일환으로 4월 29일부터 열리는 베트남 필사본 전시는 베트남 불교 승단 최고 지위에 있는 팝통 스님이 지난 1월 세계불교평화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필사본을 보고 추진한 것이다.

이 필사본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에서 노르웨이, 일본, 독일, 미국의 고고학 교수들의 참여로 진행된 유물 발굴과정에서 발견됐다.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며, 노르웨이 정부가 태국 승단을 비롯해 동남아 및 북아시아 불교국가에서 전시를 허가한 바 있다.

팝통 스님은 "고대 문화유산 전시 작업에 베트남 승단과 태국 승단이 함께 참여했다"며 "대중에 공개되는 불교 경전 필사본은 20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돼 고고학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전시는 관련분야 연구자들에게도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불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외 전문가들과 불교 국가 내 승단들도 경전 필사본 전시 작업에 참여했다.

노르웨이 정부에서 파견된 조사단과 태국 불교 승단이 후에시(市)를 방문했으며, 50명의 불자 공무원들과 태국 불자들이 방문했다. 또한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 4월 2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회원국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같은 날 흐엉강에 연등을 띄우는 행사도 진행됐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에서 발견된 불교 경전 필사본이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 및 북아시아 불교국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20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출처=베트남넷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빨리어, 라틴어, 영어, 미얀마어, 태국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된 고대 불교 삼장(三藏)도 함께 공개된다.

이보형 객원기자

헤이안시대 불상 50년 만 대중 앞에

4월 29일~5월 8일 호카이지 사원서 전시



헤이안시대(794~1185) 후기인 1051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중요지정문화재 '약사여래상'〈사진〉이 50년 만에 일본 가나와나(Kanagawa) 현 호카이지 사원에서 전시된다. 이는 1965년 이후 처음 대중에 공개되는 것으로 그간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 '아사이 신문'은 4월 26일 "호카이지 사원은 약사전 내의 즈시(zushi) 제단에 보관해오던 약사여래상을 4월 25일 공개했다. 약사여래상은 금박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있었으며, 약사여래상을 보호하기 위해 카마쿠라 시대(1192~1333)에 제작된 12보살상도 함께 보관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전시는 4월 29일~5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분별하여 이 몸을 살펴보라. 이 가운데 무엇이
'나'인가? 만일 능히 이렇게 이해한다면
'나'가 없음을 통달하리라.

– 화엄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역학,구궁,오행, 당사주,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초상화 주문 받습니다

낡고 변형된 초상화 사진을
최고급 실크로 제작, 흑백증
명사진을 예식 컬러사진으로
만들어 드림. 청하스님 최고
氣달마. 재물과 복을 주는 놋
쇠로 만든 삼조고, 업두꺼비
와 복돼지 특별주문 받습니다
010-8561-8253

여래사 여수불교대학

주지 및 학감스님
모십니다. 전라도
불교포교에 관심있는
비구, 비구니 스님
010-9351-6330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영험한 퇴마, 기치료

상기병. 빙의. 퇴마. 이유없는
두려움수행에 진도가 없거나
공부에 있어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자 할때. 첫발을 내딛
는 제자나 재발심한 수행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10-8880-8911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관상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암, 질병, 재판, 묘터, 교통사고
운을 한눈에 알 수 있다
– 성명학+사주+백초귀장술
(출장가능)
– 천기누설강의, 무속인,
철학관, 일반인
010-4014-8822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 신경성 질환, 불면증 화병, 기(氣)치유법

사찰,개인,대학병원,증세 심한분,
배울 분 출장, 최고의 치유법 자신함
저작권등록 심리철학 제C-2015-023718호
(한의학과 철학의 공통점)
다음 카페 몸과 마음 건강법
철학과 심신건강법
(심리철학, 건강철학, 부부철학)
경력 : 심리철학(관), 결혼상담
1945년 11월생 혜천
010-4078-7810

암자 처사(기사)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50세 이상, 경기 성남)
010-5264-8312

기도하시면서 함께지낼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팔공산, 비구니 도량)
010-4314-7895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충북 음성)
010-5883-2255

법납40년, 속납 68세 비구. 마지막 봉사

(10년토굴수행.부전사양)
010-3221-083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내 사찰)
053-654-0408
010-3422-323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신통력과 특수한 비술을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 051-245-535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법당 함께 운영하실 능력있는 스님, 총무님 모십니다

(인천)
010-8300-967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종로)
010-3025-7269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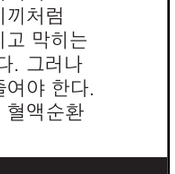
(60세이하, 부산)
010-7311-5335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 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이근원통 관음수행

(수능엄경)
단전호흡, 수식관호흡, 관음수행
도제식 지도
010-2069-8918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마땅히 배움에 뜻의 등불을 켜고 스스로 익히면서
지혜를 구하며 때를 떠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등불을 잡고 도(道)의 땅을 자세히 살피리라.

- 수행본기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아름다운 사찰 ◀
- 위치 : 청도(대구에서 20분거리)
- 총부지 : 400여평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3동 50평) 목조삼성각(7평), 극락전, 황토방
- 양도가 : 4억(금융대출 2억 5천 별도)

051-863-6622 / 010-3560-8522

▶ 장인이 지은 전통목조 2층 와가(신축) ◀
- 할수 있는 직종 : 사찰,명상센터,사찰음식점
- 위치 : 사천 골프장입구 아름다운 바다전망
- 총부지 : 1,400여평, 관광버스 20대 주차가능
- 건물 : 와가 약 90평, 미등기건물 40평
- 양도가 : 12억 2천(금융대출 6억 8천별도)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이박사 추천암자 급 안내 (www.이박사.com)

- 청량산 부근암자. 건물 90㎡, 인법당이며 건물두채임
- 도지 8,400㎡
- 산중조용한 암자겸 토굴사용
- 해발 500정도 기도하기 좋음
- 양도가액 3억 5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토굴
◎ 대지 : 150평,타인땅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양도 : 3천오백

◎ 위치 : 경기
◎ 대지 : 2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양도 : 7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시내
- 총부지 : 230평
- 건물 : 법당(20평), 요사채(방4개), 텃밭
- 앞바다가 한눈에보이는 아름다운 절
- 가액 : 몽땅 2억 5천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영주IC 부근 아늑한 사찰

- 토지 5,900㎡
- 법당, 요사채, 산신각 등
- 사찰경내 약수있음
- 앞쪽은 마을 뒷편은 산이고 경내에 멋진바위가 여러개 있음
- 가액 : 4억원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버스종점 100m 거리
- 상가 3층, 포교원 총 83평
- 주불(석가모니불), (지장), (관세음), (소불 170)
- 법당 약30평이상,방3,공양실1
- 가액 : 5,000만원, 월 90만원 양도도 가능

010-9376-56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 3길 41
- 대지 157평, 법당 25평(목조)
- 요사채: 공양간1, 방2개
- 가액 : 2억 8천(전세가)

010-3508-771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인천 지하철 2호선 정서진역 1분거리
- 평수 : 80여평
- 3층 건물내 3층 전체 사용
- 독립 계단,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 3,500만원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2793-61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시장 앞 대로변
- 4층 건물중 4층, 화장실 및 옥상단독 사용
- 총 45평 중 법당 20평 공양간, 주지실, 다용도실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3,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집기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468-3928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 법당1,요사채1,주차장 완비
- 2층 건물 각 75평,
- 건평 149평, 대지 136평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20억(절충가능)

010-3752-2601
031-217-263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 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암자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역 앞) 대문 앞 차도(버스)
- 대지 약 112평, 건(2동) 약 30평
- 법당2, 방2, 거실, 공양간, 마당
- 가액 : 보증금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부산에서 이런 법당 찾기 힘듬

010-7138-114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20분거리
- 설산, 적송숲 가람조성 5년!
- 종교부지 650평, 삼존불, 노천약사석불, 조립식건물 3동
- 가액 : 2억 2천만원
- 산 1만3천평 사용가능함
- 전세 가능함

011-677-8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 부지 종교용지 1,700평, 산 4,130평 합계 5,830평
- 대웅전 35평, 요사채 2층 100평, 지장전 45평
- 양평시내(남한강이 보이는 전망 양호) (매수, 전세, 월세)
- 매수 시 계약 후 분할 납부가능

010-4225-0012

멋진 2층 전원주택 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8008-67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 법당 1, 요사채 1
- 대지 341㎡, 건물 72㎡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050-263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강촌 IC 옆
- 총평수 : 1,250평
- 건물 : 법당 30평, 요사 3동, 70평
- 가액 : 2억

011-370-5904
033-263-5904

사 찰 안 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3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 7억 8천(1억8천 융자)

010-6898-9114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장실3개, 시설완비
- 주차,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2천(절충가능)

010-4918-2597

사 찰 안 내

- 위치 : 팔공산 갓바위 와촌
- 대지 220평, 건평 60평, 삼성각 8평
- 용왕당, 1㎞ 내외 경제특구지역, 현재 공사중
- 위치 조건 최상, 투자가치 100% 보장
- 가액 : 3억 5천(융자 1억 5천)

010-5419-7622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
- 주방, 시설비 금액은 4,700만원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으로 2,000만원 인수하실분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010-6739-0428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마산중심가
- 평수 60평 정도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등
- 시설완비, 즉시법회, 난방비 무
- 가액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조정

010-6208-5555
055-242-655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60-1번지
- 재래시장옆, 법당40평, 3층건물중 2층
- 주불, 아미타 각 위 5존불, 각 탱화완비, 소불 300불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최고, 최상의 시설) 시설비 1,500만원(조절가능)

010-3101-1151
051-782-011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군산읍 족실길 52
- 진악산 등산길 옆 선공암 절
- 조용하고 금산 전경이 다 보임
- 대지 454평, 법당 27평 요사 2동(방 4), 거실 大
- 가액 : 3억 5천(절충가)

010-4355-6356
010-3401-6356

대형포교원(도심사찰) 안내

새로운 신도 포교하기 제일 쉬운곳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 432-206
- 규모: 3층 건물, 2,3층(약 130평) 옥상활용 가능
- 2층: 공양실, 종무소, 대중방3, 스님 친견실, 스님 처소, 화장실 2
- 3층: 대법당, 지장특별기도실, 산신각, 화장실
- 가액 : 5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4,0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6429-5076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시장 앞 대로변
- 4층 건물중 4층, 화장실 및 옥상단독 사용
- 총 45평 중 법당 20평, 공양간, 주지실, 다용도실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3,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집기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468-392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시 황금시장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단층독채,벽돌조104.54㎡(32평) 자기소유등기필(소유권이전),사찰등재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
- 내용 : 법당(넓음),거실주방,방2개,세면장 면중심가 2차선 큰길변 남향(교통좋음)
- 가액 : 6,400만원(절충가)

010-7295-1259
054)435-1259

사 찰 임 대

- 여기는 진주시 유곡죽전길 9-5번지 연화빌리지 4층 절을 임대합니다
- 4층 건물 전체 100평 정도 됩니다
- 전세 금액은 1억이고 스님만 오시면 됩니다
- 비구니스님이면 좋겠습니다

010-9892-343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산사 새벽시장 뒤 (서감초등부근)
- 4층 건물에 2층
- 건 60평 포교원
- 법당 완전 구비 즉시 입주
- 가액 : 1,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7570-205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 대지 400평(주차장완비)
- 건평 50평 1동, 20평 1동
- 대웅전(요사채), 산신각, 용궁
- 가액 : 1억 7천 5백 즉시입주

010-3796-48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563번지, 553번지는 대지, 산은110-6번지
- 하우스법당과 하우스산신각, 요사채1, 처사방1, 황토방1, 하우스 창고1, 자재창고 4개
- 563번지 대지 147평, 553번지 대지 230평
- 임야 산 2,007평 110-6번지
- 전기 개인전기 정화조 산에 내려온 식수
- 절충 가격

010-5348-200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시내
- 버스 승강장, 장소 최적
- 3층 건물 중 2층 삼존불 108소불, 주방, 욕실, 방1,창고, 에어컨1, 냉장고1,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주차

010-7583-1235

암 자 안 내

부처님 잘 모실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김천시 황금동 시장 앞
- 2층, 방 2칸, 거실, 주방, 욕실 1층, 방 3칸, 거실, 주방, 욕실
- 임법당, 마당사용, 토지, 건물 50평, 삼존불, 약사불
- 위치 좋습니다. 스님 법사님 보살님 인연
- 가액 : 1억 3,000만원

010-9375-2747

도심숲속 공원內 사찰

- 위치 : 부산 범일동 공원 內
- 교통부 R위 10m 버스도로 옆 계단 있음
- 대지 98평 (건 100평)
- 2층 법당 35평, 1층 법당30평 1층 요사채(방2개, 거실 별도 대문) 화장실 5, 방 8
- 가액 : 3억 5,000만원

010-5511-7000

토 굴 안 내

- 위치 : 문경읍 관음리 (문경온천에서 13km)
- 건물 : 10,5평 (목조강판기와 부지 : 82평)
- 농지 : 전 221평 (귀틀집 농막 6평 포함)
- 가액 : 1억 2천만원
- 기타 : 시원한 계곡물이 있고 구거부지도 사용 중

010-8555-4480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 평수 : 대지 350평
- 목재건물 4칸 17평. 동향 안채 슬라브 28평 남향
- 가액: 2억 7천만원 (부동산 사절)

010-5838-44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영해면
- 대지 300, 전 450평
- 대웅전30평, 요사채35평 산신각 5평
- 가액: 2억 8천만원 (새마을금고융자 3200만원)
- 사찰에서 고래불해수욕장 5분거리, 대진해수욕장10분거리 (답사후 가격 절충가)

010-4747-3164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3,500만원(답사후 조정 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4646-363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구미산, 대지 64평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법사님 또는 타종단 환영
- 가액 : 6천 5백만원(건물포함)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사 찰 안 내

- 위치 : 월출산 국립공원(내)
- 법당, 요사, 와가, 목조건물 2동
- 산신각 1동, 토지, 임야포함 1천평
- 계곡있고 경관좋음
- 시내차로 5분거리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526-9588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 불사 및 노후보장 좋은 절
- 대지 536㎡, 주차장 텃밭 661㎡
- 법당, 주방 및 종무소1, 요사2동 삼존동불, 인등 300등
- 15년 전법수행도량
- 가액 : 1억 5천 또는 전세 1억 2천 가능
- 좋은인연(공찰 주지로 떠남)

1899-104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전철에서 5분거리
- 몽땅 2억

010-8861-178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로 부근
- 3층 건물의 3층 32평
- 삼존불 모심
- 가액 : 1,000만, 월50만원 시설비 약간

010-3742-5925

다용도 토지 안내

- 위치: 경기 양평 아신역에서 5분거리 (대지 257평, 건평40평 뒤는 산) 서울까지 60~40분 소요
- 앞은 옥천 시내, 유동 인구 많음, 전망좋음
- 용도: 암자,포교원,사주카페,별장
- 가액 : 실입주금 3억 (융자 1억5 천)

010-4234-253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삼랑진역에서 10분 거리
- 경관 아주 좋음
- 대지 230평, 건평 75평(법당)
- 큰방 4개, 다실 1개 거실 및 주방(현대식), 심야전기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3547-1766

생각 바꾸기

김정호(심리학 박사)

〈4〉 생각습관의 힘: 웰빙인지기법

논리·합리적인 것, 항상 정답일까



스트레스 줄이는 '웰빙인지'
부정적 사고-정서 악순환 차단
항상 긍정적 작용하는 것 아냐
불안 수용하는 것, 더 나을 수도

좋은 기분을 낳는 생각 모듈

웰빙인지(well-being cognition) 기법은 안-밖 합치도와 동기상태이론에 바탕을 둔 긍정심리중재법으로, 웰빙인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스트레스의 감소 또는 웰빙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동기인지행동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 웰빙인지기법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웰빙인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스트레스의 동기 상태를 줄이거나 웰빙의 동기 상태를 늘리는 기법이다.

웰빙인지란, 활성화되었을 때 스트레스 정서를 줄이거나 웰빙 정서를 일으키는 인지다. 일반적으로 문장이나 구절('그럴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 '이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등)로 표현되며, 시, 소설, 에세이, 성경이나 불경의 구절, 속담, 명언, 노래가사 등에서 발췌될 수 있다.

안-밖 합치도에 따르면 인간의 정보처리는 안과 밖의 역동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안이란 개인의 내면 환경으로 동기, 인지, 정서, 감각 등을 의미한다.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지의 변화는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정서 상태도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밖이란 개인의 외부 환경을 뜻하는데, 밖- 조건의 변화는 안- 조건에 영향을 준다.

동기상태이론과 안-밖 합치도의 관점에서 볼 때 웰빙인지기법은 웰빙인지를 일으키는 문장들(웰빙인지 목록)을 밖- 조건으로 제공함으로써 안- 조건의 웰빙인지를 활성화한다. 그 결과 스트레스 정서의 구성 가능성을 줄이고 웰빙 정서의 구성 가능성을 늘려 동기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다.

동기상태이론에서 스트레스란 동기좌절과 동기좌절예상의 동기상태이며, 웰빙이란 동기충족과 동기충족예상의 동기 상태다. 따라서 동기상태이론으로 볼 때 웰빙인지는 동기좌절과 동기좌절예상의 스트레스 상태를 줄이거나, 동기충족과 동기충족예상의 웰빙 상태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로서 일반적으로 문장이나 문구로 표현된다.

참고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바라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믿음을 뜻하는데, 언어를 통한 설득이 자기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웰빙인지는 자기효능감을 키우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웰빙인지기법은 웰빙 정서를 유발하는 문장이나 문구들을 밖- 조건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안- 조건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개인의 동기좌절 및 동기좌절예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동기충족 및 동기충족예상의 웰빙을 늘리는 기법이다.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선택적 주의로 인해 주의의 폭이 좁아지고 스트레스 상황을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부정정서를 경험하는데, 부정정서는 다시 부정적인 사고를 일으켜 주의의 폭을 더 좁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반면에 확장-확립이론(Broaden-and-Build Theory)에서도 주장하듯이, 긍정정서는 개인의 사고-행동의 목록을 넓혀 새로운 사고나 행동을 발견할 수 있는 인지적 조망을 넓혀주고 개인적 자원의 확립에 도움을 준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기분을 조절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웰빙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에도 중요한 것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웰빙인지는 부정적인 인지를 차단하여 부정적 사고와 부정정서의 악순환을 끊음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또한 웰빙인지기법을 중립적인 상태에서 적용하면 평상시의 긍정정서 상태가 높아져서,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인지적으로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다. 또한 평소에 웰빙인지를 반복하면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대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긍정도 뒤통수를 때린다

웰빙인지는 긍정인지(positive cognition)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긍정인지가 웰빙인지인 때가 많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꿈을 이루라고 격려하는 것이 긍정인지인가, 적절하게 내려놓으라는 것이 긍정인지인가? 긍정인지란 현상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한 인지이므로, 전자는 긍정인지로 볼 수 있지만 후자는 긍정인지로 보기 어렵다. 대체로 전자가 웰빙인지로 작용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때는 전자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인지가 되고 후자가 웰빙인지로 작용하기도 한다. 영화감동 박찬욱이 만든 가훈 "아니면 말고"에 대한 다음 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자기 의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오만한 태도다. 세상에는 의지만 갖고 이룰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닥쳐오는 좌절감을 어쩔 것인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툭툭 털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이 경쟁만능의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건 포기의 철학, 체념의 사상 아닌가. 이 아빠도 〈복수는 나의 것〉으로 네 친구의 아빠(곽경택 감독)가 만든 영화 〈친구〉를 능가하는 흥행신기록을 세우고 싶었으나 끝내 이십 분의 일밖에 안 되는 성적으로 끝마쳐야 했을 때 바로 그렇게 뇌까렸던 것이다. '아니면 말고…'

긍정인지인 '인생은 즐겁다'가 웰빙인지인가, 부정인지인 '인생은 불안하다'가 웰빙인지인가? 인생이 불안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웰빙인지가 될 수 있음을 위 인용문은 보여주고 있다.

긍정인지는 잘못 사용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를 긍정인지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반면 '나는 사랑스런 사람이다.'가 긍정인지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후자를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항상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 인지치료의 목표는 환자가 주어진 상황을 스스로 더욱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며, 인지치료 기법은 환자에게 긍정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사고할 것을 주문한다. 합리정서행동치료에서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강조한다.

복권 당첨금으로 60억을 받은 가장이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돈을 몽땅 날리고, 설상가상으로 불륜까지 저질러 가정이 풍비박산 났을 때, 복권 당첨은 은총으로 가장한 재앙일 것이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자 공부와 자기관리에 매진하여 실력뿐 아니라 사회적 성공까지 거머쥐었는데 겸손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면, 대입 실패는 실패의 얼굴로 찾아온 성공일 것이다.

'배달의 민족' 앱으로 청년기업인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봉진 대표는, '배달의 민족' 앱 사업을 하기 전에 수제가구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몇 억의 빚을 지고 가장으로서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 그 후 아내의 도움으로 대학원엘 다니고 책을 많이 읽으며 자기계발에 힘써 오늘날 '배달의 민족' 앱으로 더 크게 성공하였다.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지금은 현실과 다르게 보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생각에 일치하는 현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자기충족적 예언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비록 지금은 상대가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더라도, 그가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나중에는 그가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웰빙인지로 둘러싸인 하루

웰빙인지 목록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나름의 웰빙인지 목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웰빙인지도 있지만, 웰빙인지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통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을 접하면 좌절하고 포기하려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때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이 사람은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될 때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가급적이면 각각의 스트레스 상황에 도움이 되는 웰빙인지를 분류하여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원하는 웰빙의 유형에 따라 웰빙인지를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도 좋다.

웰빙인지의 개인차도 있지만 웰빙인지 자체도 우리에게 주는 웰빙에 차이가 있다. 적용 방식에 따라 어떤 웰빙인지는 단기적으로는 동기충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요한 동기의 좌절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웰빙인지를 합리화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면 당장은 마음이 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기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웰빙인지는 때때로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새롭게 더 좋은 것을 접한 경우에 추가하거나 기존의 유사한 것을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살아가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생활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도 이에 맞게 적절하게 웰빙인지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 평상시에도 웰빙인지를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 지하철로 출퇴근할 때 또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웰빙인지를 읽자. 하루도 빼지 않고 식사하며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듯이, 매일 마음에 필요한 영양소인 웰빙인지를 읽자.

다른 기법의 적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웰빙인지기법을 생활 속에 적용할 때 자기성장의 동기를 확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웰빙인지를 상기하고 적용하는 것을 귀찮은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성장 동기의 충족 혹은 충족예상으로 여기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웰빙인지는 마치 에너지 전환을 일으키는 촉매처럼 스트레스 에너지를 웰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다.

자기성장의 동기는 최근의 직무정교화(job-crafting)와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직무정교화의 대상에는 과제, 인간관계, 일에 대한 인지적 자세가 포함되는데 특히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떤 인지적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직장에서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웰빙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직장을 단지 돈벌이를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직장을 자기성장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나 웰빙에서 다를 것이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생각 바꾸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교육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영남범패를 탁마할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 개강일시 : 2016년 5월 26일〈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길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 1로 49 506호)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다루는 법 ③ 바라 및 승무작법, 화청 등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31)483-5528 (길지사 석문스님)
사)대한불교불음원
경기교육원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 제1권(예경/각청) • 제2권(천도/시식) • 제3권(수계/방생)
• 제4권(장의) • 제5권(점안) • 제6권(독송집)
• 제7권(토속의식 모음집)
각권 20,000원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장엄사)
010-7144-7339(총 무)
010-5277-8024(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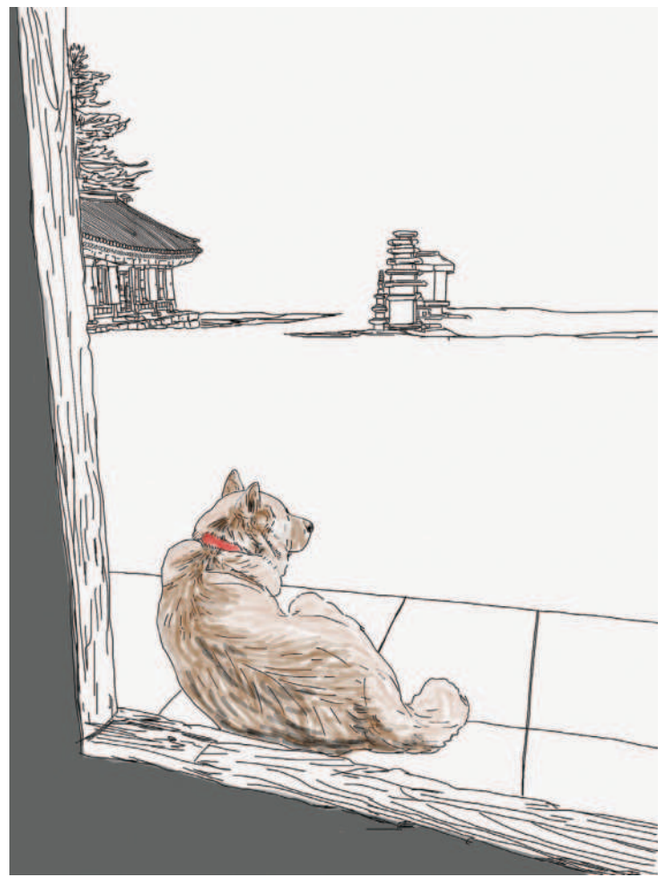
배종훈의
명상카툰

臥佛로 이르는 길

대웅전 본존불 뒤편 벽면에 그려진 천수천안관음도(千手千眼觀音圖).

그 앞에 선 나는 둘 밖에 없는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는다. 특별히 빌 것도 없으면서 무엇이든 빌고 싶어진다.

종무소로 쓰이는 보제루를 나오려는데 그 앞에 절집의 개가 자리를 잡고 앉아 해지는 산 너머를 보고 있다. 사람 기척에 고개를 돌리지도, 움찔하며 일어서지도, 고쳐 앉지도 않는다. 그저 슬쩍 갈 길 가라는 눈빛이다. 내 길이 해가 지는 산 위에 있는 '와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산으로 난 길을 오르며 돌아보니 절집 개는 자리에 없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대비주(大悲呪) ㊦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바로 사랑

"음식이 맛이 없니? 왜 안 가져다 먹어?"

아영이는 세 번째 접시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야채 쪼가리가 놓여있는 접시를 포크로 휘저으며 앉아 있었다.

"스테이크는 안 나오니?"

"아, 미안해. 뷔페만 먹어야겠다. 아빠가 바빠서 먼저 계산하고 가셨는데, 스테이크 주문하는 걸 깜박하신 것 같아. 아빠 배가 내일 출항이라서 정신이 없으셨거든."

"그래? 이번엔 어디로 가시니?"

"으응, 러시아. 대구를 잡을 거래. 러시아 대구는 엄청나게 크대. 내 키 만한 대구도 아주 흔하대. 돌아오실 때 러시아에서 마트료시카 인형을 사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기대돼."

아빠 얘기를 하는데도 아이들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대구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추위에 대해서, 마트료시카 인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호응해줬을 것이다.

아영이의 아빠가 배를 탄다는 건 사실이었다. 아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큰 원양어선 선장은 아니었지만. 아빠에게 가서 사는 동안 아영이는 아빠를 세 번 만났다. 다음 승선 때까지 아빠는 집에서 내내 잠만 잤다. 검게 그을린 피부, 러닝셔츠 위로 불거져 나온 척추의 마디들, 감지 않은 머리에 하얗게 달라붙어 있는 비듬, 새엄마가 아영이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헛기침만 하다가 "이제 좀 그만해"라는 짜증스런 말투, 그것이 아빠에 대한 기억의 전부였다.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자. 나 미술학원 가야 해."

은채가 일어서자, 아이들이 모두 따라 일어섰다.

"아영이 넌? 좀 더 먹고 올래? 배 많이 고픈 것 같은데."

마지못해 일어서면서 아영이는 내내 아쉬웠다. 아직 립 바비큐도, 새우구이도, 스파게티도 먹지 못했는데. 작별인사를 하듯 푸드 테이블 위의 케이크와 마카롱을 눈으로 쓸어보며 패밀리레스토랑을 나왔다.

아이들이 떠나고 난 후, 거리에 혼자 남은 아영이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선물 받은 꾸러미들을 당장 쓰레기통에 처넣고 싶었다. 스위스제 크레파스, 강아지 모양의 머리핀, 바둑판 모양의 갈색 필통. 모두 명품 딱지가 붙은 것들. 아영이가 어렵게 마련한 패밀리레스토랑 식비보다 더 비싼 물건들. 하지만, 이 중에 진짜 아영이를 위한 선물이 있을까. 안 쓰고 처박아 놓았던 것들을 가져왔으면서 생색만 내고. 심지어 필통 속에는 꺼내보지도 않은 카드가 들어있었다.

'민서야, 생일 축하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왔는데, 한 접시도 채 비우지 않다니.

한 달 전부터 아영이는 생일파티를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해야 한다고 할머니를 졸랐다. 할머니는 아영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일주일 전부터는 밥도 먹지 않고 매일 울며 매달렸다. 할머니가 걸레를 방바닥에 패대기치며 소리쳤다.

"도대체 그 패밀리가 머시기에 가려면 얼마가 필요한 게냐?"



그림 · 강병호

할머니가 꼬깃꼬깃 접힌 만 원짜리 지폐 여섯 장을 아영이 앞에 놓았을 때, 아영이는 할머니가 늘 끼고 있던 반지가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반지가 있던 자리에 하얗게 남아있는 자국을 애써 못 본 체했다.

저녁에는 기분이 좀 나아졌다. 할머니가 가져다준 원피스가 마음에 꼭 들었다. 할머니는 자선단체에 공공근로를 다녔다. 자선단체에서 기부받은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을 집으로 가져왔다. 아영이는 내가 거지냐며 심술을 부렸지만, 그중에는 메이커도 꽤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렇게 비싸고 깨끗한 물건들을 공짜로 기부하는 걸까. 아영이는 늘 궁금했다.

"소매 안쪽이 찢어져 있는 걸 말끔하게 바느질해 놓았지. 어떠냐? 새것 같지?"

베이지색 체크무늬 원피스였다. 무늬 때문에 바느질 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영이는 휴대폰으로 원피스 상표를 검색했다. 태그를 보니 정품이 틀림없었다. 아빠가 영국에서 사 온 거라고 해야지. 아영이는 원피스를 입고 거울에 비춰봤다. 처음부터 아영이의 옷이었던 것처럼 소매도 치마 길이도 꼭 맞았다.

채팅방은 한산했다. 아영이는 오후에 찍어두었던 예린이 사진을 올렸다. 그 아래에 '아이언걸'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언제부턴가 예린이는 웃지 않았다. 무엇을 해도 표정이 없었다. 딱딱하고 차가운 가면을 쓴 것처럼. '불타는 철사'의 열기도 좀 시들해졌으니, 이제 '철가면'으로 밀고 가야겠다고, 아영이는 생각했다.

아영이는 예린이가 싫었다. 아영이의 마음을 이해해줬던 유일했던 친구. 더 정확히는 예린이가 알고 있는 자신의 과거가 싫었다. 가난, 병들고 불쌍한 할머니, 초라한 아빠, 그런 아빠에게 버림받은 자신, 그리고 추하고 못난 마음…….

"아영아, 그 옷 어디서 났니?"

은채가 물었다.

"아빠가 영국에 가셨을 때 사다 주신 거야."

"그래? 내 옷이랑 너무 똑같아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라 흔하지 않은 건데, 소매가 찢어져서 입을 수 없게 됐거든. 엄마가 기부했다고 했는데. 혹시 소매 안쪽 좀 보여줄 수 있니?"

다정한 말투로 말하고 있지만, 은채의 눈빛이 싸늘했다. 어쩌면 은채는 벌써 바느질 자국을 봐버렸던 건지도 모른다. 은채 뒤에는 주연이와 민서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가늘게 뜬 눈, 한쪽만 올린 입술, 단단하게 낀 팔짱. 아이들은 예린이를 대할 때의 표정과 몸짓으로 아영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아영이는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따위 원피스, 당장에라도 갈가리 찢어버리고 싶었다.

*

"내가 불쌍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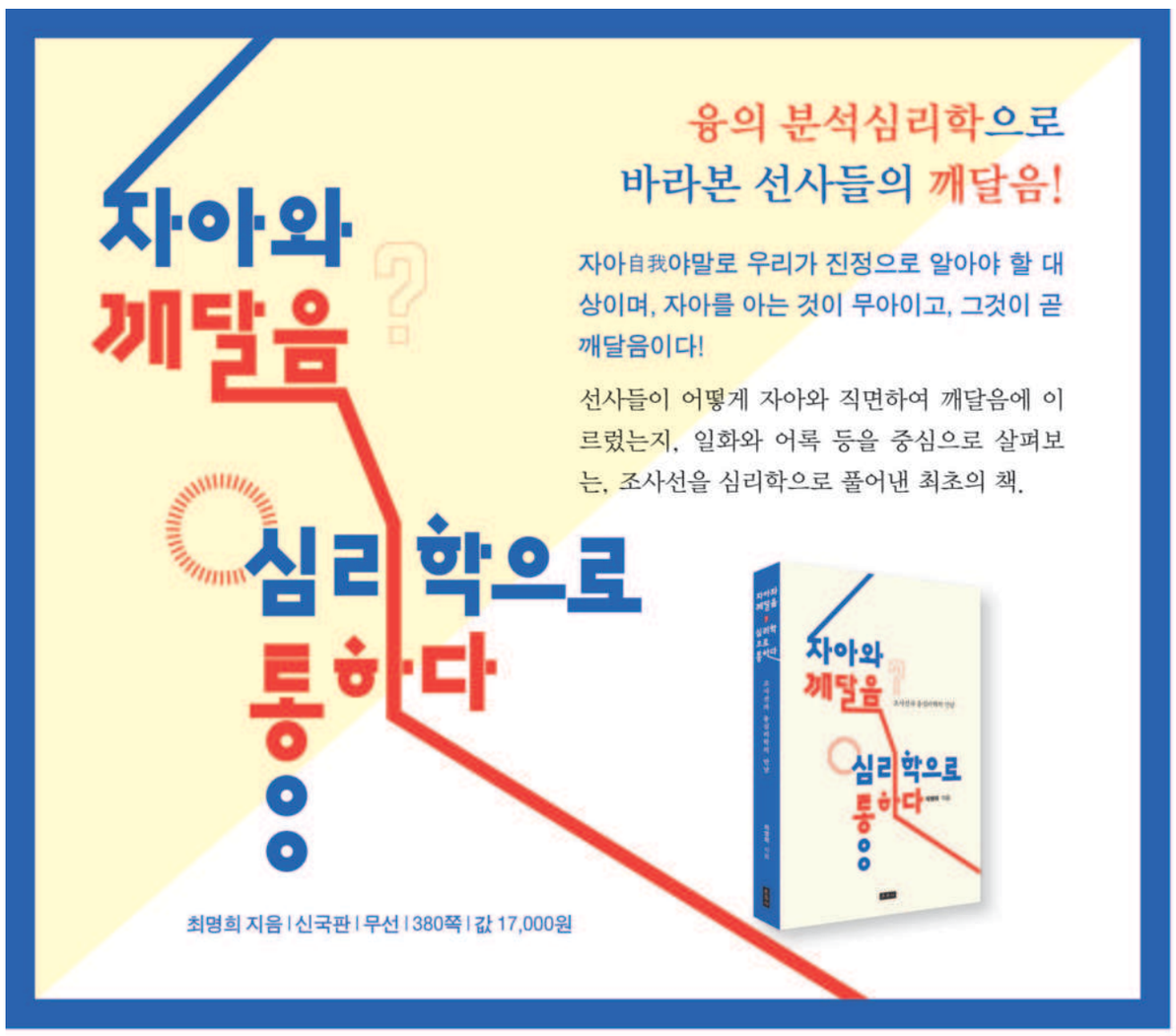
맥없이 그네를 흔들며 아영이가 물었다. 예린이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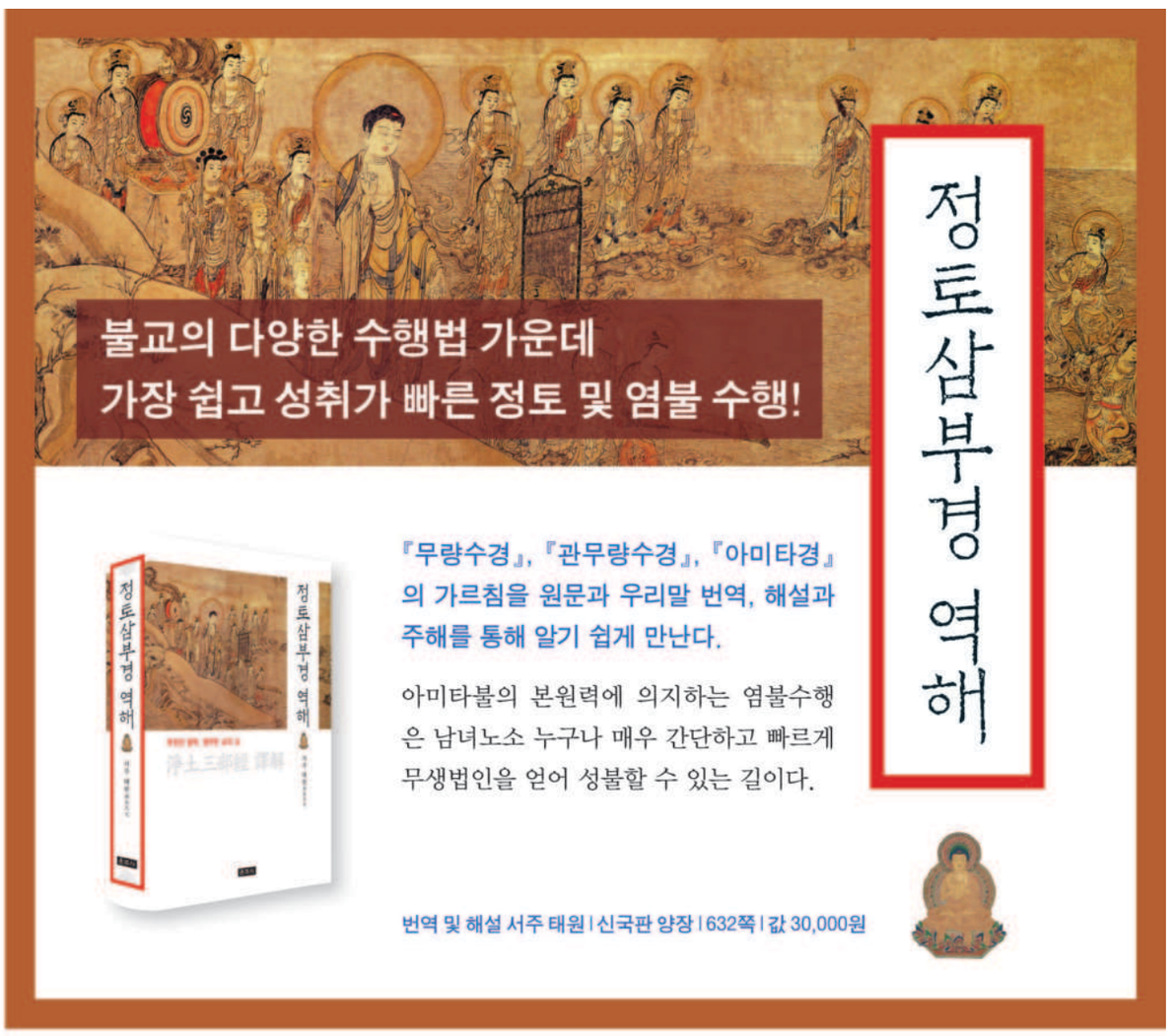
"네 엄마는 왜 팔찌에 커다란 슬픔이라는 글자를 새기셨을까? 대비주는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는 기도라고 아빠가 그랬어. 관세음보살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보일 거야. 부자도, 가난뱅이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우리는 모두 가련하고 불쌍하지. 이 세상에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보고, 함께 느끼는 게 나쁜 거니?"

병상에서 엄마는 아영이를 볼 때마다 '가련한 우리 아영이'라고 불렀다. 그 말은 아영이에게 '사랑하는'이라는 말로 들렸다. 아영이가 그토록 듣기 싫었던 말, 연민. 그 말을 사랑이라고 바꾸고 나니 모난 마음이 한결 둥글어지는 것 같았다.

"내일 학교 올 거지?"

예린이가 길 건너편에서 큰 소리로 물었다. 캄캄해진 놀이터에 앉아서 엄마의 팔찌를 매만지며 아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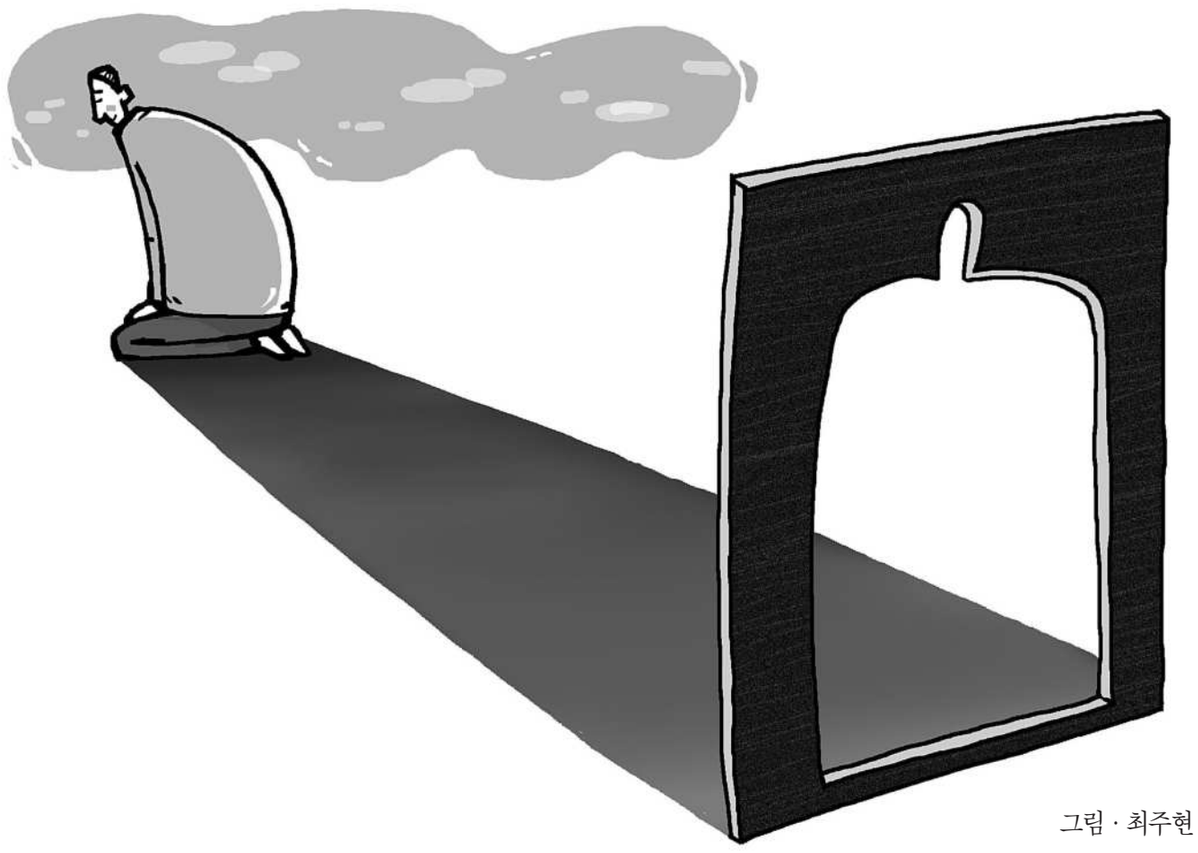
우주 천체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

대구에 계시는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 하게 된 것을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역대 부처님의 마음이나 어디 둘이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과 체가 없어 광대무변한 마음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은 마음 떠나서는 살지 못합니다. 육신이 없으면 무효고 마음 내는 게 없으면 목석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이 세상 온갖 법을 다 들이고 내고 하십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따로 있고,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부처님은 법신 응신 화신으로서 응해 주십니다. 모습은 다 각각이지만 마음이 한마음으로 집결돼서 음파가 모두에게 나가는 거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이야 어찌 둘이겠습니까. 전력이 같듯이 말입니다. 전력은 똑같습니다. 가설을 해 놓고 자기 가정의 용도에 따라서 많게든 적게든 끌어 쓰게 돼 있습니다. 그처럼 마음의 법도 역시 크든 작든 자기네 용도에 따라서 끌어 쓰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 법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계! 우리 몸뚱이의 세포 하나하나에도 가설이 돼 있고 지구에도 가설이 돼 있습니다. 지구에도, 바로 우리 세포에 가설이 돼 있듯이 그렇게 돼 있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무전통신기처럼 전파를 통해서 자연법칙으로서 전체를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 법계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무변하고 묘해서 마음이 한번 생각을 하면 꽃나무하고도 상통할 수 있고 달나라하고도 상통할 수 있고, 즉 말하자면 은하계하고도 그 근본이 통할 수 있고 태양계하고도 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우주 천체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에 있다는 얘깁니다. 직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만사 살림살이가 전부 우리 마음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끊임없는 진리지요.

그런데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하신다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네 살림살이, 생활을 빼놓고 부처님 법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떠나서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입산해서 수도하는 승려들이 참선을 한다면서 틀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참선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신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와선이나 입선이나 좌선이나 행선이나 즉, 누우나 일어서나 앉으나 일을 하나 그 자체가 전부 참선이란 말입니다. 일하고 앉고 서고 눕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참선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참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참선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면 나로부터 일체가 벌어졌다 하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잘못되고 잘되는 것도 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사대 성인들이 전부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알라. 너부터 깨달아라. 너를 끌고 다니는 너부터 믿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깥으로 '하나님이시여! 주여! 부처님이시여! 칠성이시여! 독성님이시여!' 하고 아무리 찾아 봤던들 허공에 헛손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내 마음의 주인이 있으니, 몸뚱이는 그 주인의 시자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도 여래의 집이 될 수 있고 도량도 여래의 집이 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 마음의 주인에게 맡겨 놓고 지켜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주인으로부터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면서 살림을 하는 것은 아시죠? 살림을 누가 합니까? 모두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자체의 마음이 마음을 내면, 마음을 내게 하는 것도 바로 그 주인입니다. 나쁜 일도 하게 하고 좋은 일도 하게 하고, 거룩한 일도 하게 하고 배신도 하게 하고, 불덩어리가 올라오게도 하고 답답하게도 하고, 애고도 생기게 하고 병고도 생기게 하고 여러 가지죠. 그런 걸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몸속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정자 난자를 받아서 내 영혼과 더불어 삼합이 합쳐져서 내가 탄생이 됐는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거기에 집결이 되는 거죠. 인연에 따라서 같이 합쳐집니다. 한 몸 태어나는 데 그것이 전부 들어 있게 되는 거죠. 들어 있되, 작용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자기의 업식대로 부서를 맡아서, 즉 공장이라면 공장을 맡아서, 다 자기 일할 것들을 맡아서 몸속에 들어앉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릅니다. 이 중생들은 전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대로 입력이 돼 가지고 그냥 현실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아서 모두를 다 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너와 나와 둘이 아닌 한마음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속에 있는 의식들도 다 '아! 둘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 네가 죽으면 바로 나도 죽는 것이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의 모든 중생들은 다 이 공부를 함으로써 상태가 바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네 자성을 섬기고 아래로는 몸뚱이 속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하게 되면, 그 마음으로 다스리면 보살로 화합니다. 즉 남한테 누가 될 일이라면 '모든 것을 그렇게 안 하게 당신만이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돌려서 놓는 데에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의식, 업보 인과응보 유전성 세균성 영계성까지도 마음으로써 한마음으로 다뤄 주는 데서 그게 커버가 되고, 앞서 입력돼서 나오던 게 다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수많은 의식들이 모두 천백억화신으로 다 화한다 이 소립니다. 모든 의식들이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화해서 나투게 되죠. 모든 중생들이 보살로 화해서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고 들면서 가고 옴이 없이 제도를 한다는 얘깁니다.

여기 대구에 와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참선을 하는 법과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법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법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의심, 의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주인공!' 하고 불러야만 참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면세계의 모든 것이 한마음이고, 들어오는 대로 외부의 모든 것이 한마음이며, 꽃과 날아다니는 것도 모두 함께 통해서 작용을 하고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여튼 전부 통합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동시에 '한마음'이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것이어서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한마음인 것입니다. 이 한마음을 딱 한마음으로 세운다면 중심,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란 뭘 뜻하느냐? 우리가 살림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똥 누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정된 것을 하나라도 꼬집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놓고 돌아가시죠? 걸어오면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놓고 오시죠? 그리고 만났다가 헤어졌으면 놓고 가시죠? 봤으면 본 대로 다른 걸 볼 때는 앞서 본 거는 놓고 가시죠? 일거일동 놓고 가시는 겁니다.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육신이 없으면 무효고 마음내는게 없으면 목석이죠

☞ 25면에서 계속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이러시면서 놓고 가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붙들고 그냥 매달리고 온통 야단들을 하니 그 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구도 시공을 초월해서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돌아가는 이상 모든 게, 천체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한 것도 벌써 과거입니다. (법상을 짚으시며) 이것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체 살림살이가 어찌 고정되게 머물러 있다고 보겠습니까. 머물지 않는 도리로 살고 계시니까, 그렇게 돌아가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대로 돌아가는 불바퀴에다 그냥 넣는 것입니다. 놓는 것입니다. 정신계의 이치를 모르시니까 다시 재차 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는 놓을 것도 없고 안 놓을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관찰하고 지켜본다면 하나하나 실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주여!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바깥으로 찾는다고 해서 참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는 실천궁행을 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다 하나를 딱 맡겼으면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실험이지 다른 게 실험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아하, 이런 거로구나!' 하고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참선입니다. 잘되려고 떡이나 밥이나 해다 놓고 시주를 억만금을 가져다 주어도 내 마음 깨닫는 거하고는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공부 하시는 분은 손가락 처맬 거 하나를 갖다가 시주를 한다 하더라도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집 한 채를 팔아서 다 갖다 바쳐도, 만약에 기복으로 하신다면 그건 이익이 하나도 없고 공덕이 없고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뿌리와 나뭇가지와 잎새와 모든 게 한데 어울린 한마음으로 시주를 한다면, 자기 한 것만큼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돌아올 겁니다. 그게 공덕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떠나서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고 여러분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아무것도, 뭐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생겨났으니까 애고나 병고나 그 어려운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뒤따르겠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참선을 진짜로 하실 수 있다면 정말이지 불가사의한 법이 이 세상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들의 법이라 이 소립니다. 불가사의한 게 불가사의한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그대로 우리들의 법입니다.

몇 년 전 얘깁니다만, 어떤 사람이 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공부를 하니까 차츰차츰 그 뼈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인체도 개선시킬 수가 있고 마음도 바꿀 수가 있고…, 이 도리는 너무 엄청난, 참 광대무변한 도리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충만히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를 모르시는 것뿐이죠. 지수화풍이 바로 광력 통신력 자력, 이 모두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지수화풍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원력이 있다는 결론이죠. 원력이 있는데도 자기를 중생이라고 낮추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낮추고, 또 때로는 '내가 나다' 하고 올리고 이러니까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걱정 하나도 없이 싱긋이 웃으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내 한마음 주인공에, 자기 마음을 끌고 가는 자기 운전수한테 믿고 맡기라는데 세금을 내라니 걱정입니까, 돈을 내라니 걱정입니까?

자기가 자기한테다 하나를 딱 맡겼으면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실험이지 다른 게 실험이 아닙니다.

왜 못합니까? 왜 못 믿습니까? 고깃덩어리인 스님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형상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허공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믿으라는데 왜 못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생명, 만물만생이 다 서로 돕고 삽니다. 나무는 공기를 저장했다가 인간에게 보급하고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내놓아서 그 나무들에게 공급해 주어 먹고 살게 하죠. 그렇듯이 사장은 직원을 위해서 직원은 사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회사를 위해서 양편이 다 뛰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게 평등하다 이 소립니다. 서로 주고받고 사니까요.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일을 안 하셨다면 한 달 월급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내지 않고 이 공부를 게을리 하신다면 게을리 한 것만큼 월급은 적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꼭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식이든 누구든 한 식구가 아무리 속을 썩이더라도 강압적으로 "네가 이렇게 해서는 깡통밖에 못 찬다." 하며 욕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볼 적마다 야단을 하거나 이런다면 빗나가기 십중팔구입니다. 보금자리가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겠죠? 그와 같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거지만 둘째, 셋째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에 불이 들어와야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지,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엇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잠잠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닦달을 해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기를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인간은 물론이고 개미하고도 통하고 바퀴벌레하고도 통하고, 꽃하고도 통하고 날아다니는 새하고도 통하고, 지렁이 하나 곤충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식구하고 통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라는 거 부모라는 거 남편이라는 거 아내라는 거, 이게 가설이 다 돼 있으니까 내 스위치 하나 누르면 식구들에게 다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폭넓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불을 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식구가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런다 해도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산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신다면 저 시장바닥에 나가 보거나 이 세상 돌아가는 자체를 잘 보십시오. 모두 끼리끼리 모여서 삽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끼리끼리, 기사는 기사대로 끼리끼리, 공원들은 공원들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삽니다. 또 시장에 가 보면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모두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 전부 가설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스위치를 누를 생각은 안 하고 거죽으로 만날 그냥 야단법석을 하는 겁니다. 죽느니 사느니 하고 "이놈아!"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그냥 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거를 참아 가면서 입으로는 거품을 물고 야단법석이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난 데 부채질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고 '모두가 둘 아니잖아. 아빠의 주인공, 그 마음도 둘이 아니니까 저 마음과 내 마음에 다 같이 불이 들어와서 광명세계를 찾을 수 있는데 괜히 이렇게 야단법석을 했구나. 이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한 철 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싸워야 하나?" 하면서 '그저 둘이 아니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인공밖에 없다.' 하고 거기다 놓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부드러운 행을 해 주세요. 그럼으로써 잘못 나가던 자식들도 생각을 잘하게 되죠. 그러고는 '아유, 바깥에서는 춥고 배고파도 집에만 들어가면 따뜻해.' 하는 생각에서 고만 다 팽개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음과 마음은 천 리 밖에서도 통하니까요.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니 실험을 해 보세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나가 있는 사람에게 주인공에다가 놓고 한번 전화를 돌려 보세요. (가슴을 짚으시며) 이게 전화통이죠. 내 집에 전화도 놓지 않고 남의 집에 전화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또 남의 집에서 오는 전화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내 집부터 전화를 놔야죠.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전화가 놓여 있으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전화를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나갔다가 집에 전화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전화를 하거든요. 이게 통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불가사의한 법인데도 불가사의한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이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단 얘깁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얕은 마음은 좀 올리고 높은 마음은 조금 가라앉히고 하면서 중심에다 놓고 중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멋진 살림살이죠. 이 세상에 아마 그런 꽃은 없을 겁니다. 엊그저께 천안에 있는 소년원에 갔는데 요만한 어린애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열세 살에서부터 스물세 살까지 몇천 명 됩디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니까 상징으로 무궁화꽃 가운데다 횃불을 세워 놓고 비둘기가 양쪽에서 입을 대고 있습디다. 그러니 어느 거 하나를 봐도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연에 따라서 돌아가지 않는 게 없고요. 그게 인연의 법칙이죠. 만남이 있어야 자동적으로 발전도 할 수 있고, 창조력도 기를 수 있고 창조도 해낼 수 있는 거지 만남이 없는데 독불장군으로서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그래서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해 놨는데 모두 그 뜻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아요. 연꽃에다 해놨으면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요, 무궁화꽃에다 해 놓았으면 나라의 법칙이요, 나라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꽃들이 모두 마음의 꽃을 상징한다면 마음을 일으키는 거를 불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불이고 마음의 지혜죠. 전부 둘 아니게 돌아가는 것을 상징해서 입을 마주 대 놨습니다.

모두가 모습은 다를지언정 생명도 둘이 아니요, 마음 또한 둘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 낮은 산이 있으면, 우리가 부를 적에는 낮은 산 높은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본다면, 뒷면을 본다면 낮은 산이 있음으로써 높은 산이라고 불리는 거지 낮은 산이 없는데 어떻게 높은 산이라고 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세계를 서천골이라고 해도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서천골. '서천골의 샘물은 바로, 젖지도 않는다.' 하는 것은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연결 연결 해서 돌아가니까,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니까요. 지구가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듯이 인간의 삶 자체도 태어나고 죽고 물질도 부서지고 변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상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무엇이 걸릴 게 있겠습니까.

몇천 년 몇만 년이나 보물을, 재산을 지니고 삽니까?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재산을 아무리 많이 자식들한테 물려주어도 하루아침의 벗밖에 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산을 주기보다도 마음공부를 하는 데에 그 뿌리를 성성하게 해 주는 것이 제일이며 재산보다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다가 몸뚱이를 벗는다면,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방문 안에서 인사를 하고 바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재물이란 언제나 감춰 두게 마련이니 나와서 인사나 할 수 있나요? 하하하…. 또 집이 아무리 좋다 한들, 땅을 아무리 많이 사 놨던들 죽어서 갈 때는 대문 안에서 고하고 말죠. 아무리 친한 친구나 자식, 부부가 있다 하더라도 동구 바깥에, 즉 말하자면 묘지나 화장터밖에 안 와 줍니다. 거기서 인사를 고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그 악업 선업들은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게 됩니다. 악한 짓을 했다면 악한 업이, 선한 일을 했다면 선한 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요다음 생에 나와도 역시 또 몸속에 침투해 가지고 또 그렇게 평생 고생을 시켜서, 아주 뭐 그 빚을 톡톡히 갚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마련입니다. 조금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5월 24일 대구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무주상 보시 보여준 위안부 할머니들



법현 스님
열린선원 선원장

미래의 부처님은 미륵불이라고 한다. 사랑을 뜻하는 인도 고어인 빠알리어 메따(metta)와 마이뜨레야(maitreya)의 중국어 번역을 우리말로 발음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은 석가모니부처님(샤카무니)의 전생수행자 시절의 존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인 보살(bodhisatta)이었을 때 깨달음의 여정에서 수행한 내용 가운데 하나를 가리킨다.

보살은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四無量心)이라고 해서 사랑함(慈, metta), 연민함(悲, karuna),기뻐함(喜, mudita),평온함(捨, upeckkha)을 실천해야 수행을 완성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사랑함과 연민함의 한자어를 합쳐서 우리가 자비라고 부르며 불교의 대표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자비의 짝은 지혜(智慧, panna)다. 자비 없는 지혜 없고, 지혜 없는 자비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깨달은 분, 아는 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처님 가운데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부처님의 이름이 메따 또는 마이뜨레야이고 우리 발음으로 미륵인 것은 뜻이 깊다.

온전히 우리말로 옮기면 '사랑하는 이'가 바로 미륵부처님인 것이다. 조금 한자어를 넣어 쓴다면 '자비로운 이'가 미륵부처님인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웃종교이며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

계산없는 베풂이 진정한 보시
지진 성금보낸 할머니께 배워
진실한 자비행에 박수 보내야

교의 구세주를 '메시아(messiah)'라고 하는데 역시 '사랑의 신'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불교의 미래불이나 그리스도교의 미래 구세주가 모두 자비와 사랑을 특기로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미래의 구세주 아니라 지도자는 다른 존재, 다른 이들을 자기와 자기 씨족 · 국가처럼 따뜻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며 배려하는 덕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부처님은 대승의 〈법화경〉에 의하면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여 깨달아 들게(佛之知見開示悟入)'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였다.

부처님의 지견은 모든 존재가 나요, 내 것이라고 할만 한 어떤 알갱이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도 없는데 그 반대라고 오해하는 너 또는 다른 이가 있을 수 없다.

너 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네 민초 또는 중생들의 정서언어로 이해한다면 무슨 뜻일까?

바로 너, 너희가 아닌 우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 들어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고 있는 말이 '다른 종교(other religion)'가 아니라 '이웃종교(neighbor religion)'라는 말이다. 세계 종교인들이 부러워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보다 더 뛰어난 생각이 있다. 바로 어떤 관계가 있어야만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아무런 관계나 이유나 이득이 없이도 사랑하는 자비 즉 무연자비(無緣慈悲)를 가장 큰 사랑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나누고 베푸에 있어서 아무 계산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이다.

사랑하거나, 관계가 있거나 이득을 위해서 하는 베풂과 나눔이 아닌 나눔을 했다는 데 이견이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한 자신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당사자들의 나라라는데 이런 저런 생각이 있는 모양이다.

설사 그런 생각이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들도 아니고 직접 말 못할 고통을 겪은 그들이 이른바 종교인들도 하기 쉽지 않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런 나쁜 일을 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지도자나 국가가 한 것이 아닌가? 군대 성피해자(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진 위로성금을 보냈다고 한다. 우리들이 부끄러워하고 따라서 실천해야 할 일이다.

발언대
가습기 살균제 논란

옥시 등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겪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옥시는 실험보고서를 조작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자인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이 발언과 SNS에서의 의견들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옥시 관련 연구진 양심선언해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2011년 서울대가 실시한 '옥시 연구'는 가습기 첨가제에 의한 임산부 혹은 영 · 유아 사망사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임신한 쥐에게 실험한 결과 '임신한 쥐 15마리에게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시키자 13마리가 폐사했다'는 보고서 기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쥐에 대한 실험 결과를 분리시켜 일반 쥐 실험결과만을 담은 보고서를 따로 제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매우 힘들다. 한 연구과제 안에 2개의 실험이 있었거나, 아니면 추후 별도의 실험 의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실험 결과가 회사에 다 보고되고 공개돼야 하는데 특정 연구결과만 따로 제출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문제다.

특히 기업 측이 실험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연구원 측에 전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런 정황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설마 대학이란 곳에서 기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떤 실험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생명현상'이란 것은 100프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흑백으로 나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폐 손상이 됐다는 피해자들에게 꼭 살균제 때문이 아닌 다른 요인, 황사 · 꽃가루 · 흡연과 같은 제3의 위험요소가 개입됐을 수 있다'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옥시 측 주장 자체를 100%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응하려는 해명 차원에서 벗어나 한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대 연구팀의 주장대로 옥시 측이 2011년 임신한 쥐를 실험한 1차 보고서는 묵살하고 일반 쥐에 대한 2차 보고서만 세상에 알렸다면, 5년간 왜 연구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나'는 항간의 논란에 대해선 학교에 재직 중인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대학 연구라는 것은 사회의 공공성을 담고 있는데, 기업의 의뢰에 의한 연구였다 해도 지금까지 침묵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최소한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고통과 슬픔을 안다면 양심선언이라도 했어야 한다. 그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다. 지금이라도 연구진에서는 진실 공개를 해야 한다. 침묵하는 것이 연구원의 윤리가 아니다. 감추고 있는 것, 말해야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입을 열지 못한 연구원이 있다면 자신 있게 나서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SNS 에서는

@suicide__pact
나 역시 우리 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집사람의 핀잔을 무릅쓰고 옥시제품을 애용해왔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정말 다행히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nandndoen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외 다른 옥시 제품들의 위험성 유무에 대해 당국이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서 집에 있는 다른 옥시 상품들을 버려야 하나 고민 중이다. 옥시의 다른 제품에 대한 유해성 조사도 속히 실시해 발표해야 한다.

@parkkwangon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소극적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옥시 또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社說

사찰 안전 위해 규제 풀어야

국민안전처의 전통사찰 특별점검 결과 전통사찰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2곳에 달하는 사찰이 일반 가정용 소화기 외에 별다른 화재대책이 없었으며 167곳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부처님오신날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날, 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기본 소화시설도 없는 사찰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

전통사찰은 대부분이 목조건축물이며 내부에 화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초, 연등 등이 있기에 다른 시설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대부분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찰 발생 시 국가적인 손실도 막대하다.

최근 전국사찰 화재는 201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소방시설 정비와 화재예방, 화재진압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사찰 내부의 소방시설 설치와 별개로 소방도로 건설이 시급하다. 하지만 산림법 등 관계법령에 발목이 잡힌지 오래다.

지난 2014년 강화 전등사에서는 산불이 사찰 내로 번지기 직전까지 갔다. 소방차가 들어 올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 전등사 내 300통의 방화수로 겨우 화마를 견뎠다. 위기를 넘기고 전등사는 소방차 진입을 막는 남문계단 정비 등을 제안했지만 문화재청이 사적 훼손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번 국민안전처가 대대적으로 사찰 소방설비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니 환영할 일이다. 점검과 함께 그동안 사찰 안전을 위협한 규제법령을 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불교 출판,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4월 27일 월간 〈불광〉 500호를 맞아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 잡지 · 출판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장은수 순천향대 미디어콘텐츠학과 초빙교수의 발표는 불교계 출판 · 언론인들에게는 중요한 경고였다.

장 교수에 따르면 불교 출판의 종교분야 점유율은 2009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타다가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2015년에는 5.8%나 줄었다. 성장률을 봐도 하락세는 두드러진다. 2012년과 2013년 20%대 성장률을 보였지만, 2014, 2015년에는 21.1%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타났다.

연령별 불교 서적 점유율은 한국불교를 꼭 닮아 있다. 교보문고에서 10대가 불서를 구입한 경우는 0.6%에 지나지 않았고, 20대는 11.7%에 그쳤다. 하지만 40, 50대는 각각 27.9%, 25.9%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잡지와 출판도 소비의 영역이다 보니 불교 인구와 비례해서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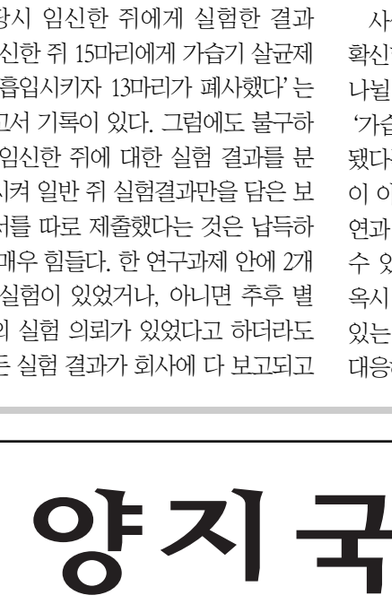
여기에 불자들은 한국 3대종교 신도 중 책을 안 읽기로 유명하다. 경전조차도 잘 안 읽는다. 실제 2014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소 종교 경전을 얼마나 자주 읽나'는 질문에 '경전을 자주 읽는다'고 응답한 불교 신자는 7.9%였다. 반면 개신교는 37.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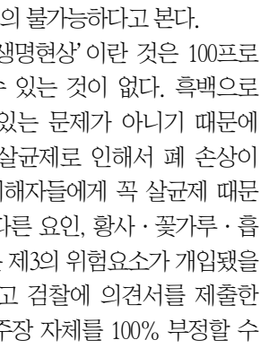
불교 출판은 변화가 필요하다. 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반 어린이 교육교재 등은 불황을 모른다. 불교 출판 중 어린이가 볼만한 교육 교재나 책이 발간되기는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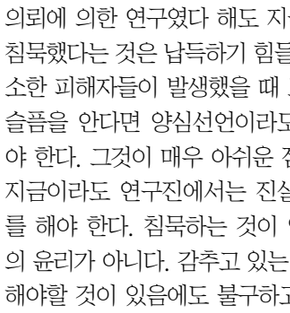
대형서점에서 자녀의 손을 붙잡고 성경책을 선물하는 부모를 자주 본다. 개신교는 양과 질로 종교 출판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스타 스님 필진만으로 이를 대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한 불교 출판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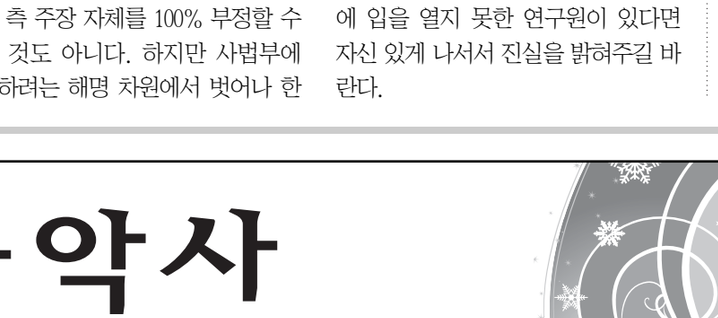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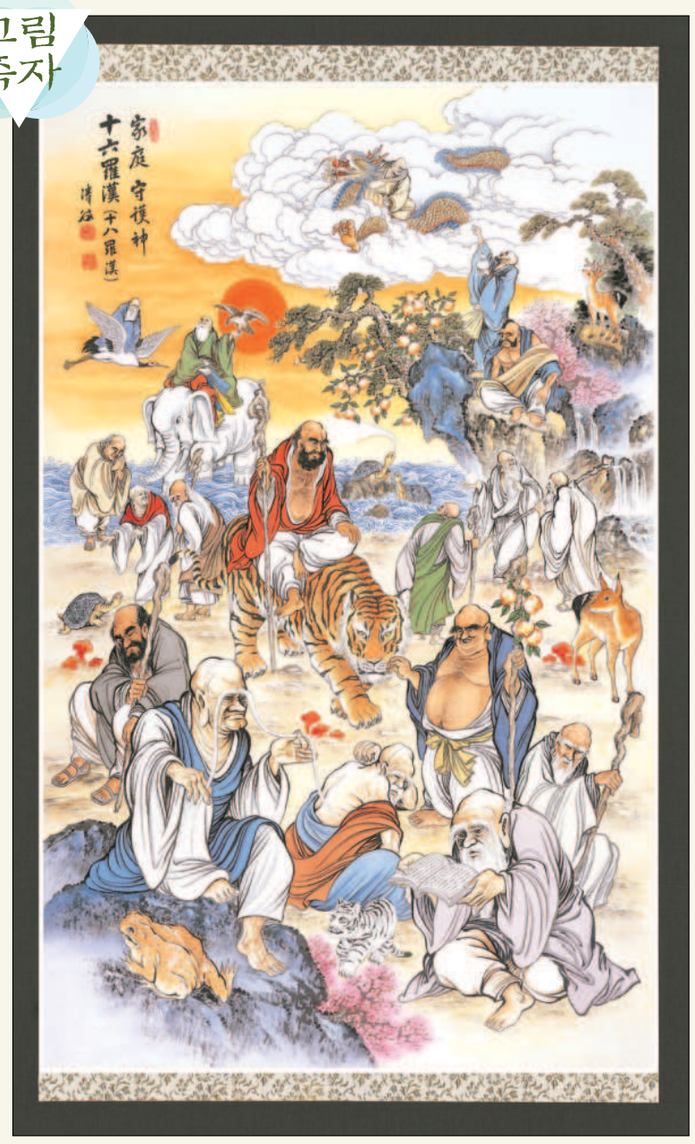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16나한도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굵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제작하였습니다. 16나한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자로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16나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나한도 족자
- 가격 : 100,000원
- 크기 : 그림 – 가로 47㎝ × 세로 75㎝
  족자 – 가로 59㎝ × 세로 120㎝

● 이미지를 잘 보이기 위해 그림을 강조하였으며, 실제는 족자 완성품입니다.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 (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